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2014년 6월 27일 금요일 제934호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車연비 놓고 부처간 초유의 엇박자

국토부 '부적합'-산업부 '적합'-기재부 '팔짱' 제각각
혼선 조율 위한 '연비판정 재검증' 최종발표도 혼선
시장 혼란·업계 반발…집단소송 등 후폭풍 거셀 듯

정부가 자동차 연비 판정과 관련한 부처 간 혼선을 결론짓기 위해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재조사를 거친 최종 발표에서조차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끝까지 상반된 발표를 하는 낯뜨거운 '초유의 엇박자'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봉책에 그친 정부안은 제작사와 소비자 간 2차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나온 정부 차원의 최종 발표였지만 부처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2개 차종의 연비 대해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산업부는 '적합' 판정을 각각 내렸다.

당초 재조사를 시작했던 목적은 지난해 국토부와 산업부가 이들 2개 차종의 연비 적합성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내놓으면서 생긴 혼선을 막고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조사의 의미가 없어졌다.

기재부는 "이번 재검증이 지난해 검증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로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며 "정부가 동일 차량의 연비에 대해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토부가 내린 부적합 판정에 따라 2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정부 발표에 자동차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현대자동차는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정부 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자동차 시장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현대차 싼타페 소유자 3명이 지난 24일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향후 집단소송 참여자가 늘어나면 자동차업계와 소비자 간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소비자의 편익을 뒷전으로 한 채 업계의 편을 드는 데 급급했다는 평가를 받은 산업부나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자국 자동차산업 규제 권한을 확보하려 했다는 평가를 받은 국토부 모두 정부 부처로서의 공신력이 크게 실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경제부총리급 부처로서 정책 혼선을 조율했어야 할 기재부는 반년 넘게 이를 방관해 정책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자는 정부 3.0 정책의 수장인 총리실의 역할 부재에 대한 질타도 나오고 있다.

김희준·유충현 기자 h9913@

홍명보호 무승 16강 좌절



한국축구가 2014 브라질월드컵 H조 조별예선에서 1무 2패(승점1)를 기록하며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27일 오전(한국시간) 열린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0-1로 패한 한국은 H조 최하위의 수모를 겪었다. 2000년대 들어 최악의 성적이다. 한국은 2002년 한·일월드컵(4강)과 2006년 독일월드컵(1승 1무 1패·조별예선 탈락), 2010년 남아공월드컵(16강)에서 최소 1승 이상의 성적을 올렸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단 1승도 챙기지 못하는 패배를 맛봤다. 벨기에전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는 손흥민을 홍명보 감독이 위로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연합뉴스

악사, 우리銀 인수전 관심
교보 자금조달 '천군만마'

컨소시엄 참여 논의… 내달 그룹회장 전격 방한

우리은행 인수 의사를 밝힌 교보생명이 프랑스 보험기업인 악사그룹과 우리은행 인수 컨소시엄 참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앙리 드 카트리에 악사그룹 회장이 내달 방한할 예정이어서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IB(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앙리 드 카트리에 회장이 7월 2일 한국에 오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방문은 악사그룹 한국 계열사 쪽에서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보생명과 우리은행 인수 컨소시엄에 관한 의사 결정을 위한 방한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실제 업계에서는 앙리 드 카트리에 회장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회동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악사그룹은 인수합병(M&A)으로 성장해 온 만큼 이번 우리은행 인수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재 교보생명은 맥쿼리, 소프트뱅크 등 8개 IB 및 PEF와 우리은행 인수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악사그룹이 교보생명의 주요 주주인 만큼 그동안 중요한 전략적 의사 결정에선 항상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며 "이번 방한에서도 우리은행 인수 컨소시엄에 대한 참여 여부와 투자 규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현재 교보생명은 우리은행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지분 매입을 타진 중이다.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지분은 30%로 3조원 가까운 자금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상 교보생명이 자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한도는 1조 3000억원가량이다. 보험사의 자회사 주식 및 채권 합계액은 일반계정 자산 총계의 3%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교보생명의 일반계정은 약 58조원이다. 따라서 나머지 필요한 자금은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한편 현재 교보생명의 주주는 3월 감사보고서 기준 △신창재 회장 33.78% △타이거홀딩스 LP 9.93% △CORSAIR KOREA INVESTORS LLC 9.79% △Guardian Holdings Limited 9.05% △한국수출입은행 5.85% △Finventures KBL LLC 5.33% △헤니르 유한회사 5.23% △AXA 2.24% △Meiji Yasuda Life Insurance Company 1.0% 등이다.

김경아·강구귀 기자 kakim@

동부CNI도 채권단 관리 초읽기 '사면초가'

내달 500억 회사채 만기 도래, 차환발행 금감원 제동에 무산… 법정관리 우려

동부제철에 이어 동부그룹 비금융계열사의 지주회사격인 동부CNI도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관련기사 2면

동부제철 패키지(동부제철 인천공장, 동부발전당진) 매각 무산에 이어 제조업부문의 지주회사격인 동부CNI의 회사채 발행까지 차질이 빚어지면서 동부그룹은 사면초가에 처하게 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과 동부그룹은 동부CNI의 회사채 상환 만기 도래를 앞두고 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동부CNI는 내달 5일 만기가 도래하는 200억원을 차환 발행하기 위해 지난 20일 금융당국에 담보부 회사채 신고서를 제출했다. 동부CNI는 다음달 총 500억원 규모의 회사채가 만기 도래한다.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각각 5일 200억원, 12일 300억원이다.

당초 동부CNI는 내달 5일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를 막기 위해 오는 30일을 청약일로 25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공모 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부제철과 채권단의 자율협약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금융당국이 동부CNI 회사채 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6일 금감원은 "동부제철 자율협약 추진 등 중요 투자 위험이 누락됐다"며 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상적 채권 발행이 불가능해졌다.

이처럼 회사채 차환 발행 계획이 지연되면서 동부CNI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부CNI가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받고 수정 신고를 할 경우 통상 신고 후 5영업일이 지나야 채권 청약을 재개할 수 있다"며 "이번 주말을 빼면 동부CNI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청약받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사채를 막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동부그룹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자금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기 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동부제철 부장이 보유 중인 동부화재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만일 동부CNI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동부CNI 지분을 보유한 제조업 전체까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동부CNI는 현재 동부제철(14.02%)과 동부하이텍(12.43%), 동부건설(22.01%), 동부팜한농(36.8%)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 중이다.

김경아 기자 kakim@

광공업생산 금융위기 이후 최악

5월 황금연휴 여파 2.7% 감소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늘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산업 생산은 두 달 연속 뒷걸음질쳤다. 전달 지표를 끌어내렸던 세월호 여파는 완화됐지만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생산업종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 컸다. ▶관련기사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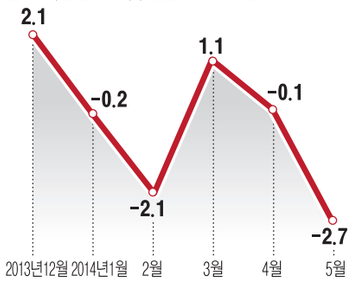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에서 증가했으나 광공업, 건설업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2.7% 감소하며 전체 생산지표를 끌어내렸다. 연휴와 자율휴무 등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로 자동차 생산이 7.4%나 줄었고 노트북용 LCD 등의 수출이 부진해 반도체 및 부품생산이 4.7%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 재고는 전달보다 2.2% 줄었으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달보다 2.9%포인트 하락한 74.7%였다.

반면 전달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위축됐던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1.5%), 예술·스포츠·여가업(6.9%) 등이 늘어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광공업생산 추이

단위: %, 전월대비(2,3,4월은 잠정치) ※출처: 통계청



소비지표는 소매판매지수가 1.4% 증가하며 전달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순환지표도 일제히 떨어졌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하락해 전월 대비 0.4포인트 떨어졌다.

수출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5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가 27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갔지만 수출은 478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줄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숫자로 본 NEWS

최저임금 월 116만6220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거듭한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상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앞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각각 26.8% 오른 6700원과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김희준 기자 h9913@

내년 최저임금 7.1% 인상 시급 558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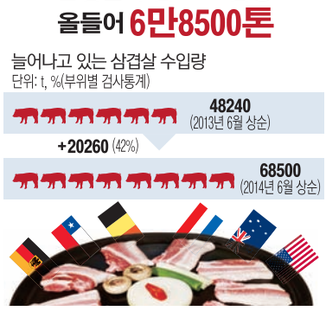
삼겹살 1kg 소매가 2만860원

올해 삼겹살 가격이 급등하면서 삼겹살 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초순까지 수입한 삼겹살은 6만8500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만8240톤보다 42%나 급증했다.

이는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대체 수요가 늘어난 데다 국산 삼겹살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수입산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삼겹살 소매가격은 지난 6월 kg당 평균 2만860원으로 작년 같은 달의 1만7540원보다 19%(3320원)나 올랐다.

전민정 기자 puri21@

삼겹살 수입 42% 급증 올들어 6만8500톤



Star 금요섹션 19~25면

커버스토리
가수들의 해외진출


김기문 회장 ▶10


최평락 사장 ▶12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오늘의 월드컵 결과(27일)

※빨간색은 16강 진출국

G	독일	1-0	미국
G	포르투갈	2-1	가나
H	벨기에	1-0	대한민국
H	알제리	1-1	러시아

월드컵 16강 경기

		경기시간	
29일	브라질	<01:00>	칠레
	콜롬비아	<05:00>	우루과이
30일	네덜란드	<01:00>	멕시코
	코스타리카	<05:00>	그리스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윤석금·강덕수·현재현, 이번엔 김준기…중견그룹 수난사

〈웅진〉 〈STX〉 〈동양〉

벼랑끝 몰린 동부그룹 해체 위기 직면



윤석금·강덕수·현재현 그리고 김준기〈사진〉…. 중견그룹 '총수 수난기'가 이어지고 있다.

2012년 웅진을 시작으로 지난해 STX·동양그룹을 한순간에 해체시킨 유동성 위기가 동부그룹에 재현될 조짐이다.

현재 김 회장의 심경은 복잡하다. 지난해 11월 2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구조개선 자구책을 내놓을 때와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 금융계열과 함께 동부그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인 제조업부문이 해체될 중대 위기에 직면했다.

동부제철 자율협약 추진은 제조업부문 지주회사인 동부CNI의 자금 경색, 동부하이텍 매각 잠정 중단까지 계열사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부하이텍 매각은 동부그룹 정상화 자구 계획의 핵심 사안이다. 동부하이텍은 국내 최대의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이자, 김 회장이 지난 15년간 3500억원가량의 개인 재산을 털어넣으며 공들인 회사다. 동부가 지금까지 이 회사에 투자한 돈만 3조원에 이르지만 김 회장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감히 포기했다.

하지만 동부제철과 채권단의 자율협약 체결이 난항을 겪으면서 동부하이텍의 매각 일정도 잠정 중단됐다. 동부하이텍 매각 주관사 관계자는 27일 "동부제철의 자율협약 체결 여부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동부하이텍의 매각 진행은 현재 모두 멈춘 상태"라고 밝혔다.

당초 동부하이텍 매각 주관사인 KDB산업은행과 노무라증권은 이번주 1차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세 곳에서 동부하이텍의 실사를 벌이게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부제철의 자율협약 체결이란 변수가 생기면서 향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8600억원에 달하는 동부하이텍의 부채 정리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각 주관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안내서(IM)를 발송할 때 동부하이텍의 부채와 보유 지분을 모두 정리하는 조건으로 안내했지만 자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동부그룹 정상화 계획이 순식간에 틀어지자 동부제철, 동부CNI가 채무불이행으로 조만간 채권단의 관리를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동부그룹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자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그룹 해체까지 이른 2012년 웅진사태가 재현될까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시 웅진그룹은 알짜 계열사인 웅진코웨이(현 코웨이), 웅진케미칼(현 도레이케미칼), 웅진식품 등을 줄줄이 매각했다. 14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30위 그룹이 지주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졌다.

동부제철 자율협약 체결 난항으로
CNI 자금경색·하이텍 매각 잠정중단
'웅진·STX·동양사태 재현될라' 우려
최대 위기 맞은 金회장 선택 기로에

동부그룹의 제조업부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동부제철(14.02%), 동부하이텍(12.43%), 동부건설(22.01%), 동부팜한농(36.8%) 등 제조업 계열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동부CNI는 사실상 다음달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500억원 규모)를 해결하지 못하게 됐다. 동부 측은 어떻게든 동부CNI가 채무불이행으로 가는 길을 막으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동부CNI 지원 문제를 두고 김 회장의 사재 출연 문제와 장남 남호씨의 동부화재 지분 담보 제공 문제를 두고 동부와 채권단이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다. 김 회장이 끝까지 금융계열사 지분을 내놓지 않을 경우 윤석금·강덕수·현재현 회장의 '데자뷰'가 될 수 있다. 경영자로서 최대의 고비를 맞은 김 회장이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장효진·최재혁 기자 js62@



동부그룹이 포스코의 동부인천스틸(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 패키지 인수 포기 선언으로 재무구조조정에 난항을 겪게 됐다. 26일 서울 대치동 동부금융센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계열사 차입금 5조7000억 '눈덩이'

7월 만기 회사채 2200억…CNI 회사채 발행도 무산

계열사 워크아웃 우려 확산

동부그룹 계열사들의 차입금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금융권에서의 대출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차입금은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한국신용평가는 동부그룹 비금융 계열사들의 차입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6조26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동부익스프레스 매각 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제외하면 최근 차입금은 5조7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차입금은 전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포함해 산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계열사별 차입금 규모는 동부제철 2조3000억원, 동부하이텍 6600억원, 동부팜한농 6400억원, 동부메탈 4700억원, 동부CNI 2560억원, 동부대우전자 1750억원 등이다. 동부건설의 차입금은 동부익스프레스 매각 등으로 현재 65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동부그룹 주요 계열사의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1조9000억원 수준에서 약 1조8000억원 수준으로 내려왔다. 채권시장에서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투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금융회사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7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동부그룹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동부그룹은 올해 7월에만 회사채 2200억원의 만기가 예정돼 있다. 이는 하반기 만기 도래분인 4240억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계열사별로는 동부제철 700억원, 동부팜한농 700억원, 동부CNI 500억원, 동부메탈 300억원 등이다.

동부CNI는 다음달 5일 200억원과 12일 300억원 등 만기가 도래하는 500억원을 차환발행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회사채 발행은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업계는 동부CNI의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어 회사채 시장에서의 트리거 현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동부그룹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607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도래가 예정돼 있다. 내년 상반기 4080억원, 하반기 1990억원 등이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동부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이 결정되는 계열사의 경우 회사채 투자자 손실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장청 기자 jcha@

'BBB-' → 'BB+'

동부제철·건설·CNI·메탈 등
무보증사채 '투기등급' 강등

한국기업평가는 동부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기평은 26일 동부제철, 동부건설, 동부CNI, 동부메탈의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각각 'BBB-'에서 'BB+'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또한 모두 부정적 검토 대상에 등록했다.

동부팜한농은 신용등급 강등에서 제외됐다. 동부팜한농에 대해서는 주주와 재무적투자자(FI)와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계약으로 영업 양수도, 신용공여행위 등에 대해 FI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므로 직접적 재무리스크는 높지 않다며 'BBB+'를 유지했다.

'BBB-'까지는 투자등급에 속하지만 'BB+'부터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된다.

국내 신평3사 가운데 동부그룹 계열사에 투기등급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부제철의 전자단기사채와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등급도 'A3-'에서 'B+'로 내렸다.

이번 강등은 동부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계획 실행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기평 관계자는 "동부발전당진과 동부인천스틸의 동반 매각을 포함한 동부그룹의 자구계획 실행은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유동성 위험을 포함한 그룹 전체로 재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4일부터 그룹과 주채권은행 간 일부 계열사에 대해 자율협약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계열사별로 자율협약 외 다른 방식의 구조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그룹과 주채권은행 간 구조조정 추진안에 대한 논의를 지켜본 후 신용등급에 추가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장청 기자 jcha@



aT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에
마술을 걸다

산지는 든든하게, 식탁은 안전하게
생산자의 보람과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행복한 세상
행복마술사 aT를 만나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

www.aT.or.kr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의 힘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비 분쟁에 車 터진다…수출 주력상품 타격 불보듯

같은 차량 다른 연비…車업계 '혼란'

자동차 업계가 공황상태에 빠졌다. 동일한 차량을 놓고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가 엇갈리자 자동차 업계는 '혼란스럽다'는 탄식만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정부가 연비를 발표한 27일 공식자료를 통해 "연비에 대한 정부 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행정의 대상이자 객체인 기업은 어느 결론을 따라야 하는지 매우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 조건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테스트 운전자의 운전 패턴, 시험설비, 시험실 환경요인, 시험 연료, 차량 고정 방식, 차량 길들이기 방식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동일 기관이 측정해도 편차가 존재한다"며 공정성 결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자동차 업체들은 갑작스럽게 국토부에서 연비 검증에 끼어들었다는 점에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례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과 수입차 업체들은 10년 넘게 연비 인증 법규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비 인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승용차에 대해 산업부에서 인증받은 에너지소비효율(연비)을 준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국산승용차와 수입차 일부 차종에 대한 연비 조사가 시행되면서 혼선을 빚게 됐다. 현대차와 쌍용차는 연비 인증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법규에 의해 실시하는 사전·사후 인증과 '양산차 연비 사후관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고도 국토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결과로 일반기업이나 소비자가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느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어느 부처의 결과를 신뢰해야 할지 기업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으로 현대차와 쌍용차엔 브랜드 훼손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점이다. 국내 기업들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브랜드 이미지 하락은 물론, 소비자의 비난까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시장에서 디젤차가 큰 인기를 끌며 '연비'가 소비자의 주요 선택포인트로 부상한 만큼, 두 회사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발표만 하면 그만이지만, 기업은 고래싸움에 등 터져 소비자 불만을 받아내는 총알받이 신세가 됐다"며 "연비 측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도 없이 각자 연비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비 재조사 결과는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 부처 싸움이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산업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국산차·수입차 일부 연비 조사
산업부 인증 준용해오다가
국토부, 작년 첫 검증 납득안돼

현대·쌍용차 브랜드 이미지 훼손
"연비 재조사 해외까지 악영향"





표시 연비 부적합 자동차

※ 출처: 기획재정부

제작사	차종	검증기관	제재
현대	싼타페	국토부	과징금 최대 10억원
쌍용	코란도 스포츠	국토부	과징금 최대 10억원
아우디	A4 2.0 TDI	산업부	과태료 최대 2000만원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산업부	과태료 최대 2000만원
크라이슬러	지프 크랜드체로키	산업부	과태료 최대 2000만원
BMW	미니 쿠퍼D 컨트리맨	산업부	과태료 최대 2000만원

자동차 연비 논란 일지

- 2013년 5월: · 국토부, 국내 시판중인 13개 차종 대상 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 돌연 발표
- 10월: · 국토부, 싼타페 R2.0 2WD·코란도 스포츠 4WD AT6 연비 '부적합' 판정 · 현대차, 산업부 방식으로 재조사 요청
- 2014년 1월: · 산업부 조사 결과 적합 판정
- 2월: · 국토부, 현대차 요구 수용 재조사 실시
- 6월 5일: · 6월 13일까지 결론 발표 예고
- 14일: · 국토부, 결과 발표 연기
- 26일: · 국토부, 산업부 등 정부 합동 조사결과 발표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동차 연비 재검증 추진경과 및 결과 브리핑에서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자동차 연비 재검증 추진경과 및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연비 조사결과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발표 내용

국토교통부
"2013년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과징금 부과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조사 결과에 따라 싼타페·코란도스포츠는 적합"
"아우디 A4, 폭스바겐 티구안,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 BMW미니 등 4개 차종은 부적합 판정. 과태료 부과할 예정"

기획재정부
"정부가 동일 차량의 연비에 대해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점 사과"
"올해 국토부·산업부의 재검증 결과는 작년 조사 결과를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

국무조정실
"연비 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할 것"

부처 칸막이…조율 못하는 '무능 정부'

자동차 업계·소비자 혼란만 부추겨

"정부가 같은 차량 연비에 대해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차관보와 국장이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조사 결과를 제각각 발표했다. 연비 과장 여부를 놓고 반년이 넘게 산업부와 국토부가 맞섰으나 끝내 조율을 이뤄내지 못했다. 중재에 나섰던 기재부와 국조실 역시 손을 들었다. 정부의 국정조정 능력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조사 결과대로 실측 연비가 신고 연비보다 각각 8.3%, 10.7% 낮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현대차와 쌍용차에 각각 10억원과 2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는 두 차의 신고 연비가 오차범위 5%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는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같은 혼란의 시작은 지난해 5월부터였다. 산업부는 지난 2003년부터 '자동차 연비 사후 검증'을 맡아왔다. 정부는 산업부 기준에 맞춰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더해 산출한 복합 연비만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적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승용차 연비 사후 검증' 작업을 하면서 부처 간 싸움이 본격화됐다.

국무조정실과 기재부가 중재에 나섰으나 실패, 결국 각 부처는 이날 각자의 입장을 그대로 발표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정부가 동일 차량의 연비에 대해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보는 다른 정부 관계자들의 시각 역시 곱지 않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사건이 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부미 기자 boomi@

줄소송에 통상마찰 '후폭풍' 우려도

정부 부처의 일부 차종 연비 부적합 판정은 자동차 업계의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벌써부터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싼타페 소유자 3명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인당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총 60만원이다. 유류비 50만원과 정신적 피해보상 1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현재는 소송인 수도 작고 액수도 적은 상황이지만, 업계는 이번 부적합 판정으로 줄소송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싼타페 모델과 코란도스포츠 모델은 각각 12만5000대, 2만5000대. 손해배상청구 금액 60만원을 적용해 단순 계산할 경우라도 총 900억원에 달한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 문제로 합의금을 물어준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 총 13개 모델의 북미 판매 차종 연비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미국 소비자들의 소송이 이어졌고,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2월 총 90만대에 이르는 차량에 대해 총 3억9500만 달러(약 4191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수입차 업계의 반발은 통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D 컨트리맨'은 산업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최근에 수입차가 늘고 있고, 자동차 연비 사후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통상마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FTA 자동차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게 돼 있다.

수입차 업계 1위 BMW그룹코리아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BMW그룹코리아는 "2012년 검증에서는 오차범위 내에 들어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1년 만에 같은 기관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태성 기자 tskwon@

7월,
상생과 배려를 향한 첫걸음
기초연금이
시작됩니다

● 더 필요한 어르신을 배려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은 덜어주는 기초연금은 상생연금입니다.
● 받으시던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으시고 기초연금을 더해서 드립니다.

제도 안내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시행시기 **2014년 7월 1일 (첫 지급일 : 7월 25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종료 됨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

지급액 **월 최대 20만 원**
단독가구 2~20만원, 부부가구 4~32만원 수급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국민연금콜센터 (☎1355), 읍·면·동 주민센터

시행 안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서도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에 신청해주세요.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도 가능 ※ 온라인 신청은 7월 7일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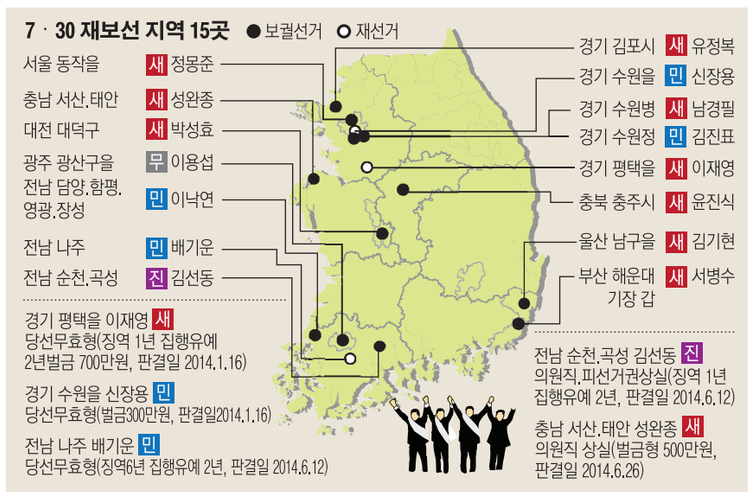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 기초연금 신청 불필요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은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이미 만 65세가 되신 분들은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필요 없음

기초연금 신청(접수)비용이 있나요?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의 가치는 상생과 배려입니다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땐 365일 24시간 보건복지콜센터

보건복지부 NPS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국민연금



7·30 재·보선 역대 최대 15곳 확정

동작을·수원병 '빅매치' 예고

새누리, 김문수·나경원 등 거론
새정연, 손학규·금태섭 등 채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7·30 재·보궐선거는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의 당선 무효로 인해 역대 최대규모인 15곳으로 확정돼 치러질 전망이다. 여야의 공천 접수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대진표의 윤곽이 갖춰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공천을 받기 위한 알력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과 경기 수원병(팔달구) 등의 지역에 출전할 '거물급' 후보들에게 관심이 몰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후보 공모를 마무리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평택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전남 순천·곡성), 이혜훈 전 최고위원(울산 남구을) 등 53명이 후보로 접수한 가운데, 이들간 면접을 통해 다음달 6~7일께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공모를 마감한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금태섭 대변인을 비롯해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명진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상 광주광산을), 김창수 전 의원(대전 대덕), 이기우 전 의원(경기 수원을), 정장선 전 의원(경기 평택을), 최인기 전 의원, 송영오 상임고문(이상 전남 나주·화순) 등이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접수 마지막 날인 27일 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보선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여의도 복귀를 노리는 거물급 후보들의 행보다. 여야는 최대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과 경기 수원병에서 승리를 위해 전략공천 카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황식 전 총리 등 잠재적 대권주자 등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략공천 카드로 언급된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공모 절차를 밟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거물급 인사들의 전략공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수원의 경우 손학규 상임고문 외에 정동영, 김두관 상임고문,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등이 거론된다. 김현철 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새정치연합 후보로 서울 동작을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오늘 당정청 회의… "6월국회 법안 논의"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과 정부 고위 당국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회의를 연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개편 이후 첫 회동으로, 상견례 성격도 띠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6월 국회 쟁점법안과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주요 의제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무원의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도 처벌하는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일명 유병언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사안은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현안으로 떠오른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중 기자 zerg@

인사수석 부활한다고 '인사 참사' 막을까

공개적 검증한다고 하지만
비서실장이 '최종 컨트롤타워'
靑 부속실 '문고리 권력' 문제
"김기춘 사퇴" 목소리 여전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를 계기로 인사수석실을 6년 만에 부활시키는 등 인사시스템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비서실장이 인사를 총괄하는 데다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문고리', '비선' 권력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겨 있지 않아 근본적 처방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인사시스템 어떻게 바뀌나= 인사수석실의 가동 방식은 노무현 정부 때와 거의 흡사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보좌관실을 인사수석실로 개편한 바 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뒤 인사기획비서관실이 만들어졌다. 그러다 현 정부에서 이를 다시 없애고 인사지원팀장만 남겨둔 상태다.

이번 개편으로 부활하는 인사수석 밑에는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둘 계획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비서관은 인재를 발굴하고 관리해 상시 추천할 수 있는 인력풀을 유지하고, 인사혁신비서관은 5급 공개 채용, 순환보직제도,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등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공공분야 인사혁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적 인사 추천을 하게 될 인사수석실에선 언론보도, 개인 블로그, SNS 등 공개된 분야에서의 검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납세·전과 조회 등 당사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처럼 정무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이 맡는다.

인사의 최종 컨트롤타워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인사를 진행할 후보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도 그의 역할이다. 현재의 틀이 유지된다면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등이 인사위에 참석한다.

◇ 폐쇄적 권력구조 개선 필요= 박 대통령의 인사시스템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인사수석실을 통해 인재풀을 상시 관리하고 추천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결정권자는 비서실장이다. 인사업무를 보는 직원의 숫자만 늘어났을 뿐이라는 비아냥이 그래서 나온다.

여러 인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실장과 인사에 두루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부속실의 '문고리 권력'이 바뀌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비서를 지낸 정윤회씨 등 '비선라인'이 가동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막는 장애물이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폐쇄적 권력구조가 지속되는 한 아무리 시스템을 뜯어고쳐 봐야 인사의 고질적 병폐를 막기는 어렵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인사 실패도 인재(人災)였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지낸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도 자체가 아니라 추천과 검증을 철저히 분리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인사위원장의 수첩과 머릿속에 이미 정해진 인물이 있으면 인사는 말짱 꽝"이라며 "인사를 지휘하는 인사책임자, 즉 김기춘 실장을 경질하지 않고는 효과 없는 제도 개선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중·김미영 기자 zerg@

인사수석 변천사

노무현 정부
- 2003년 2월 인사보좌관(차관급)신설
- 2003년 12월 인사수석(차관급)실로 확대 개편

이명박 정부
- 2008년 2월 인사수석실 폐지, 인사비서관(1급)으로 격하
- 2009년 8월 인사기획관(차관급) 신설 발표
- 2010년 12월 인사기획관 제도 폐지

박근혜 정부
- 2013년 2월 비서실장이 위원장 겸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 설치
- 2014년 6월 인사수석(차관급)실 부활 발표

"전력난 대비 200만Kw 추가 확보"

산업부 여름철 수급대책… 온도제한 26도로

정부가 올 여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전력수급 대책을 내놨다. 대신 비상시엔 200만Kw의 추가 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26도 온도제한 의무를 권장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를 통해 올 여름 전력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이상기온, 대형 발전기 불시정지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00만kW 규모의 추가 수급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불의의 사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전년에 비해 낮은 기온의 영향으로 7900만kW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최대 전력공급은 신규 발전기 준공, 정지원전 감소 등으로 작년 여름보다 늘어난 8450만kW로 전망했다.

다만 산업부는 이상기온이나 대형 발전기의 불시정지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하반기 준공 예정인 발전기의 시운전, 민간 자가 상용발전기 가동,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중단 및 자율 단전 등을 통해 200만kW 이상의 추가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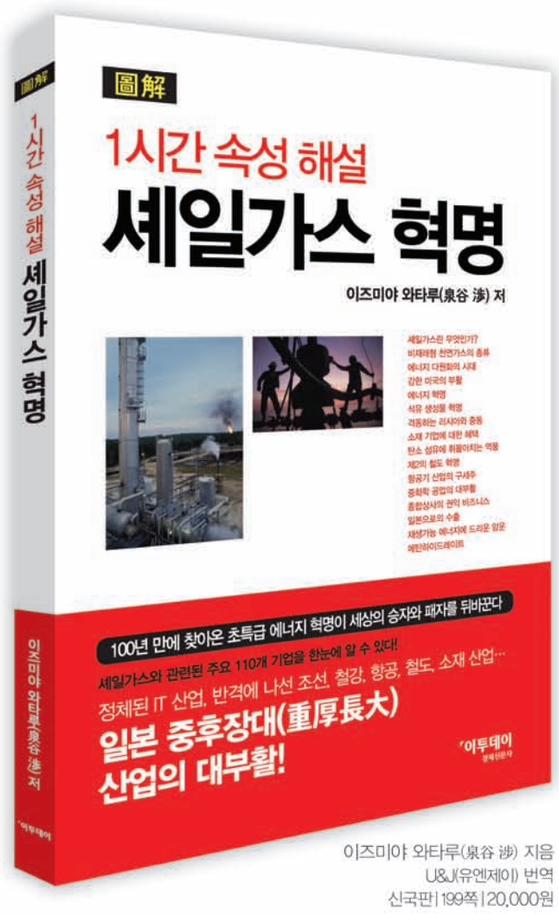
비상시를 대비해 예기치 못한 수급불안 발생 시 수요시장 개설, 전압 하향조정, 긴급절전 등의 비상단계별 대책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개문냉방(開門冷房) 영업 단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를 시행치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의 실내 냉방온도를 작년처럼 26도 이상으로 권장하기는 하되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지난해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613개 대형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3~15% 줄이도록 한 조치도 올해는 시행하지 않는다. 단 개문냉방 영업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적용한다.

김희준 기자 h9913@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J(유엔제이) 번역
신국판 | 199쪽 | 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언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싸울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분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푼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 · 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youngsh@etoday.co.kr

물 건너간 책임총리 힘 받는 경제부총리

유임된 정 총리 대통령에 진언한다지만
'대독총리' 꼬리표 뗄수 있을지 의구심
실세 최경환 후보자 '국정 2인자' 부상
경제혁신 3개년 등 경제정책 총괄할 듯

국정 2인자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상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으로 책임총리제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실세 부총리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청와대에 따르면 26일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60일 만에 유임된 것은 총리후보자의 잇단 낙마에 따른 고육책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후 국정의 장기 표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 쇄신을 통해 새로운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무색해졌고 관피아 척결 등 국가개조 수준의 사회적 적폐 일소작업의 추동력은 잃게 됐다.

정 총리는 이날 "국가 개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진언하겠다"라며 책임총리로서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럼에도 '대독총리'·'의전총리'의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에도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사표수리 일보직전까지 갔던 만큼 이미 무게감은 떨어진 상태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무존재감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아보인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자연스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를 주목하고 있다. 국정공백을 수습하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 규제완화를 비롯해 각종 국정 과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 무게추가 옮겨갈 것이란 예측이 대세다.

게다가 그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함께 '위스콘신 3인방'으로 불리며 청와대-기재부-국회의 핵심에서 삼각편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이들이 앞으로 청와대, 정치권, 정부의 경제정책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벌써부터 실세 경제부총리 등극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2016년 4월 총선까지 1년 반 남짓 경제정책을 총괄할 한시적 경제부총리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사 발언 등을 놓고 "소득 불평등 개선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가 아닌, 가계부채 확대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에서 새 경제팀의 주요 정책을 두고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예상만큼 큰 입김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정부가 내놓는 규제개혁 정책들은 대부분이 대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는 형식이어서 경제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LTV·DTI 규제완화는 이전 정부에서도 조심스러웠던 만큼 험로가 예고된다"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힘 빠진 책임총리
(정홍원 총리 사의 표명부터 유임까지)

4월 27일	정 총리, 세월호 참사 발생 11일 만에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 박 대통령, '사고수습 이후 사표 수리' 방침 발표
4월 28일	정 총리, 사의표명 후 첫 출근 간부회의 주재. 이후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방문,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등 제한적 행보
5월 22일	박 대통령, 정 총리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 지명. 정 총리에 대해서는 '신임총리 임명까지 직무수행 계속' 입장을 밝힘
5월 28일	안대희 후보자, 고액수입·전관예우 논란으로 지명 엿새만에 후보직 전격 사퇴
6월 10일	박 대통령,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지명
6월 24일	문 후보자, 역사관 논란에 휘말린 끝에 지명 14일만에 전격 후보직 사퇴
6월 26일	박 대통령, 정 총리 사의표명 후 60일만에 전격 유임 발표. 정 총리 '국가개조에 앞장서 마지막 모든힘 다하겠다'고 밝힘



정홍원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을 결정했다. 뉴시스

수출이 성장 주도… 투자는 부진

한은 '경제구조' 분석… 2012년 최종수요 중 수출 비중 38%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특징을 띠었다. 반면 성장기반인 투자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1~2012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경제구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종수요(수출+투자+소비)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5.5%, 2011년 37.8%에 이어 2012년 38.3%로 계속 확대됐다.

또 전체 부가가치에서 수출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중도 2010년 30.3%, 2011년 31.5%, 2012년 32.0%로 늘었다. 아울러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 인원도 전체 취업자의 25.9%를 차지해 2010년(24.4%)과 2011년(25.3%)보다 상승했다.

이와 달리 투자는 둔화된 모습이다. 최종수요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9.5%로 2010년(21.0%) 및 2011년(20.5%)보다 낮았다. 투자로 인한 부가가치유발액의 비중도 19.0%로 집계, 2010년(19.8%) 및 2011년(19.3%)에 이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도 부진했다. 소비의 부가가치유발액 비중이 2012년 49.1%를 기록, 2010년(49.9%) 및 2011년(49.3%)보다 감소했다. 이와 함께 소비의 취업유발인원의 비중도 54.4%로 나타나 2010년(55.3%) 및 2011년(54.7%)보다 축소됐다.

국산품 최종수요 10억원당 유발된 취업자수는 소비가 15.7명으로 가장 많고, 투자(13.3명), 수출(7.7명) 순이었다.

우리 경제구조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한 데 반해 서비스업은 상승했다. 국내 산출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1.0%에서 2012년 50.4%로 줄었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서비스업 비중은 38.9%에서 39.4%로 상승했다.

산업별 비중의 변화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2년 총 취업자수(2299만명, 전업환산 기준)의 산업별 취업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이 69.8%를 차지해 전년(69.3%)보다 상승했다. 제조업은 15.8%로 전년(16.2%)보다 하락했다.

이진영 기자 m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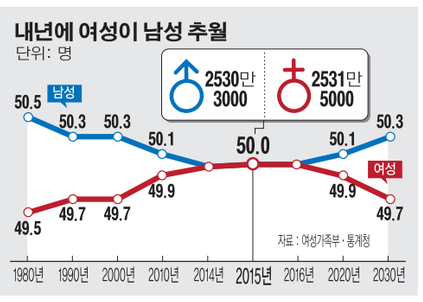
여성 경제참가율 50%…임금은 남성의 68%

여가부 '작년 여성의 삶' 조사
기혼 여성 5명 중 1명 경단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예전보다 많이 개선됐다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50%에 불과하고 월평균 임금도 남성의 68.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과 임신,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2%로 전년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73.2%)에 비해서는 23.0%포인트나 낮았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학을 졸업한 직후인 25~29세(71.8%)에 가장 높았다가 출산과 육아 시기인 30~34세 58.4%, 35~38세 55.5% 수준으로 떨어지다 그 이후부터 50대 초반까지 60%대를 유지했다.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사회경력이 단절된 여성 비율은 20.1%에 달했다.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29.2%)가 가장 많았고, 결혼(45.9%), 임신·출산(21.2%), 자녀교육(3.7%) 등이었다.



올해 총인구 5042만4000명 중 여성이 2520만4000명(50.0%)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도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내년에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2012년 기준 84.6년으로 남성(77.9년)보다 6.7년 길었다.

2013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9.6세로 남성(32.2세)에 비해 2.6세가 적었다. 여성의 이와 같은 초혼 연령은 1990년(24.8세)보다 4.8세가 늦어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생활 및 의식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미취학(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90%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여성들의 취업 시기에 대해서는 38%가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의 72.8%가 '육아부담'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편견·관행'(17.6%), '불평등한 근로여건'(11.3%)이 뒤를 이었다.

고용시장에서 받는 차별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여성들의 월평균 임금은 203만3000원으로 남성 임금의 68.1%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성 6만7323명, 남성은 2293명이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수출 4개월 만에 '마이너스'… 27개월째 경상흑자

경상수지가 27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5월 수출은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5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93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억4000만달러 축소됐으나 전달에 비해서 21억8000만달러 확대됐다.

이로써 경상수지 연속 흑자 기간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록한 1997년 1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의 26개월을 넘어섰다. 흑자 기간이 역대 두번째로 길다. 또 올 1~5월 누적 경상흑자는 315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은이 예상한 올해 경상흑자(약 680억달러) 전망치도 46.3%도 달성했다.

그러나 경상수지 가운데 상품 수출입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는 전달(106억5000만달러)보다 줄어든 93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4월 상품수지가 승용차, 철강제품 등의 수출 호조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5월에는 수출이 전년 동기와 전월 대비로 모두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진영 기자 mint@



농식품 수출 비중 1% 불과…"수출국·품목 다변화해야"

〈작년 전체 수출 5500억 달러 중 80억 달러〉



① 중국시장이 새 성장 동력
② 농수산물 수출강국으로
③ 농어업R&D 6차산업 육성
④ 젊은 농어업인 키워야
⑤ 산지조직체 육성하려면
⑥ 농업강국 네덜란드를 배우자
⑦ 전문가 제언

글로벌화의 흐름은 농업 분야도 피해갈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잇따라 미국·유럽연합(EU)·호주·캐나다 등과 같은 농업 선진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시장 개방을 추진해왔다. 특히 현재 협상 중인 중국과의 FTA가 성사되면 곡물·채소·과일류 등을 포함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본격적인 농산물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식품 수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지만 국내 수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기준, 농식품 수출은 연간 80억달러 선으로 전체 수출 약 5500억달러의 1% 남짓에 불과한 수준이다. 각 국가별 검역과 위생기준, 통관규정 등의 비관세장벽과 높은 물류비용,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질 높은 정보 부족, 환율변동위험, 수출 전문인력 부족 등 수출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적잖다.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 농수산물 수출 비중은 35%에 불과한 반면 대기업이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비중이 65%에 이를 정도로 높아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도 부족하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현 농협중앙회 수출팀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체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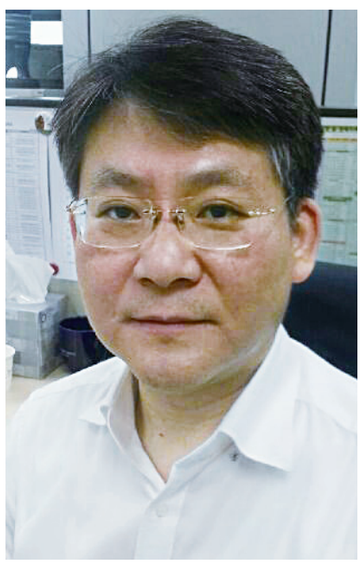
"값싼 수입농산물 '밀물'…국내산 비중 줄어
개별농가 해외진출 한계…브랜드 통합 필요
산지조직체 경쟁력 키워 품질 고급화해야"

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과일·채소 수출 중단 땐 농가소득 10% '뚝'
수출 손해분 보전·농산물 안정적 공급을
수출전용단지 지정 통한 농가 조직화 시급"

서현 농협중앙회 수출팀장



"기술발달로 과잉생산…가격변동폭 커져
수출·내수가격 편차 해소 우선 해결해야
일부 품목 의존도 높아…틈새시장 개척을"

◇수출 활성화…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진 지름길 = 김완배 교수는 농식품 수출이 농업경영의 주요한 전략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값싼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다보니 국내 생산 농산물이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FTA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선 해외의 고가·고품질을 겨냥한 시장 등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이 더 중요졌다는 얘기다.

박기환 연구위원은 농식품 수출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전 기대효과부터 언급했다. 농산물은 수입 물량 공급이 조금만 늘더라도 가격변동 폭이 심한데, 수출은 이러한 가격 등락의 완충 역할을 해 농가소득 지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연구소 자체 분석 결과 과일이나 채소의 수출이 중단될 경우 이들 품목의 국내가격이 6% 하락해 농가소득은 약 1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현 팀장은 "시장개방이 대세"라는 한 마디 말로 요약했다. 서 팀장은 "기술발달 등의 영향으로 최근 양파, 오이, 배추, 토마토 등이 과잉 생산돼 가격의 변동 폭이 굉장히 커졌다"면서 "수출을 활성화하면 공급 과다 품목의 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농산물 수출 농가나 업체 규모가 영세하다보니 환율과 국내외 가격차로 내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수출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김 교수는 "국내 농산물 수출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려면 규모화된 수출업체 육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미국의 감귤 시장을 공략한 스페인 농가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스페인 농가도 우리처럼 영세한 곳이 많았지만 수출 창구를 일원화하고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스페인 감귤농가의 경우 수출농가들이 미국의 대규모 수입업체에 위탁거래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마케팅과 홍보를 맡겨 미국 감귤시장의 60%를 점유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충분한 판촉 능력을 갖추지 못한 농가나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다 보니 '한국산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정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팀장은 수출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의 편차 해소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예컨대 파프리카의 경우 1~2월에는 kg당 8400원까지 오르고, 7월에는 k당 1000원까지 떨어지는데, 수출단가는 바이어와 계약시 고정되기 마련이다. 이에 그는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조직화해 자조금을 마련, 국내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익을 적립하고 하락할 때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도 "농가 입장에서는 수익을 따라가다보니 농산물 가격이 높을 때 계약을 파기하게 돼 해외 거래업체에게 신뢰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존 원예단지 등 생산물량을 모두 수출하는 '수출전용단지'로 전환한다든지, 손해분을 보전해주는 수입보장보험 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고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 수출에 있어 대표적인 어려움 중 하나가 환율 하락, 유가와 자재비 인상으로 인한 수출 물류비 상승이다. 서 팀장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항공 물류가 선호되지만 농식품의 경우 비용이 비싸고 품목도 제한돼 있다"면서 "정부에서 일부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경우 국내 항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6개월 정도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고는 있지만 체감하기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연구위원은 "주요 수출국에 공동 물류기지를 만들어 수출업체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물류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출 국가 늘리고 품목 다양화해야… 조직화·규모화도 필수 = 수출 국가 및 품목 다변화는 농산물 수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 서 팀장은 "일본에 대한 파프리카, 김치, 꽃 등 주요 수출품목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 엔저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농가소득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당장은 현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경쟁하기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틈새시장부터 차근차근 공략해 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파프리카가 생산되지 않은 기간에 파프리카를 수출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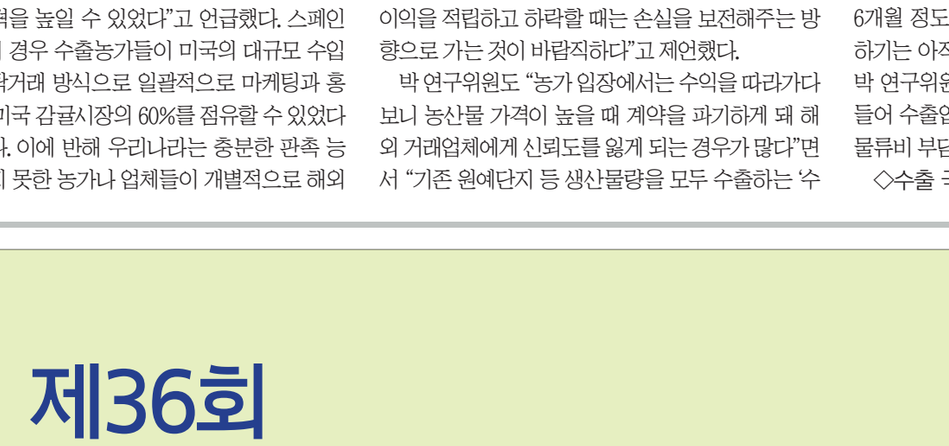
김 교수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선호되는 신고배 품종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수출 품목을 선정할 때는 현지인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맛과 형태, 색깔, 포장 디자인 등 수출 대상국 소비자들의 문화 DNA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본격적인 농수산물 개방화 시대를 맞아 수출농가의 조직화·규모화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통상협정에 대응해 농산물 품목별 산지 생산자들이 뭉친 '산지조직체'가 나서서 시장교섭력을 확보한다면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김 교수는 "영세한 국내 농가들이 수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질의 고급화, 균일화가 관건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경쟁력 있는 산지조직체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단일조직으로 수출에 나서야 교섭력도 높아지고, 국내 업체끼리 경쟁해서 단가가 하락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면서 "개별 농가보다는 수출업체를 먼저 조직화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수출 전용 단지를 지정해 생산물량을 전량 수출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농가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 정보 교환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민정·박상영 기자 puri21@

제36회
에너지절약작품
현상공모전

우리가 제안하고 만드는, 에너지아이콘!



공모부분
그림일기 디자인 UCC 웹툰
Energy Icon

참여대상 : 초 · 중 · 고 · 대학생 및 일반 국민
공모내용
• 에너지수급 위기를 주제로 하여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 가정, 학교, 사회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접수기한 : 2014. 7. 1(화) 09:00 ~ 9. 1(월) 17:00까지
접수방법
공모전 웹사이트(http://www.energycontest.or.kr) 온라인 접수
• 수상작에 한하여 실물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출품작 규격 : 웹사이트 공모요강 참조
결과발표 : 웹사이트 안내 및 개별 통보(10월중)
문의사항 : 공모전 운영사무국 02-334-9044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현상공모 시상 세부내역

부문	참가 대상	시상내역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가작	
그림일기	초등생	산업부 장관상 1편(150만원)	공단 이사장상 1편(100만원)	공단 이사장상 2편(50만원)	10편(10만원)	450만원
디자인	초·중·고 학생 (에코백/부채/손난로 제품 인쇄용 시각디자인)	교육부 장관상 1편(250만원)	공단 이사장상 1편(100만원)	공단 이사장상 2편(50만원)	10편(10만원)	1,150만원
	대학 및 일반 (인쇄용 시각디자인)	산업부 장관상 1편(300만원)	공단 이사장상 1편(100만원)	공단 이사장상 2편(50만원)	10편(10만원)	
UCC	초·중·고 학생	산업부 장관상 1편(250만원)	공단 이사장상 1편(100만원)	공단 이사장상 2편(50만원)	10편(10만원)	1,150만원
	대학 및 일반	산업부 장관상 1편(300만원)	공단 이사장상 1편(100만원)	공단 이사장상 2편(50만원)	10편(10만원)	
웹툰	초·중·고 /대학 및 일반	산업부 장관상 1편(300만원)	공단 이사장상 1편(100만원)	공단 이사장상 2편(50만원)	10편(10만원)	600만원
지도교사상	공단 이사장상 3명(50만원)					150만원
계						3,500만원

※작품 수 및 퀄리티(질), 수준에 따라 상금, 상격 가감 등 변동될 수 있음.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주관 : 에너지관리공단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후원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현대자동차그룹 동행어 사전

동행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P127

ㅊ

첫걸음

[First Step]

명 ❶ 목적지를 향하여 처음 내딛는 걸음 ❷ 어떤 일의 시작을 일컫는 말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도전하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산업의
내일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미래인재를 키워나가는
현대자동차그룹 연구장학생

현대자동차그룹 연구장학생 11기 정영진 [25], 유승아 [22]

현대자동차그룹 연구장학생 제도는 매년 200여 명의 우수인재를 선발
전공별 특성화 교육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행으로 미래를 펼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철강, 건설을 중심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동행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HYUNDAI
MOTOR GROUP

KB 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징계 내달로 연기

금감원 "중징계 방침엔 변함없다"

제재심의 "소명 내용 예상 범위 안 벗어난 수준"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은 문책경고





임영록 KB금융 회장(왼쪽)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26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에 출석해 앞서 금융당국이 통보한 중징계 항목에 대해 3시간 동안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금융회사 임직원 200여 명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이 다음달 3일로 연기됐다.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30여명의 KB금융 임직원들이 직접 소명에 나서면서 여섯 시간 넘게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당초 밝힌 KB금융 경영진과 고객정보 유출 카드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금감원의 중징계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명 내용이 예상 범위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향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당초 계획대로 중징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됐던 안건 15건 가운데 6건만 심의·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열리는 제재심에 다시 상정해 재논의키로 했다. 제재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한데다가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들이 많아 상당수 안건은 논의 조차 되지 못했다.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카드 3사 등에 대한 제재 건은 이날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KB금융과 국민은행 제재 안건 가운데 주전산기 전환사업·카드분사 시 정보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국의 보고와 함께 진술자의 진술을 청취했다"며"추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해 진술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 충분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명을 한후 기자들과 만나"본인과 임직원이 가슴 아픈 처벌을 받아 거리에 나앉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행장은"소명 과정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니 계속 될 것"이라며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거액을 부당하게 대출한 효성캐피탈의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게 문책경고인 중징계를 확정했다.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 조현문 전 부사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올해 초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대한 제재는 논의 시간이 부족해 다음달로 연기됐다.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도 다른 심의에 밀려 다음달로 연기됐다. CJ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금융실명법 위반,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징계도 유보됐다.

안철우 기자 acw@

12월부터 금융거래 서류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쓴다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내달부터 신용조회 중지 가능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시행시기	주요내용
7월	개인정보 무단도용 피해시 30일간 조회 중지 요청
9월	30~50개 개인정보 수집 필수·선택으로 구분 최소화
12월	금융거래 서식에 주민번호 기재란 삭제
4분기중	카드가맹점 단말기 IC 전환. 2015년까지 교체 완료

7월부터 정보유출 피해 고객들은 신용조회 회사에 본인의 신용조회를 30일간 중지시킬 수 있다. 또 9월 부터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12월부터는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이행계획 점검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 회사에 자신의 신용조회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는'신용조회 중지요청'서비스가 다음달 부터 시행된다.

고객이 신용정보 조회를 중단해 달라고 하면 신용조회회사는 한달 가량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중지 기간 내에 고객이 신용조회 중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9월부터는 금융사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이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돼 필수사항만 동의해도 카드 발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12월부터는 주민번호가 과다하게 노출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삭제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대면 거래시 본인확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4분기 부터는 카드 가맹점 단말기의 IC 전환 작업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영세가맹점의 단말기(약 65만대) 전환을 위해 카드사에서 총 1000억원의 전환기금 조성방안을 마련한 금융당국은 오는 2015년 말까지 교체를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KB금융, LIG손보 매매계약 오늘 체결

경영권 지분인수 6000억 제시

LIG그룹과 KB금융지주가 27일 LIG손해보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LIG그룹은 LIG손보 지분 19.83%를 당초 계획대로 KB금융에 매각하기로 확정했다. 금융당국의 KB금융지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을 진행한다는 것이 LIG측의 설명이다.

KB금융은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지분인수 계약을 승인할 예정이다. KB금융은 LIG손보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 6000억원이 넘는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은 LIG손보 직원이 포함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명변경, 전산개발, 인수 후 조직안정, 영업력 강화방안 등의 주요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은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 절차만을 앞둔 상태다.

한편 LIG손보 노사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은 지난 19일 사측이 노조에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이달 30일 만료되지만 노조 측은 파업 등 최종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LIG손보 노조는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올해 임단협 경과를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사측의 적극적인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측은 LIG손보의 자율성이 KB금융의 관리 감독 아래에 놓일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LIG손보 인사팀 고위 관계자는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잘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kkk@

금감원·한은·예보, 공동검사 금융회사 수검 부담 줄인다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이 공동검사에 나설때는 통합 검사장을 운영한다. 중복 자료 요구를 최소화해 금융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제3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열고 3개 기관간 공동검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검사란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예보 또는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참여해 기관별 목적에 맞게 공동으로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그동안 공동검사는 기관별 자체 검사반 운영,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편중 검사, 검사결과 통보 지연 등으로 금융회사들에게 불편을 안겨줬다. 금융위는 공동검사의 비중이 큰 저축은행부터 금감원 예보간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하고 단일 공동검사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해 여신건전성 부문부터 기관간 업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과 한은의 검사장 통합 사용은 지난달 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개선사항은 7월부터 차례로 추진된다.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주기도'매년 실시'에서 '2년에 1회 이상 실시'로 조정해 저축은행의 수검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예보가 다음 달 중 이같은 내용의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따뜻한 금융' 행보 확대하는 서진원

〈신한은행장〉

'사회책임경영위' 위원장 맡고

전통시장 거점점포 늘리기로



최근 금융가에는 '금융'과 '따뜻한 사회'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화두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자신의 책 '새로운 금융시대'에서 금융을 이용해 더 좋은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부터 이 같은 움직임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진원〈사진〉 신한은행장이 따뜻한 금융 문화 확산을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서 행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금융 고충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따뜻한 금융 서비스를 펼쳐달라"고 입버릇처럼 말할 정도라고 한다.

서 행장은 지난해 2월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서민금융 지원을 진두지휘했다. 그 결과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 금융권 최다 지원 △SHB 가계부채 힐링프로그램 등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 지원 △은행권 최초 서민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 개설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서 행장은 서민고객들과 금융소외계층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기존에 운영하던 3개의 서민 거점점포를 지방 중소도시 전통시장과 서민종합지원센터 인근 등 전국 17개 시도지역 2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민지 기자 kimmj@



더존 Good,Better,Best IT그룹 DUZON

산업군별 대표기업도 다양한 강소기업도

ERP는 역시, 더존 ERP

자체 데이터 센터 보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체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 D-클라우드 센터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모바일, 보안시스템 등 최신 IT기술을 접목

단계별 ERP Line-up
확장형 ERP, 건설 ERP, 비영리법인용 ERP 등 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단계별 Line-up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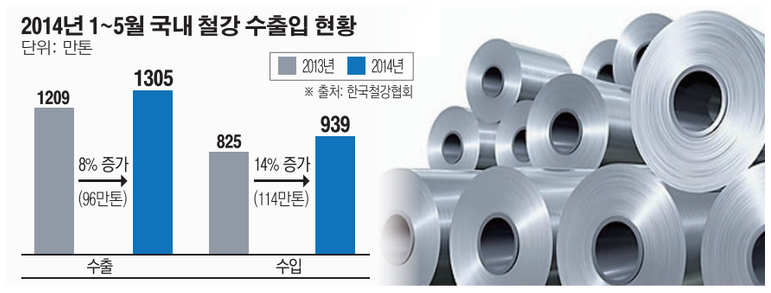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IFRS 연결·개별 솔루션, XBRL 솔루션, FTA-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보유

완벽한 통합 시스템
22년 ERP업력으로 산업군별 표준 프로세스, 특화서비스 보유 및 자체 확장솔루션(그룹웨어, MES, POP 등)을 통한 완벽한 통합시스템 구현

Blue Heart 더존 기업을 움직이는 푸른심장 | www.duzon.co.kr | 전국 통합 상담 1688-5000

중국산 저가공세에 힘 못쓰는 철강업계

열연 1498만톤·H형강 358만톤
저가 앞세워 수입 철강재 58% 점유
국내업계 제품 차별화불구 고전
무역위, 반덤핑 조사 내달 결정



국내 철강 수입이 지난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하며 수출 증가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국내에 대거 유입된 것이 원인이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올 1~5월 철강재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한 939만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철강재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약 8%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판재 및 봉형강 수입이 크게 늘어나며 철강재 수입 증가분은 114만톤으로 수출 증가분 96만톤을 추월했다.

철강재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자국 내 철강 수요가 둔화되면서 한국으로 철강재 수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중국의 철강재 순수출은 지난달 685만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중국산 철강재 수입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547만톤을 기록하며 국내 수입 철강재의 58%를 차지했다. 중국산 철강재는 지난해 51%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 철근 수입량이 224만톤으로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열연은 1498만톤으로 65%, H형강은 358만톤으로 22% 각각 증가했다.

올 하반기에도 중국철강업체의 한국향 수출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초 중국의 일일 평균 조강생산량은 183만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 철강업체의 조강 생산 수준은 여전히 높다.

최근에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H형강을 자국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20% 이상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 덤핑수출을 하고 있다. 2조원 규모의 국내 H형강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에 이른다.

중국의 저가 공세를 더이상 견디지 못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최근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장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 무역위는 현재 조사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달 말까지 반덤핑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국내 철강업체들이 품질 등으로 중국산 철강재와의 차별화에 나섰지만, 중국 철강업체들이 지나친 저가 수출을 하고 있어 국내 철강업계가 고전하고 있다"며 "중국의 철강 밀어내기가 계속되면서 하반기에도 중국산 철강 유입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1등 경품 '10억'… 통크네

롯데백화점, 여름 세일 이벤트
구매액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



롯데백화점은 27일부터 31일간 여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이 경품 최고가 신기록을 새로 썼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1등 10억원, 총 13억4000만원을 상품권으로 내건 것.

27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되는 여름 정기세일 1등 경품을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10억원 보장'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세일 기간 동안 내점 고객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추첨은 다음달 6일 본점에서 진행된다.

롯데백화점은 당초 백화점 방문 고객을 추첨해 1등 1명에게 구매금액 1000배, 최대 10억원을 경품으로 주기로 했다. 2등(2명)과 3등(5명)에게는 각각 1억원, 1000만원 한도로 쇼핑금액 100배, 10배를 돌려주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1등에 당첨된 고객은 세일 기간 중 100만원 이상 금액을 구매했을 경우 10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매금액이 없다면 100만원만 받게 된다. 2등과 3등 역시 구매금액이 적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롯데백화점이 지급해야 할 경품 액수가 최대 13억50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행사 내용에 문의가 늘자 롯데백화점은 결국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1등(1명)에게 10억원, 2등(2명)에게 각 1억원, 3등(5명) 각 1000만원, 4등(100명)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행사 내용을 바꿨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여름 세일 경품행사 내용이 공개된 후 지점마다 참여 방법 등을 묻는 고객 문의가 쏟아지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며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리자는 취지로 경품을 내건 만큼, 총 13억5000만원 경품을 통 크게 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롯데백화점이 수억원대 경품을 내건 것은 2009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여파로 내수가 바닥을 친 뒤 5년 만이다. 당시 롯데백화점은 분양가 5억8000만원 아파트, 3억5000만원 상당 우주여행상품을 경품으로 내걸어 화제가 됐다.

이다람 기자 zing@

13년 장기집권 박세준 사장 교체설 '솔솔'

〈한국암웨이〉

호언장담 '1조 매출' 달성 못해
올 8월 계약만료… 연임 불투명
후임 대표로 김장환 부사장 물망



국내 최대 다단계 업체 한국암웨이의 대표이사가 13년 만에 교체될 지 주목된다.

27일 다단계 업계에 따르면 2002년 취임해 13년 동안 장기집권하고 있는 한국암웨이 박세준〈사진〉 사장이 오는 8월 계약만료와 함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김장환 영업총괄 부사장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9월 인사담당 전무로 승진한 후 지 5개월만인 올 2월에 부사장 자리를 꿰찼다. 암웨이 안팎에서는 김 부사장이 10개월만에 초고속으로 부사장 자리까지 오른 것을 놓고 박 대표가 사실상 대표이사 자리를 김 부사장에게 넘기는 절차로 해석하고 있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의 인연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한국암웨이 입사한 김 부사장은 근거리에서 박 사장을 보좌했고, 2003년 박 사장이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김 부사장은 그곳으로 아예 자리를 옮겨 그의 옆을 지켰다. 이후 2010년까지 조합에서 전무이사 등을 역임하며 조합 운영의 실세로 활약했다. 김 부사장은 이후 2010년 한국암웨이 상무로 다시 돌아와 박 대표와의 인연을 이어왔다.

암웨이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다단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무와 인사 등을 고루 거치며 회사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김 부사장이 8년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요직인 영업총괄 업무를 맡게된건 대표이사 수업을 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교체설이 불거지는 건 2011년 부터 박 사장이 호언장담했던 '1조 매출'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탓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한국암웨이이의 연매출은 9880억원이다. 2011년과 2012년은 각각 9135억원, 9347억원이다.

대표이사 교체와 관련 한국암웨이 관계자는 "올 8월까지가 계약기간인 건 맞지만 교체될지, 연임될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LG이노텍이 신성장동력으로 띄운

'차량용 전장부품' 본궤도

멕시코 공장 올 8월 양산 시작
차량용 모터 연 760만대 생산
지난해말 기준 매출 17% 차지
전장부품 사업부 주력사업으로

LG이노텍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차량용 전장(전기·전자장치)부품'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10여년간 연구개발을 지속하며 전장부품 사업 범위를 점차 확대해 온 LG이노텍은 멕시코에 해외 첫 차량 전장부품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전장부품 회사로서의 변신을 시작했다.

LG이노텍은 26일(현지시간) 멕시코 중부 께레따로주 산 후안 델 리오시에 차량 전장부품 공장을 설립을 완료했다. 이날 이웅범 LG이노텍 사장이 적극적 투자와 생산 경쟁력 확보를 통해 멕시코 공장을 세계 핵심 생산기지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LG이노텍의 전장부품 사업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하는 멕시코 공장의 2016년 차량용 모터 생산능력은 연간 76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LG이노텍의 주력 사업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모듈 등을 만드는 광학솔루션 사업이다. 광학솔루션 사업은 LG이노텍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주수익원이다.

하지만 차량용 부품사업의 성장성을 내다본 LG이노텍은 지난해 1월 기존 AM(차량부품·모터)사업부와 DN(디스플레이·네트워크)사업부를 통합해 전장부품 사업부를 신설하고, 자동차 부품사업 강화에 주력했다.

올 초에는 전장부품 사업부에 자동차 부품 관련 마케팅·품질·생산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투입하며 조직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 지난 한 해 동안 LG이노텍이 전장부품 사업부 R&D에 투입한 비용은 LED 사업부(약 854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약 716억원이다. 이에 전장부품 사업부는 지난해 말 기준 LG이노텍 전체 매출의 약 17%를 차지하며, LG이노텍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김지영 기자 gutjy@

대한항공, 하늘을 나는 호텔
아홉번째 'A380 항공기' 도입



인천-애틀랜타 주 3회 예정
2층 전체 프레스티지 클래스

대한항공이 오는 28일 '하늘을 나는 호텔'로 불리는 A380 아홉 번째 항공기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대한항공이 추가 도입한 아홉 번째 A380 항공기는 무선국 인가 및 보안검사 등 관련 절차를 마친 후 오는 7월 6일 미국 애틀랜타 노선에 첫 투입된다.

대한항공은 현재 인천-LA, 인천-뉴욕에 주 14회, 인천-파리 노선에 주 7회에 걸쳐 A380을 투입하고 있다. 내달부터 인천-애틀랜타 노선에 주 3회로 띄울 예정이다.

대한항공 A380의 전체 좌석 수는 407석으로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하며, 이코노미 좌석 수도 301석으로 전 세계 A380 운영 항공사 중 최대 좌석간 거리인 83.8~86.3cm(33~34인치)로 꾸몄다.

특히, 2층 전체는 94석의 프레스티지 클래스 전용 층으로 구성돼 180도로 누울 수 있는 좌석이 장착됐다. 1층 앞쪽에 위치한 12석 규모의 퍼스트클래스는 완벽한 프라이버시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독립형 명품 좌석 '코스모 스위트'와 퍼스트클래스 전용 바 등이 설치됐다.

또한, 대한항공 A380에는 기내 면세품 전시공간이 마련돼 직접 구경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1층 퍼스트클래스와 2층 프레스티지 클래스의 각각 맨 앞쪽에는 승객이 자유롭게 칵테일을 만들 수 있는 무인 바(Bar)가 운영된다. 2층 맨 뒤쪽에는 특별 교육을 받은 바텐더 승무원이 칵테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레스티얼 바' 및 라운지 공간이 마련돼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1년 6월 A380 1호기를 도입한 한 후 약 3년 만인 오는 7월 열 번째 항공기를 도입할 것이며, 이로써 A380 신형기 도입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대한항공에서 운영되는 A380 10대는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어 장거리 노선에서 안락함과 동시에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진에어,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중장거리 'B777 항공기' 도입



내년 장거리 국제노선 '도전'
올 하반기 4개 노선 신규 취항

진에어가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중장거리 항공기를 도입하고 취항 노선도 늘린다. 중단거리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외국 LCC의 취항이 늘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에어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형 항공기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항공기 도입 및 신규 노선 취항 계획을 밝혔다.

진에어가 도입을 결정한 항공기는 유럽과 미주 지역까지 운항이 가능한 'B777-200ER'이다. 진에어는 B777-200ER 항공기 도입을 위한 정부 인허가와 관련 내부 준비를 거쳐 1호기를 오는 12월 초 도입할 계획이다. 진에어의 B777-200ER는 총 393석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더불어 진에어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총 9대의 항공기를 추가 도입해 대규모 기단 확대에 나선다. 진에어는 현재 총 11대의 B737-800 항공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7월에 B737-800 1대, 12월에 B777-200ER 1대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B737-800 5대, B777-200ER 2대를 추가 도입해 내년 연말까지 총 20대의 기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진에어는 항공기 도입 확대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 4개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우선 최근 운수권을 배분 받은 제주-시안, 제주-취엔저우 노선에 오는 10월부터 각 주 2회씩 신규 취항할 계획이다. 이어 12월에는 인천-후쿠오카와 인천-코타키나발루 노선을 각각 주 7회씩 신규 취항해 연말까지 국제선 정기 노선을 총 16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B777-200ER를 통한 장거리 국제선은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2대가 동시 운영 가능한 내년 여름부터 투입하기로 했다. 장거리 노선 투입 이전까지 B777-200ER는 기존 운항 중인 홍콩과 괌 노선에 투입해 공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삼성 보안 솔루션 '녹스' 구글 안드로이드 속으로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안 솔루션 '녹스(KNOX)'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통합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삼성전자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구글 개발자대회(I/O)에서 녹스 기술을 안드로이드 OS에 흡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보인 차세대 안드로이드 OS는 스마트폰 내에 별도의 '컨테이너' 공간을 마련해 업무용 사용자와 정보기술(IT) 관리자들이 기업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삼성전자 B2B(기업고객) 개발팀장 이인종 전무는 "안드로이드 기기의 선두주자인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획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돼 기쁘다"며 "삼성전자는 급변하는 모바일 보안 환경과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엔지니어 담당인 히로시 로크하이머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가 기업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에 기여한 부분에 감사하며, 양사는 공동으로 안드로이드에 참여하는 모든 제조사들에게 기업 고객이 원하는 높은 보안 수준과 관리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초 삼성전자 보안 플랫폼 녹스를 탑재한 갤럭시 단말 5종은 미국 국방정보체계국 승인제품목록에 등재됐다. 당시 등재된 단말은 갤럭시S4, 갤럭시S4 액티브, 갤럭시 노트3, 갤럭시 노트 프로 12.2, 갤럭시 노트 10.1 2014에디션 등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홍문종 미방위원장 초청 IT산업현장 정책 좌담회

포털·게임·통신 등 IT산업 현장의 종사자들이 정부 정책 입안자와 각종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발전방향에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와 함께 27일 서울 여의대방로 이투데이 사옥에서 '대한민국 IT 산업현장 정책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는 홍문종 신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새누리당)을 초청해 창업·창조경제, 온라인 광고, 게임, 인터넷 콘텐츠, 무선 통신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과 파워블로거들이 IT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창업·창조경제 분야는 한국크라우드펀등기업협의회 고용기 의장, 온라인 광고 분야는 (사)한국온라인광고협회 신원수 상무가 대표로 참석한다. 또 게임 산업분야에서는 글로벌게임협동조합 강삼석 대표이사, 인터넷 컨텐츠 분야는 (사)한국블로그산업협회 장대규 회장, 무선통신 분야는 (사)알뜰통신사업자협회 김홍철 회장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인터넷 콘텐츠 육성 방안 △포털의 역할과 상생방안 △게임 산업의 활성화 △유무선통신산업 등 각 분야의 중소 IT 대표들이 느끼는 현장 고민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또 각 분야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 전달과 의견에 대한 홍문종 위원장 소견 발표, 파워블로거 개별 질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좌담회에는 네이버·다음 등에서 활동하는 파워블로거 50여명이 함께 참석해 홍 위원장과 IT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며, 실시간 중계한다.

이날 좌담회는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헌 기자 119@

"벤치마킹 통해 새로운 경영모델 찾을 것"

가업승계 DNA ② '대한볼트' 최종혁 상무

부친 최석규 대표로부터 경영수업… 의사결정권은 일임
설비투자·특허개발·인력보충으로 시장점유율 10% 목표



"어릴때부터 보고 자라온 볼트는 제 뚝심이고 자부심이죠."

최석규 대한볼트 대표(57)를 이어 가업승계를 위해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최종혁 상무이사(34)의 말이다.

최 상무는 가업승계를 위해 학창시절부터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왔다. 최 상무는 "학교 다닐 때는 방학마다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배웠고,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는 판매 대리점에 들어가 업무에 대해 익혔다"며 "어릴 때부터 볼트를 보고 자라다보니 자연스럽게 볼트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대한볼트의 가업승계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창업자인 최 대표가 아직 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회사의 의사결정권 대부분은 최 상무에게 일임했다. 최 상무는 "경영에 대해 대부분 결정하는 편이지만 회사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장님께 보고한 뒤 의견을 나눈다"며 경영에 깊게 참여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술을 습득하고 본인만의 경영방침 등을 도입해 안정적으로 승계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최 상무는 "아직 전반적인 승계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하며 한 단계씩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사장님이 계시니까 상무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 상무의 부친인 최 대표는 18세인 1975년부터 볼트 생산에만 전념해온 볼트 업계 베테랑이다. 대구에 위치한 대한금속에서 12년간 일을 배운 뒤 30세인 1987년 대한볼트를 경북 경산군에 설립했고, 27년간 장인정신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최 상무는 가업승계에 대해 자연스러운 다짐을 가졌다고 한다. 그는 "300원짜리 볼트 아끼려고 저렴한 제품 사용하다가 큰 사고가 일어나는 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저렴하고 품질 낮은 수입품보다 국산 육각렌치 볼트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 목표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시스템이나 생산 관련해서 다른 업체들을 계속 연구해 우리에게 적합한 경영 모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상무는 제품 개발과 고품질로 업체 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볼트의 매출액은 135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목표는 160억원을 바라보고 있다. 현재 직원은 41명이며 앞으로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인원을 더 늘려나갈 예정이다.

그는 "아버지가 일궈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설비투자·특허개발·전문인력 보충·경영개선 등으로 최적의 산업용 볼트를 만들 것"이라며 "시장점유율 10%, 매출증가율 50% 이상을 달성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500억까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확대 정부에 요청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500억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주장했다. 현재 30억원에 불과한 과세특례 한도를 늘려 모든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사후 상속 과정에서 500억원까지 세금 면제해주는 가업상속 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500억원이라는 한도는 1억~500억원 사이라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생전에 상속자에게 과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김 회장은 "가업승계는 돈 많은 이들이 상속세를 깎아 달라고 하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며 "상속인이 즉각 현금화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를 내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사망 전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자가 갑자기 사망할 시 상속인에게 지분매입 등의 문제 요소가 생길 수 있어서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최고경영자(CEO) 의존도가 높아 사후 승계보다 계획적인 사전 승계가 더 중요하다"며 "1세대 경영인이 사망 전에 후대가 가업승계해도 사후 승계와 동일하게 과세특례를 적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잠금화면 내 취향대로 SKT '커버앤' 앱 출시

SK텔레콤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와 잠금 화면 이미지를 고객 취향대로 설정할 수 있는 잠금 화면 서비스 '커버앤(Cover&)' 앱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커버앤은 화면 가운데를 2번 두드리면 잠금 화면이 위아래로 열리면서 고객이 지정한 아이콘들을 보여주는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한다. 고객은 잠금 상태에서도 최대 4개의 즐겨 찾는 아이콘을 지정해 별도 잠금 해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연휴에 영업일수 감소·'리베이트 투아웃제' 대비 영업 위축…

제약사 2분기 실적 부진 불가피

제약사들의 2분기 실적이 기대와는 달리 부진할 전망이다. 5월과 6월 연휴가 많은 관계로 영업일수가 감소했고, 다음달 시행 예정인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비한 영업력 위축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 등 증권사들은 제약업계의 2분기 실적이 시장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측했다. 매출 1위, 2위 업체인 유한양행과 녹십자를 제외한 주요 상위 업체들의 성장은 5% 미만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곳으로 녹십자가 꼽혔다. 녹십자는 백신 수출에 힘입어 2분기에 2365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15.5%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유한양행의 매출은 259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7% 성장할 전망이다.

반면,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종근당은 3.6%, 한미약품은 4.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또 이익률 개선도 미미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높은 마진을 내는 약의 매출 비중 증가세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제약사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사들의 이같은 매출 둔화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와 특허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제네릭(복제약) 시판을 금지하는 '특허허가연계제도' 등 정책 리스크가 가장 큰 악재로 꼽혔다.

박성제 기자 psj@

20년 협력 탑엔지니어링과 손잡고 GCS 국산화시대 열어

〈글라스 커팅 시스템〉

협업이 성장이다 7〈끝〉

LG디스플레이

공정기술 노하우 전수·결제 우대
장비 개발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

리스크 최소화… '경영닥터제' 도입
경영성과 개선 자문프로그램 운영

부품 협력사 작년말 기준 323곳
상호 신뢰 기반 동반성장 지원 확대



LG디스플레이가 지난 2월 17일 곤지암 리조트에서 협력사들과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왼쪽부터 일본 도쿄일렉트론 와시노 겐지 전무, 이그잭스 조근호 대표, LG디스플레이 한상범 CEO, 케이씨텍 고석태 대표, 탑엔지니어링 김원남 대표.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열린 소통' '능동적 협업' '변화와 도약'. LG디스플레이가 동반성장 정책으로 추구하는 세 가지의 핵심가치다. LG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속해 있는 협력사의 사업 가치를 창출하고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 LG디스플레이가 발표한 '2013 LG디스플레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며 지난해 기준 LG디스플레이의 부품 협력사 수는 323개다. 부품 협력사 수는 2011년 294개, 2012년 310개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업 활동을 진행하며 상생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임직원들과 신기술 장비 공모제도에 참여한 협력사 선익시스템 임직원들이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성공 노하우 공유… 물고기 잡는 법부터 = LG디스플레이는 협력회사와 성공 사례,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에서 출발한 경영철학이다.

방법론과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지난 2006년 당시 LCD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협력사들의 도움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던 경험에서 비롯됐다. 2007년 7월에 업계 최초로 상생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LG디스플레이와 20년째 협력하고 있는 '탑엔지니어링'의 사례도 이 같은 경영 방침의 결과 중 하나다. LCD 장비업체인 탑엔지니어링은 지난해 5월 발명의 날을 맞아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글라스 커팅 시스템(GCS, LCD 기판유리 절단 장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LG디스플레이는 탑엔지니어링이 GCS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탑엔지니어링에 공정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자금 결제 때도 우대 혜택을 제공, 안심하고 장비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탑엔지니어링과 LG디스플레이 엔지니어들이 GCS 장비 국산화를 위한 프로젝트팀을 꾸려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장비 검증작업을 함께 하기도 했다.

이에 연장선으로 LG디스플레이는 엔지니어로 구성된 상생조직을 중심으로 구매, 생산기술, 모듈 등 관련 전문가 그룹과 협력사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자사가 가지고 있는 성공 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LG디스플레이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자금지원, 경영 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 등의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위험 최소화가 관건… 경영닥터 제도로 문제점 파악 = LG디스플레이의 협업 키워드 중 하나는 '리스크 감소'다.

아무리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해도, 위험에 한 번 노출되면 다시 회생하기까지 더 많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동반성장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경영닥터제'를 운영 중이다.

경영닥터제란 협력사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해 경영성과 및 개선 등에 대해 전경련 경영자문단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경영닥터제는 '경영닥터제 발대식(모기업+협력중소기업+경영자문단)→중간점검(경영닥터제 추진경과 중간점검, 미흡·취약부분에 대한 보완계획 수립·추천)→결과 발표회(각 기업별 추진성과 발표를 공유)' 순으로 이어진다.

이밖에 LG디스플레이는 앞으로의 시장선도를 위해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시장선도를 위한 협력사 도전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별화 제품 경쟁력 확보 △최적 SCM(공급망 관리) 구축 △신기술 경쟁력 강화 △오픈 커뮤니케이션 실현 등을 운영 중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협력사가 원할땐 언제나… '소통 채널'로 통한다

올해 2월 '동반성장포털' 오픈
자금·기술지원 신청 즉시 해결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와의 소통을 통해 진정한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 2월 '동반성장포털'을 오픈해 협력사와의 실시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가 하면, '동반성장 소통데이'와 '동반성장 교류회' 등 상호 교류의 장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마련해 협력사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동반성장 정책, 동반성장 프로그램, 환경·안전, 트윈스·베스트(Twins·BEST), 커뮤니케이션 등 다섯 개 코너로 구성된 동반성장포털은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 간 원활한 소통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동반성장 프로그램 코너는 △자금 △기술 △교육 △경영 등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소개돼 있어 협력사들은 필요한 지원 부분을 바로 확인하고 언제든 문의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프로그램 담당자를 찾아 지원 방안을 확인하고 기다리는 등의 시간낭비 없이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안의 중요성이 커진 최근의 추세를 감안, 협력사 보안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다음달 9~10일 이틀에 걸쳐 협력사의 보안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 정철동 부사장은 "동반성장포털을 통해 협력사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이고, 즉각 반응해 현장에 꼭 맞는 상생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LG디스플레이 경기도 파주공장에서 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정책을 설명하고, 협력사의 의견을 경청하는 동반성장 소통 데이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들에게 금융, 기술, 인력, 교육, 경영지원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활용과 참여를 당부했다.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와의 소통을 통해 진정한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동반성장포털'을 오픈해 협력사와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LG디스플레이의 '동반성장포털' 사이트.

아울러 동반성장과 상생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협력사들의 이해를 돕고,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개선 아이디어 등을 거리낌 없이 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2차 협력사 대표 및 실무자들은 LG디스플레이에 바라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소통의 폭을 넓혔다.

김지영 기자 gutjy@



이투데이 교육센터 대관안내

대관 문의
대관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임대 가능여부 확인
전략사업실: 02-799-2683

대관 신청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 송부
FAX: 02-784-2666

시설 현황
스크린 | 프로젝터 | 노트북 | 유선 Mic 2ea | Console | Speaker
WiFi 가능 | 현수막 부착 가능

위치 안내
대방역 도보 1분
샛강역 도보 3분
여의도역 도보 10분



'이투데이 | 교육센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이투데이빌딩 | TEL.02)799-2600 | FAX.02)784-1003 | www.etoday.co.kr

‘능력 중심 사회’ 창조인재 육성 메카로

‘울산시대’ 연 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울산 신청사에서 일학습병행제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은 앞서 지난 11일 울산시 중구 종가로 우정혁신도시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지방·산업현장 중심, New Start 원년’이라는 슬로건으로 미래 100년을 향한 힘찬 새출발을 선언했다.

1982년 설립된 산업인력공단은 평생직업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고용 지원, 숙련기술 장려 등 다양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공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학습병행제 시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 및 활용 확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글로벌 인재양성 K-MOVE 해외취업 지원, 스펙 초월 멘토스쿨,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등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란 ‘한국형 도제제도’로 기업이 주도해 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교재에 따라 현장교사가 학습근로자를 학교 대신 기업현장에서 가르치고 이를 국가와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1일 울산시 중구 종가로 우정혁신도시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지방·산업현장 중심, New Start 원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 100년을 향한 힘찬 새출발을 선언했다. 사진은 개청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

‘일학습병행제’ 826개 기업 근로자들에 최고 기술 전수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 연말까지 830여개 완료 목표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현황 ※ 출처: 고용노동부(중복 포함)

명장기업(3)	㈜비앤에스에프앤비 안스베이커리 만안자동차
월드클래스 300기업(1)	㈜젬배스앤카엘
으뜸기업(3)	㈜한국몰드 진성정밀 ㈜명정보기술
ISO 인증기업(5)	유일고무(주) ㈜메인테크 씨와이오토텍㈜ 아이나노텍㈜ (주)울트라
벤처기업(17)	주식회사 디피코 ㈜대웅에스앤티 ㈜폴리텍 ㈜에스에이테크 ㈜기산이엔지 지성큐앤텍 셋방정밀 두원 블루코어㈜ 지엠펌프 아이나노텍㈜ 남선산업㈜ 에프앤엔㈜ ㈜이노소프트 (주)칠삼이일디자인 (주)엘이디에스티 (주)대광라이텍
혁신기업(20)	한미설비㈜ ㈜키소 ㈜에나인더스트리 ㈜동강금속 성원기업 ㈜디유티코리아 삼정오토모티브(주) 두원 ㈜가민정보시스템 나노인텍(주) (주)웅비기계 선광엘티아이㈜ ㈜텔미전자 ㈜토마토시스템 남선산업㈜ 앤시정보기술(주) (주)리퓨터 ㈜이노소프트 ㈜닷네임코리아 퓨처로봇
강소기업(33)	고려기초연구소 ㈜동화엔텍 ㈜수한 ㈜한국몰드 ㈜쎄크 ㈜럭키산업 영도산업㈜ ㈜젬배스앤카엘 ㈜폴리텍 ㈜신원기술 (주)에스엠아이 한미설비㈜ ㈜동강금속 ㈜아이랙스 진성정밀 지성큐앤텍 (주)아스텍 두원 ㈜무진서비스 나노인텍(주) 동서하이텍㈜ ㈜우리디씨아이 옵토팩 주식회사 상신전자㈜ ㈜신일 선광엘티아이㈜ 케이원정보통신 ㈜명정보기술 ㈜마크애니 남선산업㈜ ㈜닷네임코리아 ㈜강남 (주)뉴모텍

춘 학습근로자들을 육성하고 있다.

실제로 금형분야의 기술기업인 건우정공은 고졸 청년 대상으로 자체 훈련시설에서의 이론교육과 기업 내 숙련기술자를 활용한 현장훈련을 실시해 1년간 4명의 핵심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대한민국명장’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김영모 과자점은 현장훈련과 사내의 명장아카데미를 통해 32명의 학습근로자들에게 2년 동안 최고의 기술을 전수해 준다.

한편 일학습병행제의 시행 기반 구축에 있어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개발한 NCS의 활용도 중요하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254개 표준을 신규 개발했으며, 올해는 288개 직무의 신규 개발과 이전까지 개발된 269개 직무의 보완을 통해 830여개에 이르는 직무분야의 표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NCS가 구축되면 직업교육훈련의 품질 혁신과 함께 기존의 검정형자격 외에 과정평가형자격, 현장경력인정형자격 등 자격제도의 개편도 추진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렇게 변화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취득한다면 산업현장에 배출되는 인력이 입직 후 별도의 재교육이나 비용 투입 없이 곧바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가 육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NCS와 일학습병행제의 정착을 통해 능력중심 사회를 지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공단은 지역과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 역할은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위원회에서는 지역 인력 수요조사,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한다.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은 지방화, 분권화, 수요자 중심의 세 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먼저 지방화는 각 지역에 맞게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방에 위임하는 것이고, 분권화는 인력 수급과 관련된 지역의 대표성 있는 기관들이 참여해 논의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은 기존의 교육훈련기관 중심의 인력양성을 인력 수요자인 지역 산업계 중심으로 개편,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바꿔 나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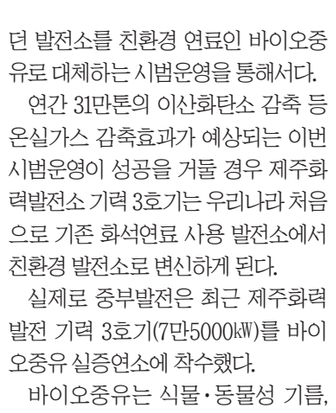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주 단체,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인력수급 관련기관 등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한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 14개 지역에 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에 새 둥지를 튼 한국산업인력공단 송영중 이사장은 “대한민국 제1의 산업도시 울산은 일학습병행제, NCS 등 산업현장 중심 국정과제의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최적지”라며 “학벌보다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과업을 울산과 함께 선도해 공단을 창조인재 육성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친환경 전력’ 확보 나선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

저탄소 녹색정책 밑거름 신재생에너지 공급 박차

영양풍력발전, 연간 335GWh 무공해 전력 생산
제주화력발전, 연료 벙커C유 바이오중유로 대체



최평락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친환경 전력 확보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평락 사장은 11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포시시아홀에서 GS이앤알과 ‘영양풍력발전사업 1·2단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정책에 부응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 무화제도(RPS)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GS이앤알은 1단계 사업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중부발전에 판매하고, 중부발전은 2단계 사업 참여와 탄소배출권 구입에 우선협상권을 갖게 된다. 또 GS이앤알의 REC 판매수익 재원을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중부발전은 이에 대해 영양풍력발전단지는 GS이앤알이 경상북도 영양군에 개발한 150MW급 국내 최대 육상풍력단지로, 연간 335GWh의 무공해 전력을 생산해 9만5000여 가구에 전력도 공급하고, 연간 16만2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평락 사장의 구상에 따라 1단계 사업은 올해 5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9월 완료 예정이며, 3.3MW급 풍력발전기 18기 등 총 59.4MW의 설비용량을 갖추게 된다. 총 사업비 1665억원이 투자된다. 2단계 사업은 같은 기종 제품 27기 등 총 89.1MW의 설비용량으로,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 중이다.

특히 최평락 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1단계 준공 이후 2016년부터 연간 약 12만REC, 2단계 완료 후 추가로 연간 약 20만REC를 확보하는 등 연간 총 32만REC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는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를 통해 친환경 발전소로의 변신도 꾀하고 있다. 기존 벙커C유로 가동되던 발전소를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중유로 대체하는 시범운영을 통해서다.

연간 31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되는 이번 시범운영이 성공을 거둘 경우 제주화력발전소 기력 3호기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기존 화석연료 사용 발전소에서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하게 된다.

실제로 중부발전은 최근 제주화력발전 기력 3호기(7만5000㎾)를 바이오중유 실증연소에 착수했다.

바이오중유는 식물·동물성 기름, 미세조류 등 해양 바이오매스로부터 추출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의 개발면적, 인·허가 등에 따른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최평락 사장은 이번 실증사업에 대해 “그간 침체돼 있던 국내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추진 중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의무량의 20% 정도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 이 광고에 사용한 모든 서체는 KBIZ한마음체입니다



저작권 걱정 뚝!
중소기업 전용서체 무료배포

사용하는 문서프로그램의 서체에 이용 가능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위반하여 저작권 침해로 법적조치를 받는 중소기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KBIZ한마음체를 배포합니다.
저작권 고민 없이! 광고, 상표, 인쇄물, 현수막, 홈페이지 등에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BIZ한마음체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료배포하는 중소기업 전용서체
KBIZ한마음체 종류는? 고딕체, 명조체
KBIZ한마음체 사용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방문 〉 메인화면의 ‘무료서체 배너’ 클릭 〉 다운로드 〉 설치 후 사용
KBIZ한마음체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093~4 *자세한 사용방법 및 라이선스는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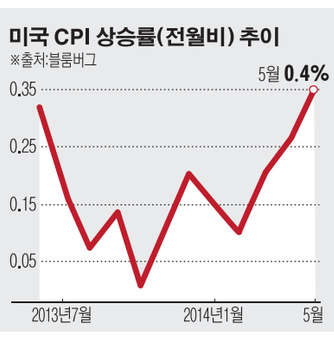
KBIZ 중소기업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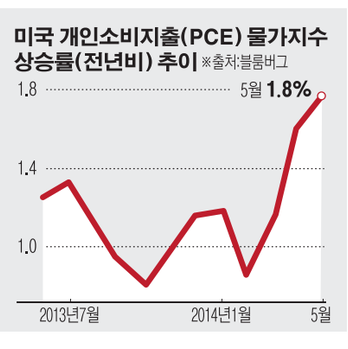
목소리 커진 매파… 美 조기 금리인상?

올해 하반기 성장률 2.4%
내년 물가상승률 2% 예상
연준 내 경기낙관론 우세

블라드 총재 "내년 1분기"
플로서 총재 "올해 3분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내부에서 매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 회복이 가속화하면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해 연준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오는 2015년 1분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블라드 총재는 26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물가가 연준의 목표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라드 총재는 "2015년에 물가 상승률은 (연준 목표인) 연 2%를 넘을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은 전환점을 돌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전일 공개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9% 위축한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는 매우 좋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업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경제에 거품은 없지만 중앙은행은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전망은 더욱 공격적이다. 그는 오는 3분기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로서 총재는 지난 24일 뉴욕 이코노믹클럽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 경제의 성장이 예상보다 가속화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역시 연준의 목표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플로서 총재는 올해 하반기 성장률은 2.4%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가계의 재무제표가 개선되고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변수들은 연준이 오는 3분기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플로서 총재의 분석이다.

경제지표 역시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0.2% 상승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PCE 물가지수는 1.8% 올랐다. 이는 2012년 말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노동부가 앞서 17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전월에 비해 0.4% 상승하며 전망치인 0.2%를 웃돌았을 뿐 아니라 1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월가는 연준이 올해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내년 중순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글로벌 리포트

알리바바, 나스닥 대신 뉴욕거래소로

수수료·거래 매출 등 이점
회사 주식명은 'BABA'
200억달러 이상 조달 전망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를 앞두고 기업공개(IPO) 거래소로 나스닥(NASDAQ) 대신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택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성명을 내고 NYSE에서 기업상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 이후 회사의 티커(주식명)는 'BABA'로 정했다. 알리바바는 그동안 NYSE가 굵직한 IPO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알리바바는 지난 3월 홍콩 대신 미국을 증시 데뷔무대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증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그간 NYSE와 나스닥은 알리바바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그도 그럴 것이 통상 거대 기업의 증시 상장을 유치하게 되면 IPO 관련 막대한 일회성 수수료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거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추정되는 알리바바의 회사가치는 1500~2000억 달러(약 152~203조원)이며 상장 규모는 미국증시 역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알리바바가 IPO를 통해 2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YSE는 알리바바 유치에 성공하면서 2년 전 나스닥에 페이스북을 뺏긴 자존심을 회복하게 됐다. NYSE는 지난해 트위터 유치 등으로 19년 만에 나스닥을 제치고 더 많은 기술업체 IPO를 확보하게 됐다.

반면 나스닥은 페이스북 이후 이렇다 할 기술업체 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지난해 8월 전산장애 오류로 거래가 일시중단되는 일을 겪으면서 회사의 위상도 그만큼 추락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는 8월 8일에 상장할 가능성을 점쳤다. 중국에서 '8'은 부의 상징으로 통해 중국인들 사이에서 선호되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온라인 유통 강자인 알리바바는 미국의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와 아마존, 전자결제시스템 페이팔의 장점을 적절히 배합한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다. 최근 몇 년간 알리바바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포함해 금융부분에서도 존재감을 키우는 등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나이키, 회계 4분기 '깜짝 실적'

미국 1위 스포츠용품업체 나이키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이키는 지난 회계 4분기에 6억9800만 달러, 주당 78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순익은 6억6200만 달러, 주당 76센트였다. 같은 기간 매출은 67억 달러에서 74억3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월가는 나이키가 주당순익 75센트, 매출 73억4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나이키의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0.51% 상승한 뒤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2.6% 올랐다.

美 "대통령 '휴회 중 임명' 무효"

미국 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 휴회 기간에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휴회 중 임명' 제도가 헌법을 통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스티브 브레이어 대법관은 26일(현지시간)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이 회기 내 또는 회기와 회기 사이 일정 기간 휴회 시 고위 공직자의 공석을 채울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휴회로 볼 수 없는 기간에 이뤄진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을 임명할 때 '휴회 중 임명' 제도를 적용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판시는 대법관 9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휴회 중 임명' 제도는 의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 또는 판사의 인준을 지연할 때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이용해 상원 인준 절차를 생략하고 임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GM '쉐보레 크루즈' 판매 중단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가 에어백 결함 문제로 북미에서 최고 인기 모델인 '쉐보레 크루즈' 판매를 중단했다고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GM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 딜러들에게 2012~2014년형 쉐보레 크루즈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쉐보레 크루즈는 북미 지역에서 GM의 베스트셀러 모델로 지난달 하루 평균 1200대가 판매됐다. GM이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은 이 차에 장착된 일본 타카타의 에어백이 폭발할 경우 또 다른 리콜사태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타카타의 에어백은 펼쳐지지 않거나 충돌사고 없이도 갑자기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됐다.



불타는 마약 26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당국이 압수한 마약 120t을 태우고 있다. 이란 외 파키스탄에서도 100t에 달하는 마약을 불에 태우며 마약근절 의지를 다짐했다. 테헤란/AP연합뉴스

구글글라스, 몰카 등 사생활 침해 논란

주변인 허용없이 촬영 가능…"개인적 용도 한해서는 합법"

구글의 증강현실 안경인 구글글라스가 사생활을 침해할 것이라는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는 구글글라스가 데이터보호법에 저촉되는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고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사용자는 구글글라스를 착용하고 나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앤드류 패터슨 ICO 선임 기술책임자는 "구글글라스 사용자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패터슨 책임자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구글글라스 등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면 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구글글라스 사용자가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의미의 '글래스홀(Glasshole)'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중국서 뜨는 산업 ⑦ 요트산업

요트산업이 중국 레저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사치품시장연구기관 차이푸품질연구원이 발표한 '2014 중국요트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의 요트산업규모가 41억5000만 위안(약 6773억2150만원)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5년 내 15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요트산업이 중국 레저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제19회 상하이국제요트박람회 현장. 출처 제19회 상하이국제요트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부자들만의 수상 레포츠 중산층까지 대중화 바람

작년 시장규모 6773억원
최근 10만위안대 '소형' 인기
한척당 단가도 12% 떨어져
부유층은 해외브랜드 선호
대형·고급 공략이 진출유리

중국 소비자들은 요트를 부유층의 상징으로 여겨 지난해 200만 위안(약 3억원) 이상인 고급 요트 매출이 21억 위안으로 전체 판매액의 50.6%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소비자의 요트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져 중국 요트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최근 중국 인민망은 전했다.

보고서는 2013년 요트 수입단가가 전년대비 12% 떨어진 요트 한 척당 평균 6만5500달러를 기록했다며 고급 요트시장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개인형 소형 요트가 주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열린 제19회 중국 상하이 국제요트박람회에서 10만 위안 가격대의 소형요트가 소비자의 주목을 받는 등 과거와 다른 분위기를 형성했다.

요트제조업에서 중국은 후발주자로 대부분의 고급 요트는 수입에 의존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소형 및 비고급 요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국 요트제조업이 더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현재 요트 건조를 위주로 하는 조선소가 약 50개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80~90%의 요트는 해외로 수출돼 현재 중국은 세계 요트생산 6위 국가로 성장했다.

중국 요트산업의 폭풍적 발전 배경은 정부의 요트산업 지원 정책과 중국 부유층의 높은 소비력에 있다는 평가다. 중국 국가여유국에서 고급여행상품 육성과 여행장비제조업 발전을 계획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장려산업목록에 요트개발제조와 관련 산업을 추가했다.

또 국가해사국에서는 '요트임시이동보고제'·'요트 12개월 정기비자제도'등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요트 운항 불편 사안을 개선했다.

전문가들은 고급 요트시장에서는 해외브랜드가 우세이나 소형·비 고급 요트시장은 중국 내 브랜드가 장악할 것으로 보여 양극화 추세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중국 요트 구매층은 부유층으로 구성된 요트 동호회와 해안지역의 기업 및 중산층 이상의 개인 등 크게 두 분류로 나뉜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요트시장으로 진출을 원하는 해외기업은 중산층 소비자보다는 소비력이 높고 고급 요트를 원하는 중국 부유층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일 중산층도 공략하려면 중국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므로 가격정책·마케팅 등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IT하드웨어, 中에 밀리는 대만

저가에 고품질 제품 생산
레노버·ZTE 등 경쟁력 확보

중국의 부상이 대만 IT 하드웨어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중국이 빠르게 경쟁력을 갖추면서 대만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IT 하드웨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들 대만 IT 하드웨어 업체들은 중국시장에서 레노버와 ZTE 등 중국 토종 브랜드 등과의 치열한 경쟁에 부딪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만 업체만의 매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클레이스의 커크 양 애널리스트는 "홈그라운드라는 장점 외에도 중국 브랜드들은 저가에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매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여기에 중국 정부가 컴퓨터 서버와 통신 장비 부분에서 외국산 제품을 금지하고 자국 브랜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 업체들은 중국을 생산기지로 삼는 전략을 펼쳐왔으나 임금과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그런 이점도 줄어들었다.

최근 중국 업체는 대만이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베터리 카메라 렌즈 LED 등의 하청 생산 부분에서도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애플의 1차 하청업체 중 중국 기업의 수는 2011년 7개에서 지난해 12개로 늘어났다. 이들이 납품하는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아이폰 제조비용의 11%에 해당한다. 이는 2011년 7%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KT직원 甲질…황창규 "상생경영" 머쓱

〈KT회장〉

협력사 직원 2명 감금·폭행에 "고소할테면 해봐" 엄포

황 회장 경영철학과 정면으로 어긋나…내부 단속 '구멍'

'상생경영'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KT의 본사 직원이 협력회사 직원을 감금·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이후 강조해온 "협력사 상생, 갑을문화와 상하관계의 철저한 배제"라는 경영방침에 반하는 것으로 내부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27일 관련 업계와 KT 측에 따르면 지난 19일 KT 본사 직원 정모씨(그룹 컨설팅지원실 소속)는 KT렌터카의 협력사 직원 강모씨와 타사 직원 등 2명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다.

강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8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KT렌터카의 차량이 기름이 떨어져 운행을 못 하게 되자, KT렌터카 측에 긴급출동을 요청했다. 그러나 KT렌터카 측의 처리가 지연돼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민원을 제기했다.

다음 날 강씨와 삼성화재 직원 1명이 민원 해결을 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KT 본사를 방문하자, 정씨는 우선 강씨를 건물 내 창고에 잡그고 훈계했다. 특히 정씨는 강씨의 휴대폰 전원을 끄라고 지시한 후,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강씨의 양쪽 뺨을 3~4차례, 가슴을 2~3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30분가량 지나 삼성화재 직원도 창고로 들어오게 한 후, 역시 핸드폰을 끄게 하고 훈계했다고 한다.

정씨는 또 긴급출동을 요청받은 KT렌터카 콜센터 상담사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삼성화재 직원에게 통화를 하게 했으나, 상담사와 전화연결에 실패하자 이 직원에게도 욕설과 함께, 뺨을 가격하고 의자를 발로 차서 뒤로 넘어지게 했다.

이후 정씨는 이들에게 직장 상사와 수십 명의 동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정씨는 이들에게 "여기서 나가면 없었던 일로 하고 폭행 전치 기간이 나오면 하루 치 병원비를 주겠다"며 "경찰서에 선후배들 있으니 고소하려면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강씨는 진술서에 "협박과 함께 3만원을 던져줘 처음에는 돈 받는 것을 거부했으나 협박에 못 이겨 3만원과 정씨 명함을 받고 풀려났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이투데이 기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개인용이 아닌 회사에서 지급한 휴대폰으로는 그 어떤 공식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로경찰서는 강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현재 정확한 폭행 여부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정 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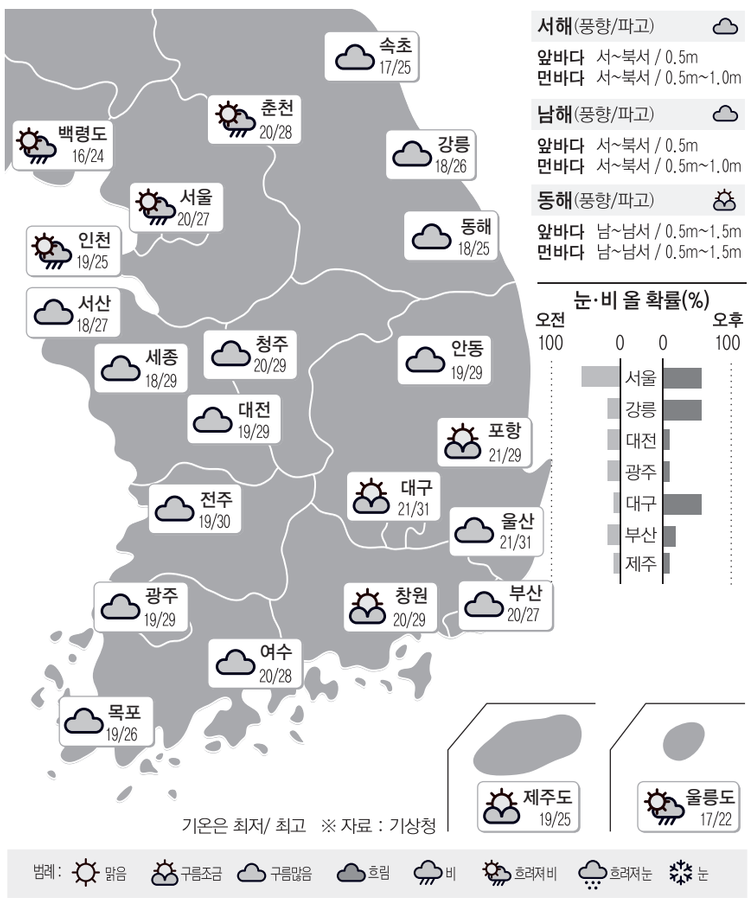
하유미 기자 jscs508@

내일의 날씨

6월 28일 ☼ 해뜸 05:13 해짐 19:58 ☽ 달뜸 06:02 달짐 20:21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다. 또 서울 · 경기도와 강원도영서는 아침에, 중부내륙과 경상남북도 일부에서 낮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충청남북도는 오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천둥 · 번개가 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0.5~2.0m로 일겠다.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KT에

과징금 7000만원·과태료 1500만원

피해자 민사소송 영향 끼칠 듯

가입자 981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85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이 결정됐다. 정부가 KT 홈페이지 해킹에 대해 KT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2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해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과 관련해 KT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제3자 제공 등으로만 제재했을 뿐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명령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KT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안수준을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전문해커에 의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방통위가 법률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KT에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추후 이어질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KT의 책임을 묻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96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모두 27억9600만원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한강 야외수영장 개장 뚝섬, 여의도, 잠실 등 한강의 7개 야외수영장이 27일 개장해 8월 24일까지 약 두 달간 운영된다. 27일 오전 광진구 자양동 뚝섬 수영장에서 안전 요원들이 파라솔을 점검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협상 사실상 타결

기본급 120만원·건당 성과급

오늘 오후 노조총회 수용할듯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사가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노사 실무교섭단이 의견일치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조 쪽이 요구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안을 보면 우선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임금 및 수당과 관련해 기본급은 월 120만원으로 하고, 수리 건수가 60건을 넘어갈 경우 경비를 제외하고 건당 2만5000원의 성과급을 지급기로 했다. 또한 설·추석 명절에는 재직자에 한해 각각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기로 했다. 폐업된 '삼성뉴텍', '광명해운대서비스' 센터 조합원은 가급적 2개월 이내에 신설, 또는 인근 회사에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노조 활동 보장 항목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 9000시간을 6명 이내에서 나눠 사용하고, 3명의 노조 임원에 대해 무급휴직 처리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보장하기로 했다. 노조 사무실은 1개소에 대해 사측이 보증금으로 초기 비용 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회사 측은 지회 정기총회 연 1회(4시간)와 지회 정기대의원대회 연 1회(4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키로 했다. 교섭위원 2인에 한해 교섭시간을 각각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7일 오후 1시에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협상 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대상그룹 특별세무조사 서울청 조사4국 투입해

국세청이 대상그룹을 대상으로 한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동대문구 대상그룹 본사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비자금 조성과 횡령, 또는 탈세 제보 등이 있는 경우에 주로 투입된다.

하지만 대상그룹은 이번 조사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대상그룹 관계자는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정부 '세월호 보상' 구상권 절차 돌입

유병언 재산 4031억 가압류 부동산·선박 등 제값 받을까

관련업황 악화…매각 힘들듯

전두환 환수 절차 때와 비슷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사람들을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구상권 청구 절차에 돌입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날지 여부는 미지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0일 유전 회장 등 책임자들을 상대로 4031억 5000만원 규모의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재원을 이들 재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해운업계와 침체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가압류된 재산들이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조선·해운업계의 경우 유동성 위기로 국내·외 해운업체들이 '잇따라'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매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1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117.4%, 2월은 66.6% 늘었지만, 3월 34.2%, 4월 16.6%로 증가세가 둔화되다 지난달에는 5개월 만에 -16.1%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사실 검찰이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850억원대 부동산의 경우 실제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수 차례에 걸쳐 유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정부가 가압류한 유 전 회장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고려할 때 각종 세금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상당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재산 보전 처분이 완료되면 각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별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정부는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인용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교회 신도 수 허위조작…수협, 부실대출 적발

신용등급 부풀려 평가… 금감원, 기관주의에 임직원 32명 징계

수협중앙회 직원들이 교회 신도 수까지 부풀려 거액을 대출해줬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거액의 외국환 거래에 대해 신고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도 드러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검사에서 수협 A지점이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150억원 규모의 교회 관련 부실 대출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수협의 교회 관련 대출은 신용등급이 1등급이고 여신심사합의체의 승인을 받은 채무자에 한해 신용등급별 최고한도(100억원)를 넘겨 대출할 수 있다. 신용등급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향하게 돼 있다.

그러나 수협 A지점은 2008년 9월 B교회에 예배당 신축을 위해 150억원을 추가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엉터리로 신용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부풀렸다.

A지점은 새 예배당이 설립되는 부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C신도시가 위치하고 신도 수 증가로 교회 부흥이 예상된다며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수협중앙회 본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신도 수 증가는 C신도시 입주예정 인구 10만명에 2005년 통계청 발표 기독교인 비중 18%를 곱해 C신도시 교인이 신규로 2만여명 유입될 것으로 막연히 추정한 것이다. 또한 신축된 교회가 기존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기존 교회의 신도 수와 평균 헌금액 및 증가율을 기준으로 교회 성장 가능성을 심사하는 등 채무상환 능력을 부풀려 평가했다.

수협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발견됐다. 2012년 11월 수협 D지점에서 고객 2명이 외국 거주자에게 11만 달러를 송금했다. 이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간의 증여에 관한 거래에 해당해 신고대상인데도 이 지점은 확인을 소홀히 했다. 2009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수협 2개 영업점에서 3개 기업이 4건(337만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는데 수협은 사전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협중앙회는 기관주의에 임직원 32명이 금융 당국에 징계를 받았다.

신태현 기자 holjjak@

CJ헬로비전 CRM센터 텔레마케터 모집

여성직장 재탐색

월급 118만원…인센티브 무제한

모집요강

모집직종	텔레마케터
직무내용	아웃바운드 상담
접수마감일	2014년 7월18일
고용형태	기간 정함 있는 근로계약 24개월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고졸이상
우대사항	인근거주자

인력공급업체 (주)에이치앤티아웃소싱 시스템이 CJ헬로비전 CRM센터 텔레마케터를 모집한다.

담당 업무는 기존 CJ헬로비전 고객 대상 아웃바운드 상담, 케이블TV·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상품전환 유도, 결합상품·미사용상품 안내 및 사용권유, 계약 만료대상자 재계약 진행 등이다.

월 기본급은 118만원이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수당이 지급된다. 인센티브 한도는 무제한이다.

근무지는 부산시 중구 중앙동6가 CJ대한통운빌딩이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이다. 복리후생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 경조휴가, 연차휴가, 건강검진 등이 제공된다.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면접을 거쳐 합격자가 결정된다. 문의 053-429-7766

유혜은 기자 eu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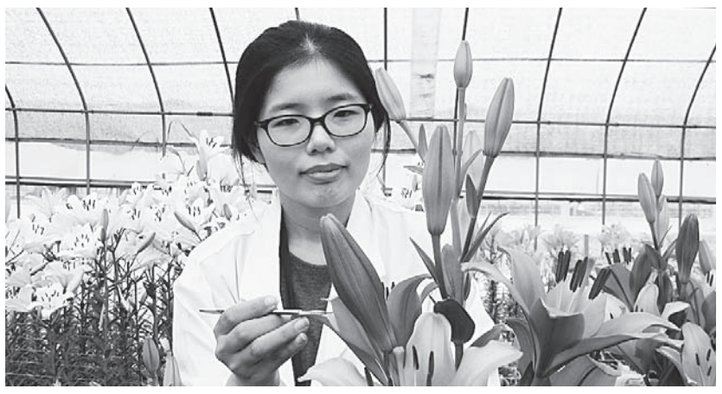
"국산 나리 품종 개발로 수출길 열어요"

〈백합의 우리나라 고유 이름〉

수출용 백합 구근 자급화 앞장선 강윤임 연구사

최근 '밀키웨이' 개발… 네덜란드 '오리엔탈' 대체 기대

시장 기호도 높은 화색·화형 백합 품종 보급해야



동서양의 아름다움을 지닌 백합은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도 절화(가지째 꺾은 꽃) 수출 1위 원예 작물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국산 종자가 없어 백합 구근(알뿌리)을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로열티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이 같은 비용 부담을 덜고자 농촌진흥청 화훼과 강윤임〈사진〉 연구사가 수입에 의존하던 백합 구근의 자급화 길을 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농진청 화훼과는 백합 품종을 보급하고자 1998년 나리 품종 육종을 시작한 이래로 모두 80개의 품종을 개발했다. '나리'는 백합의 우리나라 고유의 이름으로 고려시대부터 불려온 이름으로 순결을 지키려다 절명(絶命)한 처녀의 무덤에서 피었다고 전해진다.

강 연구사는 지난 2012년부터 수출과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종간 잡종 나리 개발 품종 육성에 나섰다. 최근 강 연구사가 개발한 백합 품종 '밀키웨이'는 세계 백합 수출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네덜란드 오리엔탈 백합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밀키웨이는 오리엔탈-트럼펫(OT) 종간 잡종 나리로 아이보리색의 꽃이 아름답고 알뿌리 부패병에도 강한데다 물에 꽂아 신선한 상태로 유지 가능한 기간인 절화수명이 더 긴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강 연구사는 "현재 대부분 수입해 이용 중인 절화용 구근을 국내산 구근으로 대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양구 기간이 단축되고 시장 기호도가 높은 화색과 화형의 종간잡종 백합 품종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중국 등 인근 국가로 시장을 확대해 일본으로 국한되어 있는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근 위축되고 있는 화훼소비를 촉진하고자 소비자의 관심과 다양한 소비처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화색과 화형의 종간잡종 백합 개발에 전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강 연구사는 국내 나리 절화 유통기반 확립과 구근 수입시 농가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강 연구사가 제안한 나리 절화농가의 절화수명 연장제 구입을 지원해주는 정책 제안도 채택해 농가에 큰 도움을 줬다. 이밖에 강 연구사는 수출용 나리 적정 저장온도와 전처리제 선발 등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도 이끌어내 농가의 나리 수출 활성화에 한 몫하고 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조성모 '초록매실' 모델 나선다

소비자 광고 재계약 요청… 웅진식품과 15년만에 재결합



조성모가 광고 모델로 활동할 당시 초록매실 매출액은 1900억원(소비자가 기준 추산)으로 같은 기간 콜라 매출을 넘어서기도 했다.

웅진식품 음료마케팅팀 현장환 부장은 "웅진식품은 단순히 계약관계로 얽힌 모델과 광고주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동반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웅진식품과 가수 조성모(37·사진)가 다시 손을 잡았다. 웅진식품이 매실음료의 대표브랜드 '초록매실'의 광고 모델로 가수 조성모와 재계약을 맺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델 계약은 지난 1999년 광고모델 계약 이후 15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계약은 지난 5월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의 'SNL Korea' 덕에 이뤄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웅진식품은 조성모가 SNL Korea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방청객들이 마실 700여개의 초록매실과 '우리도 이럴 줄 몰랐어요'라는 재치있는 사과 문구를 담은 화환까지 함께 보냈다. 이후, 조성모와 초록매실의 관계가 화제가 돼 초록매실 광고 재계약을 요청하는 온라인 댓글이 달리는 것은 물론, 본사로 전화를 걸어와 모델 계약을 요청하는 소비자가 줄을 이었다.

초록매실은 2013년 기준 국내 매실 음료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대표 매실음료 브랜드다. 조성모는 지난 2000년 방영된 초록매실 광고에서 '널 깨물어 주고 싶어'라는 멘트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美 노숙자들에 점심 선물한 中 '괴짜 부자'

천광뱌오 회장, 250명에 코스요리



을 변경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일부 노숙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뉴욕 구제전도단' 크레이크 메이스 사무국장은 사과의 말을 전하며 "신문광고에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2008년 천 회장은 중국 쓰촨 대지진 때 적극적인 구조활동으로 당국으로부터 '영웅'에 선정돼 활발한 자선사업을 펼쳤으나 여러 번의 기행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중국의 '괴짜 부자' 장쑤황푸 재생자원이용유한공사의 천광뱌오〈사진〉 회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 레스토랑에서 노숙자 250명에게 근사한 점심을 선물했다. 지난주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면광고를 낸 천 회장은 1000명의 노숙자에게 식사와 현금 300달러를 선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점심 메뉴는 참치와 필레미뇽 스테이크 등으로 이뤄진 코스요리를 천 회장이 직접 선택했으며 식사 도중 아프리카 난민을 돕기 위한 자선곡 '위아더월드(We Are The World)'도 불렀다.

한편 천 회장이 노숙자들에게 300달러를 주는 대신 뉴욕의 노숙자 구호단체에 9만 달러(약 9155만원)를 기부하기로 계획



한화건설 임직원들과 마천동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직원들이 꿈에그린 도서관 33호점 개관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건설

한국인에 신장 기증한 푸른 눈 교수님

한남대 가브리엘 앤드루스 교수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 실천"

우리나라 대학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수가 한국인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해 감동을 주고 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한남대 기독교학과에 재직 중인 가브리엘 앤드루스(28) 교수가 뇌사자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한국인에게 신장을 기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술은 26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무려 6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온 가브리엘 교수는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고귀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신장을 이식받은 분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그동안 투병생활로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돼 축하드린다"고 덧붙였다.

2006년부터 신장투석을 받아온 40대 초반의 남성은 가블리엘 교수의 신장을 이식받아 7년 만에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가브리엘 교수에게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무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다.

가브리엘 교수는 3년 전 한국행을 선택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기회가 되면 장기기증을 하려 했었는데, 지난해 9월 장기기증운동본부를 알게 돼 주저없이 등록했다.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먼 이국땅에서 생기자, 그는 수술 전 고국의 부모에 전화해 동의를 구하고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은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한덕종 교수팀이 집도했다. 박성제 기자 psj@



가브리엘 교수 . 뉴시스

한화건설 사회공헌활동 33번째 '꿈에그린 도서관'

한화건설은 최근 서울 송파구 마천동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에 33번째 '꿈에그린 도서관'을 개관했다고 27일 밝혔다.

'꿈에그린 도서관' 조성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한화건설만의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으로,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협업해 진행하고 있다. 오는 연말까지 39호점 개관이 목표다.

한화건설은 또 올해 초 릴레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동천의 집'을 비롯한 복지시설에 1000여권의 책을 기증했다. 꿈에그린 도서관에는 한 곳당 평균 1000여권의 책이 기증된다.

이대우 한화건설 실장은 "건설업의 특성에 맞는 재능기부형 봉사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영관 기자 kwan@

정영무 한겨레신문 사장 한국디지털뉴스협회장에



한국디지털뉴스협회는 26일 제주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영무 한겨레신문 사장〈사진〉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부회장에는 이재욱 전남일보사, 여창환 대구 매일신문사 사장을 뽑았고 이사로는 이철휘 서울신문사, 이명관 부산일보사, 구주모 경남도민일보사, 변재운 국민일보 쿠키미디어 사장과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이 선임됐다.

감사는 송광석 경인일보 회장과 조한규 세계닷컴 대표이사가, 집행위원장은 임영섭 전남일보 전무이사가 각각 맡게 됐다.

한편 한국디지털뉴스협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디지털뉴스 저작권 신탁 사업(뉴스코리아)을 목적으로 2006년 4월 21일 창립했으며 현재 전국 언론사 6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수출입銀, 탈북민 대안학교에 1억2000만원 후원



수출입은행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씨앗을 통해 9개 탈북민 대안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억2000만원을 후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후원금을 받은 학교는 겨레얼학교, 금강학교, 셋넷학교, 여명학교, 우리들학교, 자유시민대학, 자유터학교, 하늘꿈학교, 한꿈학교 등 9개 학교로 전국 탈북민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교육 프로그램 실시비용과 급식비 등 학교 운영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탈북민 대안학교는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2세들이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초학습부터 정서지원, 취업·진학지도 등 교육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이덕훈 수출입은행 행장은 "탈북 학생들의 보금자리인 대안학교 운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정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수탁해 운용하는 기관으로 매년 탈북민 대안학교를 후원하고 있다. 또한 탈북 청년 취업학교 지원, 탈북 청소년 문화예술제 개최, 탈북 청소년 그룹홈 가족 후원 등 지난해 총 3억5000만원을 탈북민 취업·교육사업에 지원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강남서 직원들 "다문화 아이들, 우리가 지킨다"

다애다문화학교 '1대1 멘토링' 후원



강남서 직원과의 멘토링 결연식 직후 다애다문화학교 학생들이 순찰차를 타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

서울 강남경찰서 직원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강남서 직원들은 2011년부터 강남구 논현동 다애다문화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1 대 1 멘토링 후원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12년 1월 몽골 출신으로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박성진군을 곤경에서 구해줬다. 한국인 10대 10여명과 시비가 붙어 구타 당한 박군은 가해자로부터 성추행범으로 몰린 상황이었다. 강남경찰서 외사계 직원들은 박군의 무혐의를 밝히고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줬다.

현재 다애다문화학교 학생들과 멘토-멘티를 맺은 강남서 직원은 27명으로, 생활지도교사 역할을 맡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형제처럼 도움을 주고 있다.

강남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픔을 함께하며 멋진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심껏 돕겠다"고 전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인사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정책총괄담당관 곽경림

◆한국전기안전공사 ◇승진 〈1급〉 △경영지원처장 권순천 △안전관리처장 유수현 △성장동력처장 문이연 △전기안전연구원장 최종수 △강원지역본부장 이경남 △충북지역본부장 김정규 ◇이동 〈1급〉△기획조정처장 임동훈 △안전기획단장 김형보 △기술사업처장 김이원 △전력설비검사처장 송종규 △전기안전기술교육원장 홍귀석 △인천지역본부장 모성엽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임석윤 △경기지역본부장 민병현 △전북지역본부장 유선희

◆중소기업중앙회 ◇전무이사 승진 △강성근 경영기획본부장

◆하나대투증권 ◇본부장 선임 △동부지역본부장 박한욱 △부산경남지역본부장 문철현 ◇지점장 전보 △전주지점장 홍성백 ◇지점장 임명 △동래지점장 배국환 △대구지점장 이대형 △청주지점장 권용목 △해운대지점장 임현주

◆동아일보·채널A·미디어랩A ◇동아일보 〈국장〉 △출판국장 박태서 〈소장〉 △미디어연구소장 유종헌 〈부국장급〉 △콘텐츠기획본부 전문기자 석동율 〈부·팀장〉 △AD본부 광고개발팀 오형진 △〃 옥외광고팀 박종순 △〃 AD3팀 송하승 △출판국 마케팅팀 김길삼 △마케팅본부 수도권팀 이호열 △〃 지방동부팀 이희섭 △〃 지원팀 채승훈 △미래전략연구소 경영지식팀 김남국 〈부장급〉 △편집국 사회부 정재락 정승호 △〃 소비자경제부 차장 박현진 △〃 사진부 김경제 △〃 〃 김동주 차장 △경영지원국 총무팀 박정수 △AD본부 광고개발팀 조재현·조병익 △마케팅본부 수도권팀 경인파트 최익성 ◇채널A 〈부국장급〉 △보도본부 편집2부 김성용 〈부장급〉 △보도본부 편집1부 김응수 △〃 보도제작부 김명래 △〃 산업부 차장 석동빈 △경영지원본부 기술운용팀(DDMC건설본부 방송시설팀) 민성기 ◇미디어랩A △경영지원팀장 부국장급 김재현 △마케팅기획팀장 차장급 김용석 △경영지원본부 〃 김상윤

◆MBC △보도국 부국장 겸 취재센터 문화레저부장 정용준 △보도국 취재센터장 정연국 △보도국 편집1센터 주말뉴스부장 김연석 △홍보국 정책홍보부장 서민수

부음

▲이정원(서울중앙지법 판사)씨 모친상 = 26일 오후 8시 20분,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3호실, 발인 28일 오전 11시, 02-2072-2114

▲정원조(미국 거주)·승조(미디어협동조합 국민라디오 PD)씨 부친상 = 26일 오후 5시, 서울동부시립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 02-929-5654

▲오행근(대신증권 이촌동 지점장)·귀순(고창군 흥덕 농협 상무)·정희(울산 굴화초등학교 교사)씨 모친상 = 26일 오전 6시,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고인돌장례식장 201호, 발인 28일 오전 9시, 063-562-3223

▲이진숙(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씨 모친상, 김광호(청주대 태양광에너지공학과 교수)씨 장모상 = 25일 오후 8시,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천실, 발인 28일 오전 7시, 042-257-1705

▲김영배(전 조달청 부이사관)씨 별세, 김종우(넥스브레인 대표)·종윤(LG전자 차장)씨 부친상 = 25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031-787-1501

▲이도용(인정병원 과장)씨 모친상, 이호승(디지털타임스 정경부 기자)·명진(블루미지 과장)씨 조모상 = 일산병원 장례식장 6호, 발인 28일 오전 7시, 031-900-0444

▲송재박(프로야구 두산베어스 수석코치)씨 장인상 = 26일 오전 8시 25분,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8일 오전 9시, 02-860-3500



공병호의 독서산책

이용대 '그곳에 산이 있었다'

'사람들은 왜 산에 오르는 것일까?' 철학이 담긴 등산인 이용대 등산학교장의 에세이집이다. 사람이 산을 오르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어떤 사람은 영웅적인 행위로, 또 어떤 사람은 독창적인 자기표현의 활동으로, 또 다른 사람은 성숙된 놀이 문화로 산을 오른다.

어느 시대나 인간은 무엇을 높은 것으로 볼 것인가는 다르지만 가장 높은 곳을 갈망한다. 이들이 맞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작가는 산에 미친 사람들이 맞닥뜨린 어려움은 크레바스(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 살인적 추위, 강풍, 눈사태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생업의 산'이라고 말한다. 산에 빠진 사람은 직장과 산을 양립시키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사표마저 불사하고 에베레스트로 떠나겠다고 고집하는 부하에게 상사는 "에베레스트가 가족의 생계가 걸린 직장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묻는다. 보통사람들의 상식이나 통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산꾼에게 추락이란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지만 저자는 자신의 추락 경험담으로부터 배웠던 교훈을 담담하게 털어놓는다. 예상치 못한 추락 경험은 저자로 하여금 매사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만들었고 오만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는 뼈아픈 기회를 제공했다. 등산계에는 등산의 목적을 등정에 두지 않고 등정에 이르는 과정에 두는 등로주의의 흐름이 있고, 다른 하나는 등정 자체에 목적을 두는 등정주의가 있다. 8000m급 미답봉에 대한 등정 시대가 끝난 이 시점에서 등로주의는 새로운 조망을 받고 있다. 등로주의는 끊임없이 미개척의 새로운 길을 찾아나설 뿐만 아니라 형식을 넘어서 정신과 태도의 문제까지 포함하게 됐다.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할 수 없는 등산에 대해 "등산은 살아서 돌아옴으로써 완성된다. 성과를 얻는 것은 등산의 목적이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한다.

오르는게 목적인 등정주의
과정을 중시하는 등로주의
사람들마다 목적 다르지만
산이 있어서 산에 오른다

남극대륙의 탐험길에서 아문센과 다투었던 스콧은 2등을 하고 말았다. 또한 그는 귀국길에 동료들과 함께 불귀의 객이 되고 만다. 그가 남긴 마지막 일기는 이렇게 끝난다. "기력이 없다. 하지만 나는 이 여행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 여행을 통해 영국인들은 역경을 견딜 수 있고 서로를 도울 수 있으며 누구보다 큰 용기를 가지고 죽음과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멋진 등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저자가 권하는 방법은 유명 알피니스트(등산가)들의 자서전이나 등반기를 읽어 보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모든 일을 체험할 수는 없다.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책을 통한 간접 체험이다. 설악산이나 백두대간을 사전 정보 없이 오르기보다는 '설악행각'이나 '산경표'를 읽고 오르면 그 기쁨은 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알프스 등반기'를 읽고 마터호른을 찾는 사람이라면 1865년 첫 등정 당시 일어났던 대참사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감격적인 순간이 여럿 있겠지만 저자에겐 비박(등산 도중 예상치 못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 데서 밤을 지새는 것)을 하면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접하는 순간이다. "밤하늘은 어느 위도, 어느 경도에서 봐도 아름답지만 산 위에서 볼 때가 제일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 산악인은 사람을 구분할 때 "산에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 산에 가는 사람으로서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글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한다"고 장담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산과 산악인에 대해 이해와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산을 간직한 채 매일 등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율의 정치펀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백 투 더 노무현 정권?

2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얼핏 보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청와대 의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만히 뜯어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정홍원 총리 유임 발표 직전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신설된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사실을 엮어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의 의미를 보면 이렇다. 우선 지금 또 한 번의 인사 실수가 나온다면, 정권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레임덕이라는 블랙홀에 빠지게 될 것임을 청와대가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하에서 또 다른 사람을 총리로 지명해 봤자, 또 어떤 하자가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청와대가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청와대가 현재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자인했다는 사실을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말이다.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자인이란, 김기춘 비서실장만 바꾼다고 해서 이런 인사 난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김기춘 실장 책임론을 인사수석실 신설을 통해 피해 보자는 의도도 읽혀진다는 말이다.

어쨌든 분명한 점은, 그 의도가 어떻든 인사 시스템을 바꾸려면 제대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권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좋다. 예를 들어 인사 시스템의 변화는 단순한 인사수석실 신설이 아니라 검증팀의 숫자를 늘리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검증자료를 관련 부처로부터 받으면, 이를 검토하는 인원을 지금보다는 최소한 10배는 늘려야 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의 유무를 판단하는 인원도 최소한 10배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이성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설명을 보자면 인사수석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간사를 맡게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되면 인사수석은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 밑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는데, 과연 대통령 임명이전의 최종단계에서 난상토론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추가돼야 할 점은 대통령의 최종 재가 이후 인사결과를 야당에 설명하는 절차 부분이다. 이는 미국에서 하는 방식인데, 미국은 최종 낙점 단계에서 대통령이 야당과 인사에 대해 협의한다. 이런 방식을 우리에게 도입하면,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야당의 양해도 지금보다는 용이하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점은 언론과 여론도 하나의 검증 통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여론과 언론의 사전 검증을 마치 특정인 죽이기라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여론과 언론도 충분히 검증할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런 것이 언론의 마땅한 역할이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새로운 기구의 신설이 아니라 인사 전 과정의 투명성 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 두고 볼 일이다. 특히 지금처럼 인사 과정에서 "비선(秘線)"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투명성 제고라는 것은 정권의 정통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 박근혜 정권이 과거 정권의 장점을 되살려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사수석실의 신설은 엄격히 말하면 신설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노무현 정권 시절 이미 인사수석실을 운영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이 노무현 정권 시절 있었던 제도나 기관을 부활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존재했던 해양수산부 역시 박근혜 정권이 부활시켰다. 이런 국가 기관들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 폐지됐다.

이것을 부활시킨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나 기관은 정권과 무관하게 영속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 정권의 업적은 과거 정권을 부정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념적으로 차이 나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 정권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진정으로 합리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음 번 정권에 하나의 모범적 사례로 기록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온라인 와글와글

만취 회사원 손님 때리기 내기, 해줄 말이 없구만



○…만취한 회사원 3명이 옆 테이블 여성을 때리는 내기를 해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이다. 내기에 진 한 남성은 소주병을 휘두르고, 손으로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위험한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정신 나간 사람이네. 이게 말이 되느냐. 같은 국민으로서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이 밖에 네티즌들은 "어디 가나 술이 문제. 술 깨면 얼마나 창피할까", "술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이 문제", "만취했다면서 내기할 정신은 있느냐", "점점 더 삭막한 사회가 돼 간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사병 월급을 올리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소식이다.

상병 월급은 15만 4800원으로 2만200원(15%) 인상이 추진된다. 상병 월급은 오는 2017년에는 19만 58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회의원 연금 모조리 몰수해 병사들 월급 100원이라도 올리자", "예비역이지만 저것 몇 배 더 현역들에게 준다 해도 찬성", "골프장 짓는 데 돈 쓰지 말고 병사들 월급 88만원 줘라"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한 네티즌은 "병사와 소방공무원에게 주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해 시선을 끌었다.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1. 내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진통 끝 7.1% 인상 결정
2. '탈영' 임병장 메모 비공개 놓고 군·유족간 공방
3. 아이폰6 예상가격 아이폰5S보다 저렴해질 전망
4. 세월호 기관보고… 김기춘 靑비서실장 직접 나서는 이유
5. 북한 신형 방사포 3발 동해로 발사…사거리 얼마인가보니

오늘의 BAE 배국남 .com

www.baekn.com

미니앨범 '틴에이저' 쇼케이스 연 정준영



배국남닷컴은 27일 가수 정준영을 만났다. 정준영은 지난해 10월 데뷔 이후 약 8개월 만에 두 번째 미니앨범 '틴에이저(TEENAGER)' 쇼케이스를 열고 가요계 컴백을 알렸다. 그는 "8개월 만의 앨범이다. 열심히 만들었다"며 "프로듀서와 작곡부문, 뮤직비디오 등에 직접 참여했다. 완성도도 높다고 생각한다. 뿌듯한 앨범"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정준영은 셀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자신의 앨범 수록곡을 직접 소개했다. 이번 앨범엔 총 6곡이 담겼다. "작곡은 했는데 작사는 안 했다.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며 "내가 생각한 스토리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는지 작사가에게 요청했다. 잘 써주신 것 같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특히 가요계 썸 열풍을 일으킨 정기고가 수록곡 '홀드 온(HOLD ON)'을 작사해 외로움을 주제로 완벽한 곡을 탄생시켰다. 정준영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곡이다"며 "갈구하는 듯한 간절한 마음과 끈끈한 사운드가 있다. 후렴구에 터지는 사운드가 인상적이다. 샤우팅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번 앨범 제목이 '틴에이저'인 만큼 정준영의 10대 시절도 궁금했다. 그는 "나의 10대는 막장이었다. 청소년기에 공부하는 학생은 아니었다"면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이 18세부터 생겼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생활했다. 음악에 대한 욕심이 컸다"고 말했다.

한편 정준영은 MBC 표준FM '심심타파'에서 신동의 뒤를 이어 DJ로 발탁됐다. 그는 "예전부터 DJ를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맡게 돼 기분이 좋다"며 "신동 형이 잘해서 부담감도 있지만 잘 배워서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정 기자 mj_kim@



正論

중국인들이 해외부동산 투자하는 까닭



정 유 신
한국벤처투자 대표

최근 수년간 중국의 개발업자나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개인들도 해외부동산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부유층으로 중국의 고성장과 함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혁·개방정책에 발맞춰 성공한 사업가, 정부나 외국계 기업 간부,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돈을 번 투자자들이 중심이다.

이하 중국 개인들이 해외부동산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유 내지 배경을 정리해 보면 1985년 '중화인민공화국 公民出境入境管理法' 발표를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이 법에 의해 중국인의 해외여행이 늘면서 보다 자기에게 맞는 거주환경을 찾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해외 부동산 투자로 연결되었다.

둘째, 자녀 교육과 거주를 위한 해외 부동산 투자도 한 요인이다. 중국 부유층은 특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 자녀에게 보다 우수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해외 유학을 통해 자녀에게 중국외의 인맥 구축이나 해외 취업 또는 영주권 취득에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중국 부유층 자녀가 유학하는 국가는 대부분 선진국이지만 최근엔 우리나라처럼 중진국이면서 부동산 투자 기회가 있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OECD에 의하면 2011년 기준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 수는 미국 17.9만, 호주 9.0만, 영국 6.6만, 캐나다 2.6만, 독일 1.8만의 순으로 되어 있다. 자녀 유학생활을 위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자산관리에도 유리하다.

셋째, 안정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짭짤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중국의 부유층은 그동안 중국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크게 늘려왔다. 예컨대 상하이의 대표적인 고급주택 취호천지(翠湖天地)의 경우 평방미터당 판매가격이 2003년엔 2만 위안(400만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무려 15만 위안(3000만원)으로 7배 반 뛰어올랐다. 현금이든 대출이든 이런 부동산투자 붐에 뛰어든 사람들은 한몫 단단히 챙겼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엔 주택버블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투자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게 시장 평가다. 게다가 중국은 중국인들의 주택 소유욕이 워낙 강해서인지 임대시장은 그다지 발달돼 있지 않다. 따라서 안정적이면서도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해외 임대시장 투자 검토가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넷째,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도 해외 부동산 투자 요인이다.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가격 억제책을 계속 발표했다. 주택 구입에 관한 대출 비율을 높이고 영업세 과세를 강화한 데다, 구입주택 수 제한 등이 그 대표적 예다. 이는 중국 내의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반면 잉여자금을 해외부동산 투자로 유도한 셈이 됐다.

다섯째, 중국의 토지 국유제를 들 수 있다. 중국에선 토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농민에 의한 집단소유만 가능하며, 개인은 토지사용권과 지상건물을 일정 기간 점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선 정부 필요에 따라 언제든 수용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부동산 소유 욕구가 대단히 강해서 소유권 내지 장기 임차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역의 부동 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여섯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자산보전 불안감도 한몫하고 있다. 문화 대혁명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실각되고 체포되었던 기억을 갖고 있다. 현재 시진핑 정부도 반부패 캠페인을 세게 벌이고 있다. 소위 흑색수입과 회색수입 등을 잡겠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 부유층 자산의 상당 규모가 분산투자 명목으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 위안화 절상 때문에 해외자산이 상대적으로 싸게 된 점이라든지 최근 중국의 환경오염과 식품안전 문제 등도 해외 이주를 겨냥한 해외 부동산 투자확대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국민적 집단트라우마, 언제 끝날까



심리학 용어 가운데 트라우마(trauma)라는 것이 있다. 이는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까봐 미치도록 불안해하는 심리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슬픔과 분노, 원망과 탄식을 내놓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국민 집단적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떨까.

말 그대로 참담한 기분일 것이고,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정부가 원망스러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최근 발생한 GOP 총기 난사는 충격 그 자체를 넘어 국민 모두를 경악케 하고 있다.

지난 21일 저녁 동부전선 최전방 GOP(남방한계선 철책 초소)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임모 병장은 동료 병사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그 자리에서 5명이 숨지고 7명을 부상케 했다.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꽃다운 청춘들이다. 또한 그들은 분명 국민 누군가의 둘도 없는 소중한 자식들일 것이다.

전쟁 중에 적의 총탄에 맞아 사망해도 부모 가슴은 찢어지는 법인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와중에 동료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생각이 꽂히지 않을 수 없다. 임 병장은 군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한 '관심병사'였다.

그런데도 군은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는 최전방 초소인 GOP에 임 병장을 투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은 군이 만들어낸 인재라고 지적하고 있다.

만일, 군이 관심병사 관리를 제대로 해왔다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사건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어라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군 당국이 책임을 '면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군 당국의 노력이다. 군 당국은 총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잊을 만하면 또 다시 터지는 총기 난사 사건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일례로 관심사병의 경우 전문 상담사와 정신과 의사를 통해 정밀하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부대원 간 전우애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근절되면 부모들은 자식들이 군에 있더라도 다리 쭉 펴고 꿀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부 차장 tearand76@

객석

음악으로 세상을 잇다



양 매 화
비영리사단법인
이노비(EnoB) 협력이사

음악처럼 사람의 마음을 쉽게 열어주는 도구가 또 있을까? 때로는 긴 말보다도 아름다운 한 자락의 선율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또는 흥겹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 영화 '미션'에서는 한 선교사가 말이 통하지 않는 원주민들에게 들려준 오보에 연주가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뉴욕에서 지냈던 몇 년 전, 음악의 힘을 느낀 또 한번의 경험이 있었다. 뉴욕에서 한국인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이노비(EnoB)를 만났을 때였다.

그들은 세상의 소외된 이들에게 찾아가 음악을 들려주는 단체였다. 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좋은 공연을 접할 수 없는 이들을 찾아가 재능기부로 음악회를 열어주고 있었다. 나는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이브 음악회에 처음으로 함께 참여했다. 음악에는 재능이 없는 터라 그저 자리를 안내하고 순서지를 나눠주는 등 사소한 일들을 도왔지만 그 경험만으로도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가족들도 찾지 않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외롭게 보내고 있는 노인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와 함께 진정한 위로의 숨결이 표정 속으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다.

그간 누구를 위한 자선음악회나 재능기부음악회를 연다고 하면 음악회의 수익금을 통해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방식만을 보아 온 나로서는 이러한 경험이 신선하면서도 새로운 체험이기도 했다.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노인들, 병원 안의 환자들, 몸이 불편한 이들 모두, 누구든 나처럼 음악을 즐기고, 필요로 하고, 오히려 더욱 제약된 상황 속의 이들에게는 음악이 소중하고 간절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나의 경험을 통해 나는 타인을 돕고 싶은 따뜻한 작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 방법을 몰라 선뜻 누군가를 돕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들과 함께 음악을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달라고. 단순할지도 모르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자의 눈

산업부의 전시행정



김 희 준
정치경제부/h9913@

얼마전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관실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6개의 공인시험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은 원전부품에서부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많은 공산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곳인 만큼 산업부의 이같은 선제적인 조치는 나무랄 때 없다.

실제로 산업부는 이같은 자체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시험검사 결과와 자격기준 미달 시험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사후 처리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부 감사관실이 이들 공인시험기관의 감사 경중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간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약 140만건의 공인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6개 기관 한 곳이라도 업무를 정지하게 할 경우 이에 파생되는 기업들의 부담은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원전부품 등 화학물성의 시험을 담당하는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3개월 동안 문을 닫는다면 당장 원전에 납품할 부품들의 안전성을 담보로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닌 조치인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 관계자 누구도 이같은 상황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모양새다. 바로 한 단계를 내다보는 행정조차 요원했다는 방증이다.

산업부의 근시안적인 행정은 또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산업부 감사관실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원전설비 보수와 관련된 납품을 해왔던 업체들을 적발했다. 지난해 원전부품 비리로 철렁했던 국민들의 입장에선 강한 우려를 가지게 하는 대목이지만 핵심부품이 아닌데다 이에 대한 안전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단할 부분이란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감사라지만 짧은 판단과 성과 발표의 공명심만 남은 전시행정을 목도한 것 같아 입안이 쓰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 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이종재 광고국장 임영재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정치경제부 (02)799-2655 시장부 (02)799-2658 금융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사회생활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국제경제부 (02)799-2650 사진팀 (02)799-2634
광고접수 ·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99-2603 / 260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아픈 몸은 깨달음을 위한 좋은 도구
아프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아픔과 함께 잘 살아가는 법' 영성 분야 최고 권위의 노틸러 북 어워드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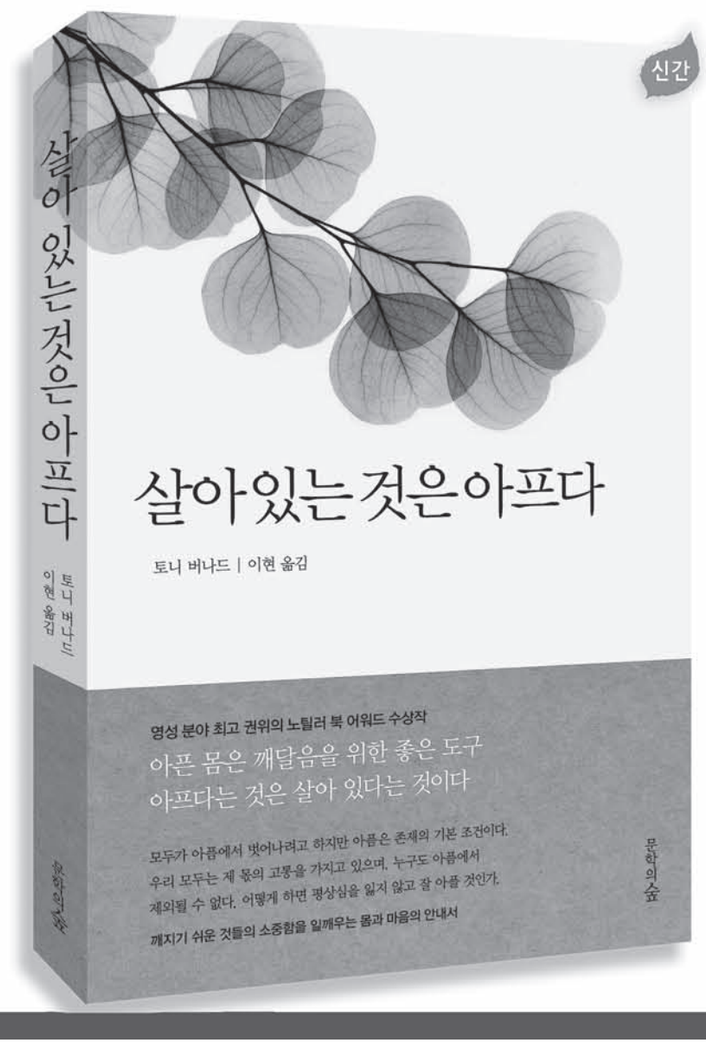
인생의 정점에서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 쓰러진 법대 교수의 감동적인 실화. 그녀는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상실은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 되었다. 영혼에 대해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는 똑같은 평정심을 가지고 인생의 춤과 함께 진정으로 '존재하는' 법에 대한 안내서

깨지기 쉬운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몸과 마음의 안내서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 이현 옮김 | 236쪽 | 13,500원

문학의숲 당신을 닮은 좋은책 TEL 02)325-5676





27일 오전(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의 아레나 데 상파울루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 브라질월드컵 한국 축구국가대표팀과 벨기에 축구국가대표팀의 H조 3차전 경기에서 벨기에에 1대0으로 패한 한국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아쉬워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14 브라질월드컵 H조 3차전 대한민국 대 벨기에 전이 열린 2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 영동대로에서 벨기에전 패배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예선 탈락이 확정되자 밤샘응원을 나온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1승도 못 거두고… 2002년 이전으로 돌아간 한국축구

벨기에에 0-1 패… '1무2패' 16강행 좌절

'상대 퇴장' 수적 우위 못 살리고 후반 32분 뼈아픈 실점
잦은 패스 실수·골 결정력 부족… 16년 만에 무승 탈락
'특급 공격수' 손흥민·'차세대 거미손' 김승규 4년 뒤 기약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태극전사들이 1무2패(승점1)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브라질 월드컵을 마무리했다.

홍명보(45)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7일 오전(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의 아레나 데 상파울루에서 열린 2014 브라질월드컵 H조 조별예선 벨기에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후반 32분 얀 베르통언(토트넘)에게 통한의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무릎 꿇었다. H조 최하위다.

홍명보 감독은 이날 필승 전략으로 경기에 임했다. 부진에 빠진 최전방 공격수 박주영 대신 김신욱(울산 현대)을 선발 출전시키며 벨기에의 높이에 맞섰다. 또 알제리전에서 치명적 실수로 4골을 헌납한 정성룡(수원 삼성)을 빼고 김승규(울산 현대)를 기용했다.

반면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벨기에는 에당 아자르(첼시)와 뱅상 콤파니(맨체스터 시티) 등 일부 주전 선수들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 채 아드낭 야누자이(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케빈 미랄라스(에버튼) 등 그동안 경기에 나서지 않았던 선수들을 대거 투입했다.

전반 초반은 백중세였다. 양팀은 탐색전을 펼치며 신중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다급한 건 한국이었다. 다량 득점이 필요한 한국은 1·2차전보다 공격적 전술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었다. 그러나 패스가 정교하지 못했다. 기회 때마다 부정확한 패스로 득점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전반 29분 역습 상황에서는 김신욱의 패스를 받은 기성용이 상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상대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AT마드리드)의 선방에 막혀 아쉬움을 남겼다.

전반 종료 직전에는 한국에 기회가 찾아왔다. 벨기에의 미드필더 스테번 드푸르(FC포르투)가 김신욱의 발을 고의로 밟아 퇴장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10명이 뛰는 벨기에보다 수적 우세를 안고 후반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후반 들어 보다 공격적으로 벨기에를 밀어붙였다. 후반 12분 손흥민의 크로스가 아쉽게 크로스바를 맞고 나가 아쉬움을 남겼다. 계속된 공격을 통해 선제골을 기대하던 한국은 후반 32분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며 뼈아픈 실점을 하고 말았다. 벨기에 공격수 디보크 오리지(릴)의 중거리 슈팅이 김승규의 손을 맞고 흘러나오자 얀 베르통언(토트넘)이 이를 가볍게 밀어넣어 결승골을 성공시켰다.

한국은 후반 남은 시간 총공세를 퍼부었지만 벨기에 골문을 여는 데는 실패했다. 추가시간까지 동점골을 넣는 데 실패한 한국은 결국 벨기에에 0-1로 패하며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를 마친 홍명보 감독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많이 부족했다. 특히 내가 가장 많이 부족했다. 그래도 선수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또 "앞으로 한국 축구는 더 발전해야 한다. 이번 브라질월드컵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월드컵에 첫 출전한 이근호는 "꼭 승리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다. 다 잘못한 것 같다. 더 열심히 하겠다"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이근호는 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오늘 결정적 패스 미스로 인해 졌다. 동료 선수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며 고개를 떨궜다.

오상민 기자 golf5@



남미·유럽, 역시 전통강호

각각 6개팀씩 16강 합류

브라질월드컵 16강 대진이 확정됐다.

2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열린 조별예선 최종 3차전 경기에서는 독일과 미국(이상 G조), 벨기에와 알제리(이상 H조)가 각각 16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할 16개국이 전부 제자리를 찾았다. 유럽과 중남미가 각각 6개국으로 이번 대회에서도 유럽과 남미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연일 이어질 전망이다. 북중미와 아프리카는 각각 2개국이 16강에 합류했다.

16강전 중 가장 먼저 치러지는 경기는 브라질과 칠레다. 브라질은 조별예선에서 멕시코와 함께 2승 1무(승점7)를 기록했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1위로 16강에 올랐다. 이에 맞서는 칠레는 2승 1패(승점6)로 B조 2위를 차지하며 16강에 안착했다. 경기는 29일 오전 1시다.

같은 날 오전 5시에는 콜롬비아와 우루과이가 맞붙는다. 콜롬비아는 C조에서 그리스와 코트디부아르, 일본을 차례로 꺾고 3전 전승(승점9)으로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반면 우루과이는 2승 1패(승점6) D조 2위로 16강에 합류했다.

조별예선에서 2승 1무(승점7)를 기록한 프랑스는 F조 2위로 올라온 나이지리아(1승 1무 1패)와 맞붙는다. 경기 시간은 7월 1일 오전 1시다. 독일(승점7·G조 1위)과 알제리(승점4·H조 2위)는 7월 1일 오전 5시 경기한다. 네덜란드(승점9··B조 1위)와 멕시코(승점7·A조 2위)는 29일 오전 1시, 코스타리카(승점7·D조 1위)와 그리스(승점4·C조 2위)는 30일 오전 5시, 아르헨티나(승점9·F조 1위)와 스위스(승점6·E조 2위)는 7월 2일 오전 1시, 벨기에(승점9·H조 1위)는 7월 2일 오후 5시 미국(승점4·G조 2위)과 경기한다.

오상민 기자 golf5@

희비 엇갈린 축구 천재들



네이마르 '펄펄'

3경기 4골… 가공할 득점력
샛별 넘어 진정한 슈퍼스타로

2014 브라질월드컵 대망의 16강전 대진이 모두 확정됐다. 16강 진출과 탈락을 놓고 32개 팀의 희비가 교차한 가운데 스타들의 명암 역시 확연히 엇갈리는 모양새다.

개최국 브라질의 '신성' 네이마르와 아르헨티나의 '에이스' 리오넬 메시(이상 바르셀로나) 그리고 독일의 '별' 토마스 뮐러(바이에른 뮌헨)는 월드컵 기간 가장 높게 비행하고 있는 선수다.

네이마르는 조별리그 3경기에서 4골을 몰아넣는 가공할 득점력을 선보이며 대회 초반 득점 선두로 치고 나왔다. 그의 활약에 힘입은 브라질은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A조 1위(2승 1무)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메시 '이름값'

네이마르와 함께 득점 선두
월드컵 징크스 털고 맹활약

'슈퍼스타' 메시는 조별리그 세 경기 연속골을 쏘아올리며 포효했다. 1·2차전에서 결승골을 터트렸던 메시는 나이지리아와의 마지막 3차전에서는 멀티골을 기록하며 이름값에 걸맞은 활약을 펼쳤다.

포르투갈과의 1차전에서 해트트릭을 작성한 뮐러 역시 가나와의 2차전에서 한 개의 도움을 추가하며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득점은 잠시 멈췄지만 '전차군단' 독일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어 언제라도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다.



루니 뭐했니

잉글랜드 16강 탈락 '굴욕'
월드컵 첫 득점으로 위안

반면 포르투갈의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는)와 잉글랜드 '에이스' 웨인 루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울상이다.

독일과의 1차전에서 무득점으로 팀의 0-4 패배를 지켜봐야만 했던 호날두는 미국과의 2차전에서 역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며 침묵했다. 후반 막판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며 팀을 패배의 수렁에서 구해냈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잉글랜드의 특급 공격수 루니도 조국 잉글랜드를 '죽음의 D조'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루니는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첫 월드컵 득점을 기록했지만 팀의 조별리그 탈락을 지켜봐야 했다. 경기 내내 상대 수비수들의 집중 견제를 받은 루니는 결국 우루과이를 상대로 올린 1득점으로 위안을 삼아야만 했다.



호날두 '씁쓸'

1골 1AS…결국 집으로
팀 구하기에는 역부족

김종호 기자 kona@

자존심 구긴 아시아 축구

1승도 못 올린채 전원 탈락

아시아 축구가 최악의 부진을 면지 못했다. 27일 오전(한국시간) 열린 2014 브라질월드컵 H조 조별예선 한국과 벨기에의 경기에서는 한국이 수적 우위 속에서도 0-1 패배를 당했다. 이로써 이번 브라질월드컵에 참가한 아시아 4개국(한국·일본·이란·호주)은 본선 무대 조별예선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전원 예선 탈락했다.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4국이 거둔 성적은 3무 9패다. '죽음의 B조'에 속한 호주는 3전 전패로 승점을 1점도 챙기지 못했고, 8강 이상의 성적을 장담하던 일본(C조)은 1무 2패(승점1)로 예선 탈락했다. 이란(F조)은 '침대축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며 1무 2패(승점1)로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바라던 한국은 벨기에에 0-1로 패하며 역시 1무 2패(승점1)로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4팀은 전부 각 조 최하위다.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과 일본이 16강에 진출한 것과 비교하면 아시아 축구의 몰락이라고 부를만하다. 이에 따라 아시아 축구는 이번 대회 최악의 부진으로 대륙별로 주어지는 월드컵 출전권 감소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18년 러시아월드컵을 앞두고 대륙별 월드컵 출전 티켓 수 반영에 가장 불리한 위치에 섰다. 아시아의 출전권이 감소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Cover Story 가수들의 해외진출

#1. 미8군 무대 클럽에서 활동하던 패티김은 1963년 혈혈단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유명 토크쇼 '자니 카슨쇼'에 출연하고 미국 무대에 섰다.
"힘들었지만 해외 진출이라는 그것도 대중음악의 본고장 진출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열심히 했다."
본격적인 해외진출 1호 가수 패티김의 회고다.
#2. 6월 9일 오전 8시(한국시간) 싸이가 미국 ABC 유명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 게임 나이트'에 세계적인 힙합 뮤지션 스눕독과 함께 출연했다.
신곡 '행오버(HANGOVER)'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뮤직비디오 클립을 선보인 데 이어 유튜브를 통해 '행오버' 뮤직비디오를 전 세계 팬에게 공개했다.
빌보드 등 외국 언론들이 잇따라 '행오버'에 대한 기사와 비평을 쏟아냈다.



"방금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그때는 그랬지

"유튜브 덕에 국제가수" 요즘은 이렇지

1960~70년대 해외무대 '동경의 대상'… 조용필 이후 증가세
1990년대 K팝 인기로 본격화… 2000년 이후 '지구촌 강타'
인터넷·유튜브 등으로 간접진출 늘어… 체계적 마케팅 절실

"방금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가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가수를 소개하는 1960~70년대 방송이나 행사에서의 MC 전용 멘트다. 1960~70년대는 그만큼 해외 진출은 가수에게나 대중에게 신기하고 탁월한(?) 업적이었다. 1980년대 계은숙, 조용필, 김연자 등이 일본에 속속 진출하면서 가수들의 해외 진출도 서서히 증가했다.

1990년대 중후반 중국과 대만에서 한국 드라마와 함께 H.O.T, NRG, 클론, 베이비복스 등이 인기를 끌면서 한류가 거세졌다. K-POP 한류가 일기 시작하면서 한국 가수들의 해외 공연과 해외 진출은 본격화했다. 이후 K-POP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지구촌을 강타하는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 가수들의 해외 진출과 월드투어 공연은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한국 가수들의 해외 진출은 1960~80년대에는 패티김이나 김연자처럼 해외에 직접 진출해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해외 진출 유형도 이전과 크게 달라졌고 다양해졌다. 2000년대 초반 보아가 일본에 직접 진출해 가수 활동을 장기간 펼치며 일본 음악계를 석권한 것처럼 원더걸스는 미국에, 장나라는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현지 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해외 진출 가수의 한 유형이다. 또한 한국에서의 활동이 높은 인기를 얻어 인기가 높은 국가와 한국에서의 활동을 병행하는 유형도 있다. 일본과 한국에서 일정 기간 활동하는 카라, 초신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최근 들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빅뱅, 비 등 해외 각국에서 콘서트 투어와 공연에 주력하는 공연 중심의 해외 진출형 가수도 있다. 단발성이나 투어형 공연 중심의 해외 진출이 최근 들어 대세를 이룬다.

한류가 본격화하면서 해외 진출에 가장 큰 변화는 직접 진출보다 간접 진출이 훨씬 많아졌다는 점이다. 해외 진출 초창기의 패티김부터 2000년대 초반 보아처럼 한국 가수들이 외국에 직접 진출해 활동하는 직접 진출형보다 빅뱅, 카라처럼 한국 가수들의 국내 활동이 유튜브나 인터넷, 해외방송을 통해 해외팬에게 알려진 뒤 해외 공연과 콘서트 등으로 이어지는 간접 진출이 급증하고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국 가수들의 해외 진출 지역 역시 초창기 일본과 미국,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중동, 중남미, 유럽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K-POP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수들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지고 그 지역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조사에 따르면 2013년 7월 현재 아프리카·중동 76개, 아메리카 464개, 유럽 213개, 아시아·호주 234개 등 78개국에 987개의 한류 동호회가 결성돼 있고 회원이 900만명에 달한다. 이 중 한국 가수와 K-POP 동호회가 80%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 세계 한류팬이 많아지면서 중국·일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태국·대만 등 아시아각국, 중동, 브라질·멕시코 등 중남미에서 콘서트를 갖는 가수들도 늘고 있다.

한국 가수의 해외진출 지역 다변화뿐만 아니다. 한국 가수들의 해외 공연 관람객 유형도 크게 달라졌다. 1960~90년대에는 한국 가수들의 해외 공연이 주로 한국 교포 등을 대상으로 했다면 근래 들어서는 외국 한류팬들을 위한 공연으로 변한 것도 한국 가수들의 해외활동 변화 중 하나다.

최근 들어 한국 가수들의 해외진출 봇물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 유튜브, 인터넷 등의 발달로 세계 각국에서 K-POP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동호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싸이는 "저는 국내에서만 활동했는데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서 눈길을 끌면서 강제 해외진출을 하겠됐습니다. 유튜브가 국내 가수에서 국제가수로 만들어준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한국 가수의 해외 진출이 지속적이고 견고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바로 한국 가수들의 공연과 음악 콘텐츠의 질을 높여야 하고 아이돌댄스 음악에 편중된 장르를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한국 음악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해외팬들의 관리도 전문화해야 한다.

배국남 기자 knbae@

커버스토리 20·21면

현지화 전략 주력 '보아형'… SNS로 국경 넘는 '싸이형'



보아 현지인 정서 맞춤 곡 만들고
동방신기 日투어 나서며 직접 소통
FT아일랜드 나라마다 다른 곡 작업
빅뱅 국내앨범으로 인정받고 활동
싸이 유튜브 폭발적 반응에 해외로

해외활동 유형 살펴보니

가수들이 다양한 방식과 콘셉트로 해외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정공법을 선택하는 가수들이 있는가 하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인해 K팝이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해외에 노출돼 팬덤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해외투어나 콘서트 등으로 자신의 음악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문화 교류자 역할을 하는 가수도 존재한다.

한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K팝이 어떤 방법으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게 됐을까. 최근 들어 봇물을 이루고 있는 K팝 대표 가수들의 해외 진출과 활동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대형기획사의 자본과 조직력으로 다양한 해외 프로모션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해외활동을 시작한 대표적인 아티스트는 보아다. 보아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철저한 전략과 훈련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해외시장을 겨냥해 성장했고, 현지에서 생활하며 한국 가수의 불모지에 가까운 일본시장의 정상에 우뚝 섰다. 그는 "약 10년간 언어 공부만 한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현지인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서 외국어 공부에 매진했고, 음악 색깔도 그 나라에 맞게 번안했다. 2002년 3월 일본에서 발매한 정규 1집 '리슨 투 마이 하트(LISTEN TO MY HEART)'에 이어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한 두 번째 정규 음반인 '발렌티(VALENTI)' 수록곡 대부분이 일본인 편곡 작사·작곡가가 참여해 만든 곡이다. 특히 2집은 전곡이 일본인 작곡가로 이뤄져 현지인들의 정서에 맞게 음악을 재생산해냈다. 이후 보아는 2008년에는 싱글앨범 발매를 통해 미국 활동도 시작했다. 뒤이어 2009년 3월 미국 정규앨범을 냈다. 동방신기도 마찬가지다. 동방신기는 '동방에서 다섯 신이 일어난다(東方神起)'는 그룹명에서 알 수 있듯이 데뷔 이후 일본 활동에 주력했다. 2005년 일본 활동을 시작해 다음해 일본투어를 나서 직접 팬들과 소통하며 두터운 팬덤을 형성했다. 2009년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연속 5번 1위를 기록했고, 2008년과 2009년 일본 NHK '홍백가합전'에 2회 연속 출연했다. 밴드 가수로는 FT아일랜드와 씨엔블루가 있다. 두 밴드 역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활동을 시작했다. 씨엔블루의 경우 현지에서 라이브 하우스 공연과 길거리 공연 등을 통해 실력을 쌓은 뒤 2009년 8월 일본 인디즈에 데뷔했다. FT아일랜드는 일본에서 발표한 싱글앨범만 13개, 정규앨범 4개에 달한다. 한국 발매 앨범과 일본 발매 앨범은 차별화시켜 따로 작업한다. 번안곡이 없다. 일본과 중국 등 각 나라의 분위기와 색깔에 맞는 곡을 독립적으로 만들어낸다.

현지화 전략에 K팝 음악 색깔을 더해 해외활동을 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가수가 빅뱅과 카라다.

빅뱅은 자신들의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주로 다루는 인디레이블을 통해서 해외 활동을 시작했다. 국내 앨범으로 그대로 가져가 해외 활동을 했고 스스로 음악성을 인정받은 뒤 본격적인 해외활동에 주력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일본 지사를 세운 뒤에는 국내 앨범을 바탕으로 하되 버전을 조금 달리해 일본 앨범을 발표했다. 음원이 나오는 시기도 거의 맞물린다. 태양은 최근 일본에서 한국어로 된 음원인 정규2집을 발표했다. 오는 8월에는 한국곡들을 모아서 일본 데뷔앨범을 낼 예정이다. 카라는 한류 열풍을 타고 자연스레 일본으로 건너갔다. 현지 팬들과 만남인 악수회를 비롯해 다양한 미디어 노출을 통해 한국적 색깔을 간직한 채 해외활동을 해나갔다.

유튜브와 SNS의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가수의 의지와 달리 자연스럽게 해외 활동을 하게 된 가수들이 생겨났다. 뮤직비디오나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확산을 통해 팬덤이 형성된 뒤 그 인기에 부흥하고자 해외 활동에 주력하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 국한돼 있던 해외 활동이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대표적인 가수는 싸이다. 그에게는 일명 강제 해외 진출형이라는 수식어도 붙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비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삽시간에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월드스타로 등극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 등장은 국경을 허물고 굳이 현지활동을 하지 않아도 음악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고 세계 음악시장의 판도를 바꿨다.

이밖에도 해외 국적을 가진 멤버나 외국인 멤버를 포함하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해외활동을 하는 그룹도 있다. 특히 가요 기획사는 현지에 가서 오디션을 통해 멤버를 찾기도 한다. 2PM 닉쿤을 비롯해 미쓰에이 페이와 지아, 에프엑스 빅토리아과 크리스탈, 소녀시대 제시카·티파니, 투애니원 박봄·산다라박 등이 있다. 최근 가요계에서 가장 핫한 아이돌 엑소는 엑소K와 엑소M으로 나눠 데뷔했고, 중국인 멤버들로 구성된 엑소M은 중국 활동에 집중한다.

김민정 기자 mj_kim@

해외 차트로 본 가수들의 성적표

빌보드 싸이 2위… 원더걸스 76위

UK싱글 '강남스타일' 1위·'젠틀맨' 10위

오리콘 동방신기 앨범 3장 연속 1위

해외에서 활약하는 가수들의 인기 척도를 가늠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해외 음악 차트다. 미국의 빌보드 차트, 영국의 UK 차트, 일본의 오리콘 차트는 각국을 넘어 세계 음악시장의 판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국내 가수들의 해외활동 음악 차트 성적표는 어떨까.

빌보드 최고 기록은 싸이가 보유 중이다. 18일 싸이는 최근 발표한 신곡 '행오버'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26위로 진입했다. '강남스타일'은 64위로 진입한 후 7주 연속 2위를 차지했고, '젠틀맨'은 12위로 진입해 최고 5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싸이 외에는 2009년 원더걸스가 '노바디'로 76위를 기록한 게 유일하다.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는 올해 발매된 투애니원의 '크러쉬(Crush)'가 61위를 기록, 가장 높은 순위를 보유 중이다. 2009년 보아가 '보아'로 127위를, 소녀시대 유닛 태티서의 '트윙클'이 126위를 기록했다. 2012년 빅뱅은 '얼라이브(Alive)'로 150위에, 엑소-K가 '중독'으로 129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빅뱅 멤버 태양이 '라이즈(RISE)'로 112위를 기록해 한국 남성 가수 중 최고 순위를 차지했다.

지드래곤이 빌보드 월드 앨범 아티스트 연간 차트 9위를, 샤이니가 10위를 나란히 차지해 국내 가수로는 유일한 기록을 달성했다.

미국과 함께 팝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영국 UK 음악 차트에서는 싸이 외 한국 가수의 유의미한 기록을 찾기 쉽지 않다. 싸이가 지난 2012년 '강남스타일'로 UK 싱글 차트 1위를 기록, 한국가수로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달성했다. 지난해 싸이는 '젠틀맨'으로도 UK 싱글 차트 10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국내 가수의 이름이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일본 오리콘 차트의 최고 기록은 동방신기가 갖고 있다.

올해 3월 발매된 '트리'로 첫주 판매량 22만5000장을 기록, 오리콘 주간 앨범차트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베스트 앨범 '베스트 셀렉션 2010', 2011년 정규 앨범 '톤(TONE)', 2013년 정규 앨범 '타임'(TIME)'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오리콘 주간 앨범차트 1위다. 오리콘은 "정규 앨범 석 장 연속 1위는 역대 해외그룹 중 미국 록밴드 본조비와 타이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동방신기는 오리콘 싱글 부문에서도 주간 싱글차트 통산 12회 1위로, 일본 역대 해외 아티스트 중 최다 1위 기록을 보유 중이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미국 팝 흉내내기 결과”… “실패 아닌 도전의 과정”

미국 무대서 쓴맛 본 스타들… 실패 원인은

야심차게 떠났던 원더걸스
만족할 만한 성과 못 거둬
세븐·보아도 ‘씁쓸한 퇴장’

비는 가수 아닌 영화배우로
할리우드 진출 ‘절반의 성공’



원더걸스



비가 주연을 맡은 할리우드 영화 ‘닌자 어쌔신’

전 세계를 말춤으로 열광시킨 ‘월드스타’ 싸이가 신곡 ‘행오버’로 돌아왔다. 이제 싸이의 이름 앞에 붙는 ‘월드’라는 수식어는 어색하지 않다. 그는 진정한 월드스타로 거듭났다.

그는 국내 수많은 케이팝 가수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12년 7월 공개된 ‘강남스타일’은 지난달 31일 유튜브 사상 최초로 조회수 20억 뷰 돌파라는 대기록을 수립했고, 미국 음악전문 방송인 MTV가 주최한 ‘2012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참석하기도 했다. 유의미한 기록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프랑스 NRJ 뮤직 어워드에서 2관왕을 차지한 그는 같은 해 미국 빌보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 각국의 시상식을 휩쓸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는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케이팝 톱10 가운데 7곡은 YG의 노래”라고 언급했듯 YG 소속가수 빅뱅과 2NE1 역시 아시아를 넘어 서양권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정규 2집을 발매한 태양은 10개국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1위와 미국 아이튠즈 R&B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미국 시장을 두드린 세븐과 보아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음악이 아닌 할리우드 진출로 이름을 알린 비는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받는다. 미국에 직접 진출해 활동한 원더걸스 역시 철옹성 같은 미국 시장의 벽을 뚫진 못했다. 2009년 데뷔 싱글 ‘노바디(Nobody)’로 빌보드 싱글 차트 76위라는 기록을 세우긴 했다. 하지만 원더걸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 수장 박진영이 “팬들을 1대1로 만나 홍보해야 하는 미국 음악계 특성상 공연 전에는 무조건 공연장 주변에서 멤버들과 홍보전을 벌였다”고 밝힌 원더걸스의 고생에 비해 그들의 음악이 미국 내 주류로 소비됐다고 평가받기에는 다소 모자라다.

“잘못된 선택이다”, “시간 낭비였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작 원더걸스 멤버들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원더걸스 멤버 예은은 “우리끼리는 늘 ‘미국 활동이 도움이 됐다’고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학과 교수는 KBS 한류추진단이 주최한 한류 세미나에서 “많은 가수가 해외 진출을 노렸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았던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팝음악을 그럴 듯하게 흉내 낸 모조품에 가까웠기 때문”이라며 해외 진출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혼종성 자체를 담아낼 때 비로소 자신의 특이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수 싸이의 성공 사례를 높이 평가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 박충민 대표는 “보아나 원더걸스 등 다른 가수들이 꼭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자신의 스타일이 있는 것이고, 일단 뚫고 들어가 해보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그들의 도전정신을 높이 샀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보아

SM엔터, 글로벌 전략 성공 비결

대중문화의 흐름 손금 보듯 읽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00년 8월 아시아와 세계시장을 겨냥해 철저한 기획과 준비 아래 탄생한 보아를 데뷔시키면서 본격적인 해외활동에 주력했다. 2001년 보아가 일본에 진출했을 때, 그리고 5년 후인 2006년 동방신기가 일본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SM엔터테인먼트의 해외활동 전략 포인트는 현지화였다. 실제 일본 가수들이 활동을 펼치는 것처럼 해외시장 안으로 들어가 실력과 경험을 쌓아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분석은 적중했고 보아와 동방신기는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반면 약 10년 뒤 뉴미디어(유튜브, 페이스북)의 발달로 인해 음악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자 SM엔터테인먼트는 현지화 전략 대신 뉴미디어를 활용해 해외시장을 공략했다. 소녀시대는 2010년 SNS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일본시장에 알린 뒤 해외활동을 시작했다. 결과 소녀시대는 다양한 영상물들로 인해 팬덤이 형성됐고, 일본 첫 데뷔 쇼케이스부터 2만2000명을 동원해 일본 음반 관계자는 물론 현지 언론과 팬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SM엔터테인먼트는 지역별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미디어 트렌드를 고려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외활동에 주력했고 이 부분이 해외시장에서 통하면서 성공을 거두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민정 기자 mj_kim@

전세계 호령하는 K-POP군단

엑소
샤이니
에프엑스

국내 가수들의 활동 영역은 아시아 전체를 넘어 세계다. 케이팝 아티스트들은 세계 곳곳으로 진출, 각자의 영역에서 나름의 입지를 구축하며 해외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 CJ E&M 스마트미디어사업본부에서 실시한 178개 국가 해외 팬들의 성향 조사에 따르면 북미와 오세아니아 등 영어권 국가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차지한 아이돌은 엑소(EXO)다. 미국에서 11.1%의 지지율로 틴탑과 샤이니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각각 12.1%, 13.4%의 지지율을 확보했다.

유럽에서 샤이니의 인기는 대단했다. 샤이니는 서유럽인 영국, 프랑스에서 각각 15.4%와 11%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동유럽 폴란드에서도 1위(13.4%)에 올랐다. 또한 이탈리아(15.4%), 스페인(8.6%) 등 남부 유럽에서도 선두였고, 러시아에서 역시 22.7%의 높은 지지율로 1위에 올랐다.

중국에서는 에프엑스가 27.1%로 1위를 차지했다. 일본에서는 SS501 출신의 김현중이 19%의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고, 대만에서는 FT아일랜드가 21%로 1위에 랭크됐다. 필리핀에서는 2NE1이 1위를 차지했고, 인도에서는 엑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슈퍼주니어 헨리,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는 샤이니와 에프엑스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CJ E&M 스마트미디어사업본부 서정민 글로벌사업부장은 “국민적 특성이나 아티스트의 해당 국가 활동 여부 등에 따라 국가별로 선호하는 케이팝 아티스트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송해 선생님이 돈 맡기는 은행은?

IBK기업은행!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서비스

말이 필요없는 '난타'… 글로벌 공연의 정석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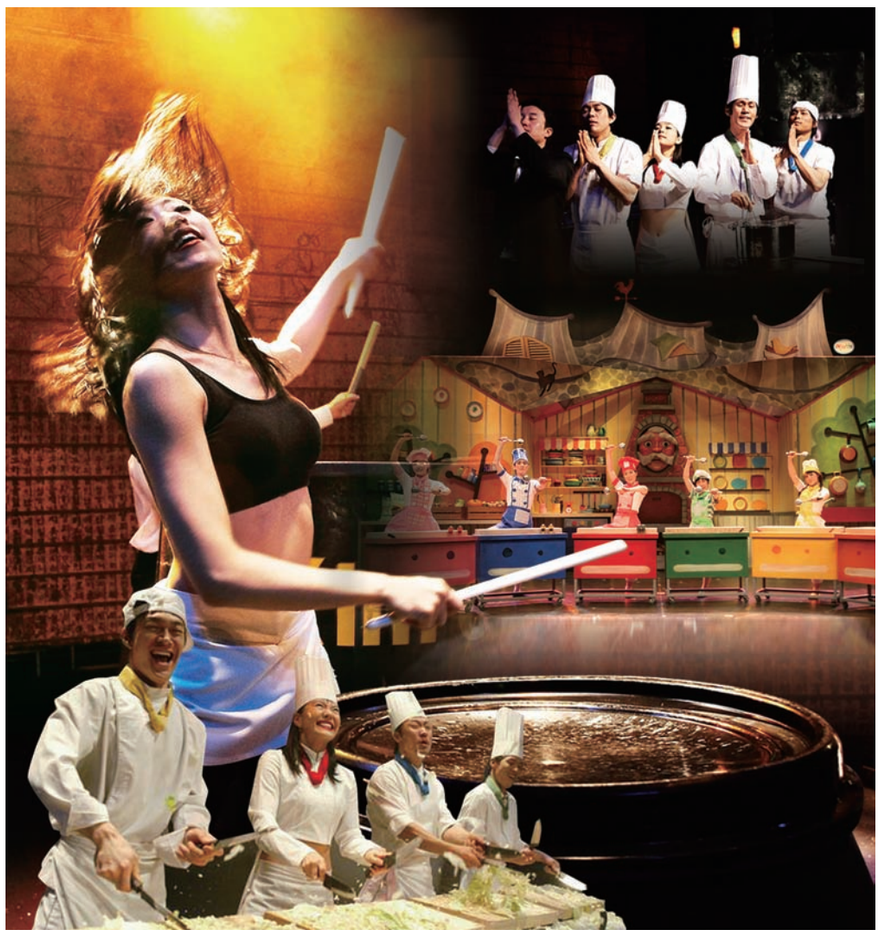
〈비언어극〉

연예산업 파워를 찾아서

㉝ PMC 프러덕션

비언어극(넌버벌 퍼포먼스)인 '난타'는 연극과 뮤지컬의 장르만이 낯익은 국내 공연계에서 독보적 길을 개척해 왔다. 그 중심에는 "국내 최초 전용관 시스템 도입""아시아 최초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전용관 설립" 등 수많은 최초의 타이틀을 얻어내며 오늘날 '난타'를 탄생시킨 PMC 프러덕션(이하 PMC)이 우뚝 서 있다.

최근 PMC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서울 대학로 홍대 아트센터를 찾았다. 한쪽의 커다란 유리창에는 서울 낙산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가슴을 시원했다. 마치 관람하고 나면 속 시원하도록 화끈한 감상을 주는 '난타'의 분위기와 닮아 있었다.



1997년 초연… 넌버벌 장르 개척
아시아 첫 뉴욕 브로드웨이 진출
오픈런·전용관 도입 안정적 매출
항공사와 제휴 한류 관광코스로
국내 첫 외국인 관객 100만 돌파
창작·어린이뮤지컬까지 영토 확장

공연 제작사 PMC의 성장은 '난타'의 궤적과 함께한다. PMC는 1992년 '환 퍼포먼스'로 출발해 1996년 12월 설립됐다. PMC의 첫 작품은 바로 '난타'. 1997년 첫 상연된 '난타'는 요리사 복장을 한 배우들이 각종 음식 재료와 주방기구를 이용해 화려한 몸놀림, 흥겨운 표정을 표출한다. 흩날리고 튕겨지는 물방울까지도 극의 생생함을 더하는 '난타'는 그야말로 열정의 장이다.

특히 어떠한 언어 없이도 관객과 하나의 마음을 이뤄내는 '난타'는 관객의 국적이나 나이와 관계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PMC 송승환 대표는 "처음부터 '난타'는 글로벌 관객을 타깃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 덕에 '난타'는 국내 초연된 지 약 2년 만에 세계적으로 유서 깊은 축제인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해 명성을 날린다. 이후 2002년 8월 제14회 아시안 게임 개막식 공연을 장식한 '난타'는 2003년 9월 아시아 최초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을 성료한다. 이 같은 성과를 기초로 PMC는 2004년 3월 오프 브로드웨이 미네타레인 극장에 '난타' 전용관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300여개국 관객에게 소구하는 매력을 지닌 '난타'의 밑바탕에는 우리 전통의 정서가 깔려 있어 의미를 더한다.

송승환 대표는 "국내 최초의 넌버벌 퍼포먼스인 '난타'는 우리 음악인 사물놀이에서 타악적 요소를 활용해 또 다른 극을 만들어냈다. 획일적 공연계에서 새로운 장르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승승장구해 온 PMC는 서울 명동, 정동, 홍대 그리고 제주도, 태국에 '난타' 전용관을 설립했다.

'난타'로 인해 국내 공연계에도 전용관 시스템이 첫 선을 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용관 시스템은 오픈런(Open Run), 즉 끝나는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연하는 상연 시스템과도 이어져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 송승환 대표는 "오픈런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전용관을 통해 관객과 만나는 '난타'의 시스템은 안정적 매출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365일 연중무휴로 작품을 올리는 뮤지컬 본고장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영국 웨스트엔드 등이 필수 코스로 수많은 세계 관광객의 선택을 받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를 위해 PMC는 해외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국내 관광 상품과 연계했으며, 꾸준히 '난타'의 객석에는 80%의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 5월 PMC는 아시아나항공과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해 다시금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한류 관광 상품으로



태국 방콕에 위치한 '난타 전용관'의 모습.

서 입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난타'를 통해 "국내 최초 외국인 관람객 100만 명 돌파, 국내 최초 관람객 700만 명 돌파"라는 기록을 보유한 PMC는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우리 관객이 내재하고 있는 정서에 가치를 두는 PMC는 창작극에도 역량을 집중해왔다. 2004년 시작된 뮤지컬 '달고나'부터 '뮤직 인 마이 하트', '젊음의 행진', '대장금', '형제는 용감했다', 연극 '밀당의 탄생' 모두 PMC의 손을 거쳐 관객과 만났다. 이러한 관심의 일환으로 뮤지컬 전용관인 PMC대학로자유극장 등을 설립했고, 이 가운데 코엑스 아티움 현대아트홀에서는 라이선스 뮤지컬인 '금발이 너무해'가 2009년부터 호응도를 높이며 공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며 선도적으로 시장 외연을 키워온 PMC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에도 꾸준한 발걸음을 내디뎌 의미를 지닌다. 어린이 관객을 공연계 미래 동력으로 삼는 PMC는 서울 PMC 어린이홀, 예림당아트홀이라는 어린이 전용관을 건립했다. 뮤지컬 '어린이 난타'를 비롯해 국내 최초 수학뮤지컬 '369', 명작동화 뮤지컬 '호두까기인형' 등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는 PMC의 특화 사업이다.

이처럼 장르의 불모지를 일궈 산업적 가치를 꾸준히 창출하며 성장해온 PMC는 영리한 성과를 거뒀다. 여타 공연제작사와 달리, 제작과 경영을 분리해 효율성을 높인 것 역시 PMC의 전략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주회사인 PMC 네트웍스는 국내에서 슈퍼소닉 페스티벌을 자리 잡게 하는 성과를 이룩하기도 했다. 송승환 대표는 또 하나의 영리한 전망을 내놓았다. "물론 뮤지컬 제작 사업은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PMC의 도전을 가능케 하는 '난타'는 킬링 콘텐츠로 당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 다른 PMC의 도전을 기대해 달라."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인터뷰 송승환 대표



더많은 관객 유입 위해 적극 해외공략

송승환 대표는 대중에게 친숙한 인물이다. 1964년 7세 때 KBS 아역 성우로 연예계에 데뷔한 그는 '종합병원', '영웅시대'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연기자로 대중과 만났다. 또 1980년대 초반 KBS 2TV '젊음의 행진', '가요 톱텐' 등의 쇼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인기를 모았다. 이처럼 전천후 청춘스타로서 활약을 펼쳤던 송승환은 미국 유학 후 제작자로 변신해 '난타'를 내놓았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제 일을 즐겨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좋아하고 재밌어서 하는 일이다 보니 아이디어도 톡톡 생기고요. 또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협업이니까요. 유능한 작가나 연출자와 함께 하다 보면 절로 고양되는 부분도 크지요."

고등학교 동창인 이광호씨와 공동 대표로 PMC 프러덕션(이하 PMC)을 설립한 송 대표는 제작과 경영을 분리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엔터테이너로서 재능을 내재한 송 대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이었다.

"프로듀서가 하는 일은 작품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죠. 좋은 작품을 만들어 개런티를 조정하고, 관객을 유입시켜야 합니다. 예술성과 이익,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죠. 좋은 프로듀서가 되는 건 그래서 어렵습니다."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직을 수행했던 그는 "국내 공연 시장은 과거에 비해 발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작다. 제작자의 과열 경쟁 속에 내부적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다. 더 많은 관객을 공연계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의 외연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해외 시장에 손길을 뻗쳐야 하는 이유다"고 밝혔다. 관광상품 연계 전략 등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을 보장하고 있는 '난타'는 PMC의 효자 상품이다. 이는 송승환 대표의 시장 전망과도 맞닿아 있다.

한편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하고 싶다는 그는 다방면에서 역량을 펼쳐왔다. 송 대표는 성신여대 융합문화예술대학 학장직도 맡고 있다. 그야말로 팔방미인, 송승환 대표다.

"나이가 든다는 건 그동안 경험하고 배운 것을 후배들에게 나눠 줘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크죠. 젊은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저 역시 새로운 자극을 얻기도 합니다."

글/ 이꽃들·사진/장세영 기자 flowerslee@



할리우드 도전 한중일 스타, 이제 할리우드서 러브콜

아시아 불모지이던 할리우드에 한·중·일 배우들이 진가를 발휘하며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터미네이터:제네시스'의 주연을 맡은 이병헌을 필두로 '주피터 어센딩'의 배두나,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의 리빙빙, 오토봇 '드리프트'의 목소리 연기를 맡은 와타나베 겐이 그 주인공이다.





이병헌 '터미네이터:제네시스'
슈왈제네거와 호흡…핵심 역할

배두나 '주피터 어센딩'
워쇼스키 남매 미드에도 출연

리빙빙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
2008년 데뷔 후 지속적 활동

와타나베 겐 '드리프트'
장르 불문…목소리 연기까지

이병헌은 '지.아이.조:전쟁의 서막' 스톰 쉐도우 역을 시작으로 '지.아이.조2', '레드:더 레전드'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 할리우드 배우로 성장했다. 그는 매 작품마다 강렬한 액션과 함께 탁월한 연기를 선보이며 할리우드 제작자와 배우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병헌은 최근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5번째 작품인 '터미네이터:제네시스'의 출연을 확정 지었다. 내년 7월 북미 개봉 예정인 '터미네이터:제네시스'는 사라 코너와 존 코너의 아버지인 카일 리스의 젊은 시절을 그리며 3부작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병헌은 '터미네이터2'에 등장했던 액체 금속 형태의 터미네이터로, 주인공인 존 코너 암살 임무에 투입됐던 T-1000 역을 맡았다. 이병헌과 함께 아놀드 슈왈제네거, 제이슨 클락, 제이 코트니 등이 출연하고 '토르:다크 월드'의 앨런 테일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정서영 실장은 "이병헌이 지난 5월부터 미국 현지에서 '터미네이터' 촬영에 돌입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함께 출연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오랜 기간 혈혈단신으로 할리우드의 문을 두드린 결과 최근의 성과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배두나는 '매트릭스' 시리즈의 워쇼스키 남매와 '클라우드 아틀라스'를 통해 주연으로 첫 호흡을 맞춘 데 이어 내년 2월 개봉 예정인 '주피터 어센딩'에 출연한다. 배두나는 워쇼스키 남매 감독의 신작 드라마 '센스에이트(Sense8)'를 통해 TV에도 진출하며 그 인연을 이어간다.

시카고를 무대로 펼쳐졌던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마지막 결전 그 이후의 이야기를 그린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에는 중화권 최고 여배우 리빙빙이 출연한다. 지난 2008년 '포비든 킹덤'을 통해 할리우드에 진출한 리빙빙은 '레지던트 이블5:최후의 심판 3D'에 이어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까지 연이어 출연하며 할리우드에서의 입지를 넓혀 가고 있다.

또 일본의 국민배우 와타나베 겐은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에서 무사 오토봇 '드리프트'의 목소리 연기를 통해 오토봇에 개성을 불어넣는다. 2003년 톰 크루즈와 함께 출연한 '라스트 사무라이'를 통해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에 노미네이트된 바 있는 와타나베 겐은 이후 '배트맨 비긴즈'를 비롯 '게이샤의 추억',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인셉션', '고질라'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관객들을 압도하며 성공적으로 할리우드에 안착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더 이상 할리우드에 진출한 아시아권 배우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영화계에도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 작품의 다양화, 세계화는 그만큼 아시아권 배우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결정적 이유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시장의 급성장이 아시아 배우들의 할리우드 진출 봇물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배국남 대중문화평론가는 "할리우드는 가장 큰 목표가 흥행이다. 영화시장이 급성장한 아시아를 잡기 위한 할리우드 마케팅 전략 중 하나가 아시아 배우를 기용하고 아시아 국가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인 터 뷰 배우 김민정

"아역출신 25년 경력 최고보다는 최선이 중요한 것 알게됐죠"



'감동이' 정신과 의사역…양면적 캐릭터 소화

"완벽해야만 했던 나, 이제는 내려놓았다." 커다란 눈망울, 자그마한 얼굴, 흰 피부에 긴 생머리. 배우 김민정(31) 하면 대중이 떠올리는 것들이다. 24일 인터뷰한 김민정〈사진〉은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진중함을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어릴 적부터 최고여야만 했다. 그게 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더라" 아역배우 출신인 김민정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칭찬만 받고 자랐다. 그 기대치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경직된 것"이라고 고백했다.

31세의 김민정은 벌써 올해로 연기 경력 25년차. 또래 연기자에 비해 많은 사람과 만났고 많은 작업을 겪어 냈다. 스스로 '이제는 목표를 달리했다'고 털어놓으며 김민정은 '최고 아닌 최선을 추구하는 것'을 으뜸으로 쳤다.

이에 김민정은 21일 종영한 tvN 드라마 '갑동이'의 종영을 맞이하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후회는 없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감사하다"며 남다른 감회를 털어놨다.

'갑동이'는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 '갑동이'를 향한 추리와 둘러싼 인물의 이야기가 긴장감을 높인 수사물이다. 여기에서 김민정은 범죄자 '갑동이'의 피해자이나 정신과 의사로 성장한 오마리아 역을 맡았다. 의사로서 범죄자를 상담하지만, 속으로는 어릴 적 상처를 품고 '갑동이'를 심판하기 위해 이를 악문 인물이다.

"오마리아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사는 여자라고 판단했다." 이는 캐릭터의 양면성을 연기로 표출해야 하는 입장에서 배우에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시청자에게 캐릭터의 이중성에 대한 의도나 당위성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느꼈다. 개인적으로 70%만 받아들여 주셔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생활을 할수록 표현이 중요함을 느낀다는 김민정은 시청자와의 소통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개그는 과장되게, 드라마는 세세하게"

개그우먼 신보라 드라마에 첫 도전
KBS '트로트의 연인' 연습생 역할



개그우먼 신보라〈사진〉가 배우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신보라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트로트의 연인'(극본 오선형, 연출 이재상)에서 최춘희(정은지)가 입사하게 되는 소속사 샤인 스타의 10년차 연습생 나필녀 역을 맡아 연기에 도전하게 됐다.

신보라는 "영광이다. '개그콘서트' 외에 다른 도전은 5년 만에 처음이라 긴장된다"며 "다들 열심히 도와주셔서 잘 배우고 있다. 작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보라는 재치 있는 시청률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시청률 20%가 넘으면 출연진의 프리 허그 공약에 동참하겠다"며 "드라마가 트로트를 주제로 하는 만큼 태진아 대표님을 명동(서울)에 데리고 가서 함께 프리허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장담해 웃음을 자아냈다.

신보라는 '개그콘서트'에서의 개그 연기와 '트로트의 연인'에서 정극 연기의 차별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연기를 하는 건 똑같지만 개그는 몇 분 안에 웃음을 줘야 해서 과장되게 표현하지만 드라마 연기는 세세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보라는 코미디언으로 성장하기 위해 또 다른 도전이 필요했음을 고백했다. 그는 "자기발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글/김민정·사진/최유진 기자 mj_kim@

소중한 내 피부… 태양을 막아라



①김혜수 안나수이 선글라스
②마르니 설글라스와 선바이저
③랑콤 UV 엑스퍼트·그라함스 칼렌둘리스 플러스 크림
④갭(GAP) 플로피 해트

여름철 피부건강 스타일링

선글라스·모자로 햇빛 막고 개성은 살리고
자외선 차단제로 유해먼지로부터 보호 효과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며 본격적 더위가 찾아오자 강렬한 햇볕을 피하기 위한 패션 뷰티 아이템이 인기다. 선글라스를 비롯해 모자, 선크림 등 각양각색 디자인과 기능으로 무장해 여름철 더위를 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있다.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주면서 스타일까지 챙길 수 있는 아이템은 무엇이 있을까. 분야별 전문가가 밝히는 패션 아이템 스타일링과 피부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선글라스는 눈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레임과 안경테의 등장으로 패션 포인트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링을 선호하는 여성들은 라운드 모양의 선글라스가 좋다. 특히 오버사이즈 선글라스는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눈 주위 피부를 가려줘 기미, 주근깨, 색소 침착을 막아줄 수 있는 스마트한 아이템이다. 블랙 컬러의 선글라스는 캐주얼룩이나 파티룩에 손쉽게 매치 가능한 아이템이다. 흰 티셔츠, 데님 아이템에 매치했을 땐 트렌디하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멋스러운 드레스와 함께 코디하면 여성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스타일링에 힘을 주고 싶은 여성들은 미러 선글라스(렌즈가 거울처럼 반사되는 선글라스)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러 선글라스는 원하는 색을 넣어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레드 톤의 미러 렌즈를 선택하면 섹시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블루 톤의 렌즈는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 각광 받는 아이템이다. 세원ITC 정재랑 부장은 "요즘에는 강렬한 컬러, 과하지 않는 디자인을 선호한다"며 "미러렌즈 선글라스는 강한 컬러의 렌즈 덕분에 경쾌하고 활동적인 룩을 연출할 수 있어 스트리트 패션 아이템으로 제격이다"고 전했다.

강렬한 자외선을 피하는 동시에 스타일까지 살린 패션 아이템은 모자가 아닐까. 이번 시즌에는 런웨이에서도 여름을 겨냥한 듯 모자 스타일링을 선보였는데, 스타일과 실용성을 살린 믹스매치로 눈길을 끌었다. 흰 재킷과 무릎 길이의 스커트에 선바이저(sun visor, 앞챙만 가지고 만든 모자)를 더해 독특한 분위기를 완성했다. 플라워 프린트 원피스에도 선바이저를 매치해 우아한 여성미를 살린 로맨틱룩을 연출했다. 넓은 챙이 특징인 플로피 해트(floppy hat)도 인기다. 레드와 네이비가 조합을 이룬 플로피 해트는 시원하면서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김민경 갭 마케팅 담당자는 "펄럭인다는 의미의 플로피 해트는 챙이 넓어 자외선 차단에 탁월하며, 모자의 색상에 따라 시크하거나 여성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머리를 묶는 것보다는 풀어서 모자 사이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면 여성미를 부각할 수 있으며, 스키니진과 티셔츠에 플로피 해트를 매치하면 세련된 느낌을 살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외선과 유해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자외선 차단제도 필수 아이템이다. 강한 자외선과 습한 날씨 탓에 피부가 갈라지고 건조해지기 쉬운 여름철에는 짧은 시간 노출에도 자외선에 의해 피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한 자외선을 받고 난 뒤에는 세안 직후 크림을 발라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면 피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랑콤 수석 메이크업 아티스트 최희선 차장은 "랑콤 UV 엑스퍼트는 강력한 피부 보호막 효과로 랑콤의 베스트셀러 아이템"이라며 "가볍게 발려 산뜻한 착용감으로 끈적임을 꺼리는 남성들에게도 인기"라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mj_kim@

인터뷰 모델 이성경

"모델은 천직… 연기자로 새 꿈 꿔요"

2008년 고3 때 슈퍼모델 대회 출전
촬영하는 것 즐거워… 스트레스 없어
내달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데뷔

발랄하고 상큼하다. 왈가닥 소녀를 연상케 한다. 런웨이에서의 카리스마 넘치고 시크한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 그의 적극적 리액션에 웃음이 절로 난다. 최범석, 박승건, 곽현주, 고태용, 스티브 요니 등 디자이너들의 숱한 러브콜과 더불어 최근 패션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는 모델 이성경이다.

이성경은 슈퍼모델 출신으로 어느덧 데뷔 7년차다.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음대 입시생이던 이성경은 지인의 추천으로 2008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출전했다. 그는 "7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 무조건 나에게 1순위는 피아노였다"며 "처음에는 '내가 무슨 모델이야'라는 생각으로 거절했다. '도전하는 건데 왜 스스로 제한하느냐'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서류를 냈다"고 모델이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성경의 운명은 타고난 모델이었을까. 학창시절 오락부장과 댄스부 활동에서 갈고 닦은 끼를 가감 없이 드러냈고 2008 슈퍼모델 TOP11에 입상하는 쾌거를 얻었다. 2년 뒤 '아시아·태평양 슈퍼모델'에서는 전체 5위를 차지했다.

이후 그는 약 3년간 개인적으로 모델 활동을 하다 2011년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고 본격적 모델활동에 나섰다. 패션광고, 뷰티광고, 뮤직비디오, 화보, 잡지, 브랜드 룩북(Look Book) 등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굉장히 바쁘지만 일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다.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4 F/W 패션위크에서 10개 이상의 쇼에 서며 다양한 디자이너의 옷을 완벽히 소화해냈다. 특히 연기 데뷔를 앞두고 있던 터라 모델로서 마지막 무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회가 남달랐단다. 이성경은 "모델로서 기억되는 패션쇼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 순간 울컥했다"며 "무엇보다 '내가 모델 일을 정말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어느 때보다 신경썼다.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성경은 오는 7월 방송되는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로 연기자로서의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촬영하고 있다"며 "드라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려고 한다. 공감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 이성경은 연기자로 새로운 길을 걷지만 모델일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모델활동을 계속한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일이다"며 "드라마 하는 동안에는 드라마에 집중하고 작품이 끝나면 바로 서울컬렉션에 집중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글/김민정·사진/장세영 기자 mj_kim@

스타 패션

MBC '개과천선' 박민영 24시간 룩



배우 박민영이 깔끔한 오피스룩과 편안한 홈웨어 패션을 선보였다.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에서 로펌 회사 인턴사원 이지윤으로 분한 박민영은 아이보리 컬러의 재킷과 블라우스로 세련된 출근길 패션을 선보였다. 또 퇴근 후에는 스트라이프 원피스와 블랙 카디건을 매치해 편안한 홈웨어를 연출했다. 박민영이 착용한 제품은 꼼빠니아 제품으로 알려졌다.

꼼빠니아 관계자는 "개과천선 방송 이후 소비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오피스룩뿐만 아니라 홈웨어 패션까지 포인트를 잘 잡아 낸다면 트렌디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동욱 '호텔킹' vs '룸메이트' 반전 패션



배우 이동욱이 완벽한 슈트 패션과 편안한 캐주얼룩으로 극적 반전 매력을 선보였다. MBC 주말드라마 '호텔킹'을 통해 냉철한 완벽주의자 호텔 총지배인으로 변신한 이동욱은 슈트로 고급스러우면서도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그레이 컬러에 더해진 은은한 체크 패턴과 블루 넥타이가 더해져 보다 신뢰감 있으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반면 SBS '룸메이트'에서 이동욱은 캐주얼룩을 선보였다. 그는 티셔츠 단 하나로 트렌디한 패션 감각을 뽐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유니크한 프린팅이 돋보이는 네이비 티셔츠는 준지 컬렉션으로 알려졌다.



I'Lavita
일' 라비타
ITALIAN LIFESTYLE CONCEPT STORE
CLOTHES, BAG, ACC, GROCERY...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HYUNDAI DEPARTMENT STORE
MAIN STORE · B2F · 02)3438-6047

코스닥 자사주 취득, 주가 보증수표 아니다

대부분 박짝 효과…주식 신탁계약 공시 후 중도 해지도

경영권 보호·주가하락 막으려 악용될 가능성 따져봐야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 취득에 나서는 코스닥 상장사가 줄을 잇고 있지만 막상 자기주식 매입에 따른 주가 상승이 '반짝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증권사나 은행과 신탁계약을 맺는 경우 애초 공시 내용과 달리 자기주식 신탁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가 증권사 및 은행과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건수는 이달 들어서만 모두 27건이다.

이들 기업이 공시에서 밝힌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목적은 모두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다. 평균 계약금액은 회사당 약 14억7000만원이다.

상장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회사가 직접 사고 파는 경우와 증권사나 은행과 신탁계약을 맺어 자기주식 거래를 대행시키는 경우였다.

기업이 직접 자기주식을 매입하면 취득 후 6개월간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지만, 신탁계약을 통해 매입하면 취득 후 1개월 후부터 처분이 가능하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상장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주가 관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코리아나화장품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신한은행과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코리아나의 주가는 23일 1620원에서 25일 1780원으로 2거래일 만에 10% 가까이 급등했다.

심지어 신탁계약 연장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

동화기업은 지난 24일 "오는 7월 1일 만기 예정인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동화기업의 주가는 2만575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전일보다 6.84% 오른 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이 반드시 계약금액만큼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레드캡투어의 경우 지난 11일 임직원 상여금 지급을 위해 신한은행과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해당 계약은 레드캡투어가 주가 안정을 위해 작년 7월에 연장 체결한 것이었다.

앞서 비엠티와 에쎈테크도 자기주식을 매각,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했다.

주가 상승효과가 길게 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조이맥스는 지난 20일 하나은행과 30억원 규모로 신탁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한 후 첫 거래일인 지난 23일 주가가 4.40% 올랐지만 다음날 바로 하락 전환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부분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이 견조함에도 주가가 저평가됐을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악용될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는 기업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주가가 오를 요인이 없음에도 주가 하락을 일시적으로 막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영진이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코스닥 상장사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현황 (단위: 억원)

상장사명	계약금액	목적
드래곤플라이	10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미래컴퍼니	5	주가 안정 및 투자가치 제고
한양이엔지	5	자사 주가의 안정
코리아나화장품	30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증대
동일금속	15	주가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푸른상호저축은행	10	자사주식가격의 안정 및 투자자 보호
푸른상호저축은행	10	자사주식가격의 안정 및 투자자 보호
푸른상호저축은행	10	자사주식가격의 안정 및 투자자 보호
푸른상호저축은행	30	자사주식가격의 안정 및 투자자 보호
조이맥스	30	주주 가치 제고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자기주식 교부를 위한 취득
토비스	20	자기주식의 가격 안정
비에이치아이	10	주식의 가격안정 및 투자가치 제고
한국전자인증	20	주주가치 제고 및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인포뱅크	5	투자가치 제고
금강철강	5	자기주식의 가격 안정
제낙스	8	자기주식의 가격안정
티피씨	20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성도이엔지	13	주식가격의 안정 및 주식가치 제고
엘앤에프	5	주가안정 및 투자가치 제고
와이엠씨	10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세호로보트	10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비에이치아이	20	주식의 가격안정 및 투자가치 제고
위닉스	40	주가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피에스텍	5	자기주식 주가안정을 통한 주주보호
이녹스	20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비아트론	20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맥스로텍	10	주식가격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
평균	14.7	

※ 6월 1~25일 사이에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한 코스닥 상장사 취합
※ 동일한 회사라도 계약이 별건이면 따로 표시함
※ 출처: 금융감독원 및 연합뉴스

펀드슈퍼마켓 장사 잘되네

두달 만에 1만5000계좌 돌파…30대 남성 주고객

펀드슈퍼마켓이 개장 두 달 만에 1만5000계좌를 돌파했다.

27일 펀드온라인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40영업일 동안 펀드슈퍼마켓에는 1만5005계좌가 개설됐다. 영업일마다 평균 375계좌가 열린 셈이다. 이들 계좌로 유입된 자금은 총 454억원이다.

유입된 자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식형 펀드에 몰렸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전체 설정액이 지난 12일 7년 만에 80조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자금 이탈 행진이 이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펀드슈퍼마켓 주식형 펀드에는 총 232억원(51.1%)의 자금이 유입됐다.

재간접 펀드에는 84억원, 채권혼합형과 채권형 펀드에는 24억원, 주식혼합형 펀드에는 20억원이 각각 들어왔다.

가장 인기를 끈 펀드는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주식형)'로 유입자금은 36억원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주식형)' 31억원, '신영고배당증권(주식형)' 24억원, '피델리티유럽하이일드증권(채권형)' 23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내 대형 운용사보다 판로가 부족한 중소·외국계 운용사 상품이 약진하면서 펀드슈퍼마켓의 설립 취지에 상당 부분 들어맞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펀드온라인코리아가 펀드슈퍼마켓에 계좌를 개설하고 홈페이지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8055명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68.3%로 여성(31.7%)의 두 배 이상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6.1%로 가장 많았고 40대(27.8%), 50대 이상(20.5%), 20대(13.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펀드 판매 보수가 다른 판매사의 절반 수준인 0.15~0.35%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꼼꼼하고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20대 여성 고객이 많을 것이라는 펀드온라인코리아의 초기 예상과 다른 결과다.

조승예 기자 sysy@



신한금융투자 법인고객 위한 뉴스레터 창간

신한금융투자는 법인 고객들의 자금운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 파트너즈 뉴스레터'를 창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 파트너즈 뉴스레터'는 법인 고객들에게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가업승계 플랜, 임직원 재테크와 최신 금융 트렌드 등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식지다.

'신한 파트너즈 뉴스레터' 창간호는 시중금리+∝를 추구하는 ELB 상품, 권역별·기업별 투자세미나, 퇴직연금 연속 기획, 회원사 소개(에어부산, 메디웨이코리아) 등을 담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의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인 '신한 파트너즈'는 기업의 자금관리와 비즈니스·CEO 가업승계 및 종합자산관리를 지원하며, 임직원 은퇴자산관리에서 금융거래 혜택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130여 법인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IB컨설팅(기업공개·기업금융), CMA 수익률 우대, 각종 업무수수료 면제, 강당 무료 대관 등 제휴법인의 성공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다.

김미정 기자 mjk@

노무라증권 "빅4 피하라"

〈삼성전자·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스마트폰·자동차 성장 한계

코스피 연말 2150선 전망

노무라증권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이른바 'Big 4' 종목을 피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Big 4' 종목들의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스마트폰의 구조적 성장 추세와 자동차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Big 4'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는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고,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3인방은 생산설비 확장이 제한적이란 점에서 의미 있는 실적 성장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코스피지수는 올해 연말 2150선까지 갈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이 가장 높고, 밸류에이션은 과거 평균보다 낮다며 초과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기술, 은행, 인터넷, 생필품 관련주의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했다.

하장청 기자 jcha@

개미가 사면 주가 우수수…

순매수 상위 20종목 중 19개 하락

정보빠른 외국인 매수종목은 올라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실적은 시원치 않은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상당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 중 19개의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 순매수 1위 종목인 삼성중공업은 지난 1월 2일 3만8050원이던 주가가 24일 현재 2만7150원으로 28.65% 폭락했다. 순매수 상위종목인 현대중공업(-30.16%)과 삼성전기(-20.27%), KB금융(-16.69%), SK이노베이션(-25.44%) 등의 주가도 하락했다.

개인 순매수 종목 20개 중 주가가 오른 곳은 삼성SDI(4.32%) 단 한 곳뿐이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이익을 쏠쏠히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보다 앞선 자금력과 정보력으로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2위 종목인 SK하이닉스의 경우 24일 기준 주가가 5만300원까지 껑충 뛰며 올 초보다 36.68%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SK하이닉스 1조140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또한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인 삼성중공업의 경우 외국인들은 이를 대량 순매도하며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해갔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 20개 중 한국전력(14.82%), LG전자(10.57%) 등 절반 이상이 주가 오름세를 보였다.

김유진 기자 eugene@

"누구의 마음에도 들지 않을 용기, 당신에게는 있는가?"

말 못 할 콤플렉스와 우울로
인생이 괴로운 사람을 위한 자존감의 심리학

나답게 살아갈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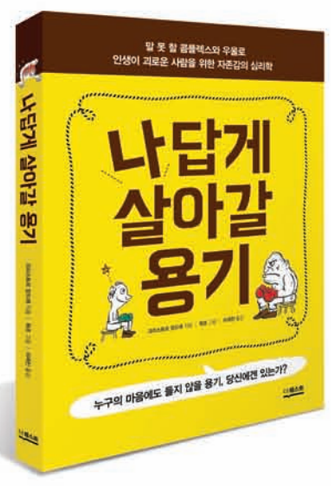
Je Depasse Mes complexes et mes deprimes

"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거절 못하는 나, 줏대 없는 당신, 남의 인정에 연연하는 우리...
콤플렉스와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회복 매뉴얼

◉ 늘 할 말을 못해 당하고 후회하는 사람을 위한 자존감 따라잡기 ◉
◉ 건강염려증에 시달리는 예민한 현대인을 위한 불안감 떨쳐내기 ◉
◉ 열등감 조장하는 사회에서 생긴 대로 살기 위한 자기사랑의 기술 ◉
◉ 스트레스로 우울하고 우울해서 스트레스 받는 '기분부전증' 해소법 ◉

문의 : 02-332-0931



크리스토프 앙드레 지음 | 뮈조 그림
이세진 옮김 | 더퀘스트 | 값 12,000원

안전과 초과수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고수들의 필살기, '권리분석'

저는 부동산 경매가 처음인데요! 2

권리분석 완전정복 2

경매 고수 신정헌의 초베스트셀러
《저는 부동산경매가 처음인데요》 2탄!
레알 생초보의 권리분석 실전편

내 집 마련부터 수익형 부동산까지, 경매 초보와 고수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극적인 수익을 얻기 위함이다. 권리분석이 까다롭거나 복잡하면 그만큼 경쟁자가 줄어들고, 일반적인 물건에 비해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저는 부동산경매가 처음인데요2》는 고수들의 치밀한 권리분석 노하우를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단계별로 알려준다. 또한 독자들이 배운 지식을 당장 적용해볼 수 있도록 실전문제를 통해 복습하고, 고수들의 Q&A를 통해 경매의 숨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

문의 : 02-2128-8775



신정헌 지음 | 한빛비즈 | 416쪽 | 값 18,500원

제 24차 경제경영 연합광고 캠페인 ◉ 출판사 참여문의 ☏ 070-4333-0098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윤대섭 회장 일가, 성보화학 지분 매입 왜?

개인회사 일동통상 통해 1만2935주 매수… "경영권 이슈 아닌 투자차원"

윤대섭 회장 일가가 개인회사를 통해 성보화학 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농약 제조업체인 성보화학은 대표적인 저평가 가치주로 꼽힌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동통상은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성보화학 주식 1만2935주를 장내매수 했다. 이번 장내매수로 성보화학에 대한 일동통상의 지분율은 0.88%(1만7680주)에서 1.53%(3만615주)로 0.65%포인트 늘었다.

성보화학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70.40%에 달한다. 성보화학은 윤장섭 명예회장이 지분 16.23%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그의 손녀인 윤정선 상무(21.07%)다. 성보화학은 윤 명예회장의 장남인 (故)고 윤재천씨가 물려받았으나 작고하며 그의 딸인 윤정선 상무가 최대주주에 올랐다.

성보화학은 윤 명예회장 일가와 함께 그의 동생인 윤대섭 회장 일가도 주요주주를 구성하고 있다. 윤 회장의 지분은 3.90%로 그의 딸인 윤수현(1.36%)씨, 손자인 윤태현(10.9%)씨, 윤수현(3%)씨 등도 성보화학 지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회장 일가의 개인회사인 일동통상



이 성보화학 지분을 매입하고 나선 것. 일동통상은 윤 회장의 딸인 윤수현씨의 남편 이병휘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부동산 운영업체로 이들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성보화학 관계자는 "윤 회장 일가가 개인회사를 통해 지분을 사들이는 것은 맞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다만 윤 명예회장의 손녀인 윤정선 상무가 최대주주 지위와 함께 회사 경영을 총괄하고 있고 윤 명예회장과 윤 회장도 경영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으로, 경영권 관련 이슈라기 보다는 회사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는 편이 맞는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성보화학은 최근 실적 성장세와 공장부지가 있는 고양덕은지구 개발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보화학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9.57% 증가한 496억5747만원, 영업이익은 36.03% 오른 37억8786만원, 당기순이익은 17.77% 늘어난 35억222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기준 현금성자산 123억원, 부채비율 25.2%, 순차입금비율 0%의 무차입 경영으로 재무안정성이 우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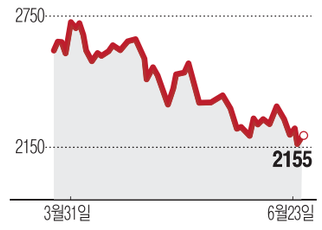
고양시에 위치한 위치한 제1공장(79,312㎡) 부지는 LH공사가 추진중인 고양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며 토지보상이 이뤄질 경우 자산가치가 재평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미정 기자 mjk@

방탄복 보급 늘리는 軍 웰크론, 더 탄탄해지나

정부 계획에 수혜주 부상

웰크론 주가 추이 단위: 원



최근 GOP 총기사고로 인해 국방부가 군 장병들의 방탄복 보급률을 높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웰크론이 주목받고 있다. 웰크론은 방탄복과 방검복 등을 제조 공급하는 산업용 섬유전문기업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민구 신임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총기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방탄복 확대 보급 계획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현 국방장관도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방탄복이 충분하지 않다. GOP 대대 보유율은 30%, 전체 보급율은 6%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9년까지 점차 확보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방예산이 앞으로 좀 더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웰크론은 이미 2010년 첫 방검복 납품을 시작으로 이후 육군 교육사령부와 콜롬비아 공군에 각각 방탄복과 방탄판을 납품한 바 있다. 2012년 3월에는 부력성능 저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부력재를 개발해 해군에 부력방탄복을 공급했다. 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에도 방탄복을 수출할 예정이다.

웰크론이 만든 부직포는 아주 촘촘하기 때문에 여러 겹 덧대면 총알을 막아내는 방탄복이 된다. 육군용은 튼튼한 방탄 기능에 충실했고 해군용은 물에 뜨는 부력 기능을 더했다.

최근에는 정부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과제인 방검부력조끼 개발도 완료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이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처가 구매 의사를 미리 밝히고 기술 개발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발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판매 독점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웰크론이 새롭게 개발한 방검부력조끼는 중량은 낮추고 방검 성능은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3.4kg이었던 방검복을 3.0kg까지 중량을 낮추면서도 막을 수 있는 칼날의 종류도 기존의 양날검(S1)에서, 한날검(P1), 송곳날까지 확대했다.

송영록 기자 syr@

제이비어뮤즈먼트 제주도 호텔 인수 취소

호텔익스프레스 계약 위반

제이비어뮤즈먼트가 제주도 중문단지 내 문을 열려던 '마제스타 호텔' 인수를 취소했다. 매도인 호텔익스프레스의 계약 위반으로 자산양수도 계약을 해지하며 카지노 사업과 병행하려던 호텔 사업도 좌초 위기에 빠졌다.

특별카지노 레저 전문기업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오는 30일 취득 예정이던 글로벌 호텔 체인 호텔익스프레스와 호텔 인수 계약을 해지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제이비어뮤즈먼트는 96억원 규모의 호텔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 호텔은 마제스타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올 하반기 그랜드 오픈할 예정이었다.

이번 호텔 인수 계약 해지 사유는 호텔익스프레스 측이 약속된 준공 완료 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이비어뮤즈먼트 측은 해지 사유로 "전기시설의 부실공사로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되며 최초 매매 잔대금 지급일인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텔 준공일자는 작년 12월 24일이다.

이어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양도인(호텔익스프레스)이 준공 완료 후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3회에 걸쳐 연장했지만 양수자(제이비어뮤즈먼트)에게 통보없이 근저당권자를 모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3건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 7조 권리 관계에 있어 계약서를 위반하는 등 계약 의무 이행이 기한 내 불가할 것으로 판단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이비어뮤즈먼트 측은 현재까지 호텔익스프레스에 지급한 계약금 등 5억9757만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이번 호텔 인수 계약 해지로 제이비어뮤즈먼트의 호텔사업도 난관을 맞았다. 제이비어뮤즈먼트가 인수하려던 마제스타 호텔은 동사가 운영하는 마제스타 카지노와 차량으로 불과 3분여 거리에 위치해 호텔사업과 카지노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됐으나 이는 무산돼 버렸다. 김유진 기자 eugene@

중국 관광객 러시에 '리홈쿠첸' 뜨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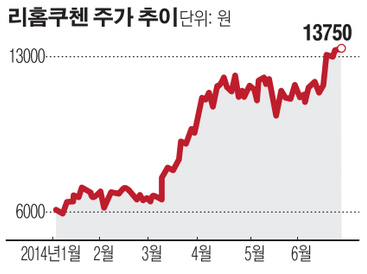
전기밥솥 쇼핑 필수품목으로 주가 올들어 110% 넘게 올라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리홈쿠첸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 쇼핑 필수품목으로 리홈쿠첸의 전기밥솥을 꼽으며 판매량이 급증, 주가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리홈쿠첸의 주가는 올 들어 110% 넘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 초 6000원대에 머물던 주가는 1만3000원대로 올라섰다. 전일에는 1만3750원까지 상승하며 52주 신고가 갈아치웠고 주가 상승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시가총액 또한 2배 증가하며 5000억원대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올해 들어 중국인 관광객 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관광통계에 따르면 올해(1월~5월)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209만574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6.8% 증가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은 전체 방한 외국인(535만1832명)의 40%를 차지했다.

리홈쿠첸 주가 추이 단위: 원



중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 지난달에는 51만7301명이 방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5% 급증세를 보였다.

증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서 국내 면세점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올 1분기 잠정 매출이 88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보다 15%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2위인 신라면세점의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18.7% 늘어난 5243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통상 1분기가 면세점의 비수기지만 4분기 수준에 육박하는 매출을 보인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면세점 쇼핑 필수품목으로 화장품과 전기밥솥을 꼽으며 판매량이 증가, 매출 신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산 프리미엄 전기밥솥을 선호하는 가운데 리홈쿠첸이 고가 라인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한 중국인 급증에 따라 리홈쿠첸의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오두균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전기밥솥은 국내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화장품 업체 대비 경쟁강도가 낮은편"이라며 "이에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프리미엄 전기밥솥 구매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2분기 이후 중국 프리미엄 유통망 확보로 인해 큰 폭의 실적 증가가 예상되고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까지 전분기 대비 폭발적인 영업이익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또한 최근 중국 진출 소비재기업 중 가장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미정 기자 lmj@



한국투자증권 '아임유 ELS 4762회 스파이크 스텝다운형'

한국투자증권은 7월2일까지 KOSPI200지수,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아임유 ELS 4762회 스파이크 스텝다운형'을 10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파이크 스텝다운형이란 발행 후 1년 내에 상환 조건 만족 시 지급되는 수익률이 높은 구조로, 1년내 조기상환 시 연 11.10%의 수익 달성이 가능하고, 1년이 지난 후 상환될 경우에는 연 7.00% 수익이 지급된다. 사진제공 한국투자증권

공시돋보기

태광실업 편입 소식에 주가 급등… 신주인수권 물량 쏟아낸 애강리메텍

5억 규모…34만9650주

태광실업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애강리메텍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자 신주인수권 물량도 시장에 풀리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애강리메텍은 5억원 규모 신주인수권이 행사됐다고 공시했다. 발행 주식 수는 34만9650주로 발행 주식 총수의 1.2%다. 행사가격은 1주당 1430원으로 상장 예정일은 다음달 9일이다

애강리메텍은 지난달 29일에도 발행주식총수 대비 1.9%에 해당하는 55만9440주가 이달 10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새로 상장됐다.

애강리메텍 주가 추이 단위: 원



이처럼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워런트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애강리메텍이 태광실업에 편입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애강리메텍은 지난달 22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태광실업을 대상으로 280억3477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21일 1521원이었던 애강리메텍 주가는 26일 현재 2305원까지 뛰어올랐다. 지난달 30일에는 2735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애강리메텍이 본격 태광실업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시 주가 상승 여력도 남아있어 워런트 104만8951주도 시장에 풀릴 가능성도 있다.

애강리메텍이 내달 1일 주주총회를 열고 전윤수 휴캠스 신규사업 고문과 서광영 휴켐스 재무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결의한 후 본격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특수건설, 사옥 팔고도 80억 부족

서초동 건물 245억에 처분 단기차입금 330억500만원

특수건설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옥까지 팔았지만 빚덩이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수건설은 전일 서울 서초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두송건설에 245억원에 처분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자산총액의 16.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수건설은 이날 계약금 24억5000만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220억5000만원은 오는 11월17일 지급받을 예정이다.

회사측은 사옥 매각 이유에 대해 유형자산 처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건설이 은행에서 빌린 1년 이내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 규모는 3월31일 현재 330억5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억77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당장 현금 마련이 시급해지면서 사옥 매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건설의 차입금 의존도는 지난 2009년 2.36%에서 지난해 24.26%로 10배 이상 높아졌다.

사옥을 팔아도 단기차입금을 갚기 위해서는 80억원 가량이 부족하다.

특수건설 관계자는 사옥 매각대금은 대부분 단기차입금을 막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밝히지 않았다.

특수건설은 새로운 사옥 마련 내용과 매각대금 사용내역에 대해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승예 기자 sysy@

남광토건 M&A 유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남광토건이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이 응찰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남광토건은 26일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중 응찰업체가 없어 유찰됐다"고 공시했다.

2012년 1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남광토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삼일회계법인과 M&A 절차를 진행해 왔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향후 매각 재추진 관련해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시장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eejin@



Made in DIOS

관리받는 물, 믿고 마시는 물이 냉장고의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냉장고보다 더 필요한 냉장고, 디오스 정수기냉장고



LG전자

깨끗하게 | 2달마다 방문 관리하는 헬스케어 매니저의 전기분해 살균
완벽하게 | 3단계 안심정수필터와 세균걱정없는 풀 스테인레스 저수조
보다넓게 | 정수기가 하나로 합쳐져 더 넓고 여유로워지는 주방 공간

간편하게 | 언제나 준비된 신선한 얼음과 필요한 만큼 조절하는 정량급수
감각있게 | 고급스러운 메탈이 더해져 심플하고 모던한 프리미엄 디자인
편리하게 | 여자들을 배려하여 설계된 쓸수록 편리한 상냉장 하냉동 구조

DIOS 정수기냉장고